



6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6호

(루계 제728호)

차 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3
주체문학의 대강	6
교정에 심은 나무	6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7
영원한 불길	7
첫 자옥	8
그날은 6월 19일이었네	8
칠보산의 봄우뢰	9
사랑의 해빛	21
혁명전사의 모습앞에서	22
영웅의 고지우에 푸른 소나무	22
계몽기가요에 대한 이해와 보급선전을 위한 고귀한 지침	23
잊지 않겠습니다	28
삶의 노래	29
아버지의 모습	31

백두산찬가	32
진정 그날에야... ..	44
시인과 그의 시집	45
《보배공장》의 아침에	49
증기는 넘려말라	54
사랑의 우산밑에는	55
내 언제나 이 계절을 안고살리라.....	55
아들의 노래	56
나의 눈가에 어려오는것은 (외1편).....	57
앞날의 담보	58
다시 찾은 열쇠	64
불타라 나의 심장이	71
생일상에 대한 생각	72
백두산으로 떠나거라.....	73
나의 구내길	74
조국과 나의 청춘.....	74
녀인들의 일터 (외2편).....	75
내 이젠 엄마되어.....	75
요람	76
계몽기가요 《봉선화》에 대하여.....	77
비둘기	79
《무적황군》의 《호박농사》	79
흰 손수건.....	80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리현순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뿌리이며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혁명전통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의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사람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더 잘 키울수 있습니다.》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한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역사적뿌리이며 혁명발전의 전행정에서 세대와 세대를 하나의 명맥으로 이어주는 혁명의 피줄기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혁명위업수행의 전행정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으며 풍부한 투쟁경험과 고귀한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다.

더우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류레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심화된것이며 우리 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위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검증된것으로 하여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은 혁명전통의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전통을 창시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수령님의 령도밑에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것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고무추동한다는데 혁명전통주제작품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 문학의 사명과 임무로부터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오늘의 우리 시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주체혁명의 새시대, 위대한 선군시대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의 혁명위업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멀리 전진하여왔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고 역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지만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도상에 있으며 우리 혁명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선군시대의 장엄한 현실은 우리 문학앞에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에 힘을 넣을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는것은 특히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에서 세대교체는 불가피하며 새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혁명의 밝은 전도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그들이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될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안에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만을 알고 자라난 혁명의 3세, 4세들이 사회의 주력으로 등장하고있다.

준엄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혁명의 끝간으로 등장하고있으며 혁명투쟁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더 높아지는 조건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그들이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지난 시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은 혁명전통교양에 힘을 넣지 못하면 혁명선렬들이 피흘려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말아먹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까지 무너지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 지는데 따라 문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

에 더 큰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전통교양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수단인 혁명전통주체의 문학작품창작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와 혁명업적을 깊이있게 그려낸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들이 창작되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와 함께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낸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동트는 강산》, 《왕재산》, 《눈서리》, 중편소설 《생명》, 단편소설 《숙영지의 저녁》, 《사랑의 행군길》, 《새날의 축복》, 《새초밭에서 만난 사람들》, 시 《언제나 7련대와 함께》, 《수령옹위투사들》, 《우등불자리》 등과 같은 혁명전통주체의 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되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작가들은 이미 이룩한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창작적양상을 가져와야 한다.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그려내는데 선차적힘을 넣는것이다.

혁명전통을 형상하는데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시대를 향도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사대와 매국으로 인한 곡절많은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주체의 기치밑에 새롭게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시였으며 그 과정에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주체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창작에서는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우리가 대를 이어 나가야 할 혁명의 피줄기가 무엇이며 우리 혁명승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예술적으로 뚜렷하게 확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에서는 민족수난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주체16(1927)년초부터 주체17(1928)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길림을 중심으로 전개하신 빛나는 혁명활동과정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을 통하여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의 창시과정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앞길에 드리웠던 검은 구름이 어떻게 주체의 해발아래 가시여지고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가 밝아왔는가를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형상하고 있다. 작품은 주체사상의 출발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묶어세우시여 주체적인 조선혁명의 려명을 안아오신 력사적사실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내었다.

지난 시기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창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시기별, 단계별로 그려낸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을 완성한데 이어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에서와 같이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문제별, 측면별로 그려낸 작품을 창작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작가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을 비롯한 수령형상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해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의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예술적으로 뚜렷하게 확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선군의 기치높이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도록 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을 비롯한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에서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에 기초하여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시고 빛내이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고 품위있게 펼쳐보여야 한다.

백두산3대장군의 형상창조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신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이시다.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혁명활동은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창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어머니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깊이있게 그려내도록 하여야 한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어머니의 불멸의 형상을 력사적사실

에 기초하여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으로 그려내는 데서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다.

총서작품에서는 수령결사옹위 의 최고화신이시며 혁명가의 귀감이신 어머니의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것을 총적인 주제사상적과제로 내세우고 어머니께서 지니신 충실성은 그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충실성이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높이에 이른 절대적인 충실성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총서를 이루고있는 매개 작품들에서는 다같이 충실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지만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심화시키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자성과 특색을 살리고있으며 나아가서 총적인 주제사상적과제를 형상적으로 밝히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작가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기초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으로 그려냄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충실성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열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혁명선열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온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빛나는 전형들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심장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불탔으며 그들의 모든 사고와 활동은 오직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정력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어있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형상에서는 그들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을 이루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두드러지게 그려내는데 큰힘을 넣도록 하여야 한다.

가사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에서는 전군에 내려치는 오중흙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사상주제적내용으로 하여 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임을 격조높이 시화하였다.

작품에서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은 항일의 준엄한 나날에 창조되었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어있으며 백승을 펼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는데로 서정을 심화시키고있다.

가사의 매절에 관통되어있는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는 7련대가 창조한 숭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그 정신을 따라배우는 온 나라의 투쟁기풍을 시적으로 함축성있게 표현한 가사의 핵이라고 말할수 있다.

가사는 온 나라에 차넘치는 오중흙7련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심오한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는것으로 하여 천만군민의 신념의 노래로, 시대의 진군가로 높이 불려워지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형상에서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함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깊이있게 그려내도록 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서 언제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나갔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혁명임무라도 자체의 힘으로 무조건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고난의 행군도 이겨낼수 있게 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구호밑에 불사조와 같이 싸워 승리할수 있게 한 무궁무진한 정신적원동력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의 형상에서는 그들이 지녔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생활과 밀착시켜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의 형상에서는 이와 함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높은 책임성 등 숭고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잘 형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생활반영의 폭, 형상의 폭을 넓혀 지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천리마대고조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항일유격대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깊이있게 그려내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주인공들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이야말로 전진도상의 난관을 극복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제부라는것을 예술적으로 뚜렷하게 확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에서는 문학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를 적극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설문학, 시문학, 극문학 등 문학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들에서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창작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속에서 널리 창조전승되고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전설, 혁명일화, 혁명설화들을 수집정리하는 사업에도 큰힘을 넣어야 한다.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더

육 높이는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정책적안목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형상의 나라를 펼치도록 하는것이다.

작가들은 선군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혁명발전의 본질을 안고있는 무게있는 종자를 잡아쥐는것과 함께 그것을 선군사상, 총대중지사상의 견지에서 깊이있게 풀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력사적사실과 예술적허구, 원형과 전형창조문제를 비롯하여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드러내보일수 있도록 형상수단과 수법을 적중하게 활용하는 문제 등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를 선군시대의 높아진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옳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창작의 주인인 작가들자신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력사도록과 함께 회고록에 대한 학습을 잘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총서이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의 구절구절을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여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하며 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를 깊이 학습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높이에 자신들을 따라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의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전통주제의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가치는 그것이 어떤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서도 규정된다.》

《깊고 역센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나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주체문학예술의 력사적경험과 조성된 안팎의 복잡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더욱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로 옮겨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사업과 당의 령도밑에 창작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을 고수하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가사

교정에 심은 나무

림정

학창시절 마치고 초소로 떠나던 그날에
우리는 배움의 교정에 나무를 심었네
일새마다 푸르러 설레일 래일을 그리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심었다네

그 나무 자랄 때 복무의 나날은 흐르고
그 나무와 더불어 수호자의 년륜도 새겨졌네

우리는 언제나 정다운 교정을 그렸고
고마운 조국의 사랑도 잊지 않았네

총메고 조국의 전초선을 지켜서있는
병사의 마음속에 교정의 나무는 푸르렀네
그 나무 아래서 우리 다시 만나리
조국에 바쳐진 위훈을자랑하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정각 10시, 나는 권총을 높이 쳐들고 방아쇠를 당기었다.

10여년세월 조국의 동포들에게 말하고싶었던 모든 사연들이 그 한방의 총성에 담겨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 총소리는 우리 시인들이 노래하듯이 어머니조국앞에 드리는 상봉의 인사였고 강도 일제를 징벌의 마당으로 불러내는 호출신호였다.》

《나는 모자를 벗어친 다음 팔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만장을 향해 필승의 사상으로 일관된 반일연설을 하였다.

〈여러분, 나라가 해방되는 날 다시 만납시다!〉

연설을 마친 다음 이런 말을 남기고 화광이 충전하는 면사무소앞을 떠났으나 가슴이 그냥 저려들었다. 칼로 살을 도려낸것처럼 몸시도 아파났다. 우리는 저마다 이 자그마한 국경의 거리에 심장의 한 부분을 떼두고 가는것이였다. 가는 심장과 남는 심장이 리별앞에서 소리없이 통곡하였다.》

영원한 불길

김춘길

노을이 불타는 땅
혁명의 승리가 보이는 이 언덕
쌍안경을 쥐시고 거연히 서계시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수령님앞에 서니
력사의 그날에 타오르던 불이
오늘도 내 가슴에 타번지여라

세월은 흘러 멀리 왔어도
오늘도 들려오누나
원쑤의 머리우에 불을 지르던
빨찌산대장의 멸적의 총소리
전설의 위대한 장군을 우러러
하늘땅을 진감하던 만세의 환호소리

얼어붙은 민족의 가슴을 녹여주시려
억눌린 인민을 불러일으키시려
자욱자욱 원쑤의 총구가 뒤따르던
피어린 압록강을 넘으시여
조국으로 진군의 길에 오르신 수령님

들려오누나
가림천기슭 황철나무밑에서 울리신
한방의 총소리
화광이 충전하는 보천보시가에서
불타버린것은 일제의 폭압기구였고
인민은 재생의 환희를 느끼였노라
그날에
우리 수령님 높이 추켜드신 불길은

결사항전의 불이였다
싸우면 반드시 이렇게 이기리라는것을
인민의 힘을 한데 뭉치면
조국의 해방은 앞당겨지리라는것을
력사에 엄숙히 선언한 불이였다

보아라 그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세찬 불길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의
붉은 기폭에 어려있어라
하늘가득 붉은빛으로 물들인 기발
영원한 승리로 새겨진 기발에

오늘도 그 불길은 타번진다
우리 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총대우에
그 누구든 우리를 건드린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으리라는
불변의 진리를 새겨주며

영원히 타번지리라
세월은 천년만년 년륜을 감는대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꺼지지 않는 승리의 해불로
언제나 불타리라
김정일장군님 높이드신 선군의 총대에 받들려
승리의 기념탑으로 솟아 빛나리라

첫 자욱

문용철

숨엄한 정적이 깃든
당중앙뜨락에
그이 첫 자욱을 찍으실 때
저 멀리 정일봉의 하늘가에선
장쾌한 우뢰가 터졌다

그이의 걸음걸음에선
청신한 백두의 바람결이 흐르는듯
속연히 바라보시는 붉은 기폭에선
백두의 노을이 비껴오는듯

아,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동지
해묵은 락엽에 묻혔던 빨찌산의 길을 열어
혁명의 명맥을 이어놓으시던
그날의 그 신념
해쓷는 룡남산마루에서 불태우시던
그날의 그 맹세
한가슴에 안고 들어서신 이 뜨락

우리 당 력사에는
이미 새겨져있었다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할
피끓는 그 맹세
결사옹위의 동음으로 울리는
105땅크사단의 진군로에 그이 찍으신
선군령도의 첫 자욱이

불노을 타오르는 제철소와
이슬젖은 밭머리
산골마을 농가의 작은 토방우에도
이미 그 자욱은 새겨져있었다
이 땅의 산과 들

가사

해빛과 바람, 눈비와 이슬이 다 스민
그이의 옷자락에선
백두의 봄아지랑이가 감돌고
그 훈훈한 열풍이 흐르고있었다

사랑하는 이 강산 가없는 하늘아래
백두의 숨결을 가득 채우신
거룩한 그 자욱자욱
천만의 심장에 백두의 피줄기를 이어주신
빛나는 그 자욱자욱

오, 영광이 있으라 조선로동당이여
수령님을 따라 시작된
혁명의 천만리가
장군님을 따를
천만리로 이어진 이 아침
6월처럼 푸른 그대의 앞길에
승리만 있으라

백전백승의 우리 당의 령도자
천만군민이 우러러 받든 향도의 태양
백두산의 초석을
우리 당의 만년디딤돌로 다지여오신
그 성스러운 자욱이여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
장군님의 그 자욱을 따라
우리 당은 백두산을 내린적 없었나니
오, 위대한 계승의 그 자욱
6월의 첫 자욱은
백두산, 백두산에서 시작되었다

그날은 6월 19일이었네

박영진

우리 당이 걸어온 행군로우에
력사의 리정표로 새겨져있네
어버이수령님 휘날려오신
혁명의 그 기발 더욱 붉어진
아 장군님 당사업의 첫 자욱 새긴
그날은 6월 19일이었네

조국과 인민의 념원을 안고
위대한 맹세를 불태우셨네
어버이수령님 펼치여오신

주체의 푸른 하늘 더 밝게 열린
아 장군님 당사업의 첫 자욱 새긴
그날은 6월 19일이었네

백두의 산악처럼 드높지 않는
일심단결 성새를 쌓아오셨네
어버이수령님 그 뜻 받드는
성스런 위업속에 영원히 빛날
아 장군님 당사업의 첫 자욱 새긴
그날은 6월 19일이었네



김도환

1

얇은 안개장막이 드리우듯 눈개가 차분히 내리며 깊어가는 밤의 고요를 더해줄 때에도 박명국은 그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었다.

이제는 그만 날이 개였으면... 이제라도 저 하늘에 별이 총총 뜨고 아침에는 눈부신 해살이 쏟아져내렸으면...

명국은 승용차를 타고가면서도 반쯤 희어진 눈섭을 쭈긋거리며 차창밖 밤하늘을 안타까이 올려다보곤 하였었다.

하지만 인간의 의사에는 전혀 아랑곳 않는것이 자연의 변덕인것 같다.

박명국이 그토록 애타게 날씨가 좋아지기를 바랐건만 눈개는 오히려 자정이 되면서부터 발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새벽무렵에는 아예 폭우로 변해버리고말았다. 창대같은 비줄기는 울퉁불퉁한 길바닥이며 산벼랑이며 나무숲들을 엇비스듬히 마구 두드려대고 길옆도랑으로는 순식간에 불어난 비물이 팔팔 소리치며 흘러갔다. 여기저기서 때없이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에 뒤질세라 우뢰소리가 파르릉 파르릉 밤하늘을 가로세로 달음질쳐갔다.

박명국은 그럴 때마다 가슴을 조이며 조심스레 옆자리에 모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려했다.

장군님께서 좌석등반이에 몸을 기대신채 가벼이 눈을 감고 계시었다. 온밤 차를 함께 타고오시며 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 난관을 뚫고나갈 방도를 의논해주시다가 방금전에야 《자, 이젠 눈을 좀 붙입니다. 인차 날이 밝겠

는데...》 하시였었다. 그러시고는 얼마나 피곤하시였는지 차가 들추는것도, 우뢰울고 번개치는것도 아랑곳 않고 인차 쪽잠에 드신것이다.

명국은 눈굽이 짜릿해와서 얼른 고개를 돌렸다.

전조등빛에 드러나군 하는 물고인 흠타기들이며 벼랑을 까내다만 돌부스레기들이며 여기저기 삐죽이 내밀린 돌부리며 하는것들이 망막을 쿡쿡 침질하며 지나갔다.

승용차들은 지금 높고 험한 박달령길을 달리고 있었다. 장군님께서 칠보산으로 가시는 길이었다. 승용차는 자주 들추었다.

명국은 이마에 진땀이 뽀질뽀질 내뿜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날씨는 또 그렇다치고 길이라도 잘 닦아놓았더라면 이렇게 차가 들추지는 않았을것이 아닌가.

모든것이 박명국이 자기의탓이었다.

이 비오는 날의 류다른 탐승도 그리고 박달령길이 울퉁불퉁 험하게 된것도...

명국은 속이 달아올라 목깃을 헤치고 가슴언저리를 세팔게 문질렀다. 《정말... 정말 돌격대원들을... 다 보냅니까? 그럼 이 길따기는... 이 칠보산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이 모지름을 쓰듯 하던 그 말이 갑자기 가슴한복판을 때리며 돌맹이처럼 날아들었던것이다. 목선듯 한 그리고 울음이 섞인듯 한 그 목소리... 누구였던가. 그제 누구의 말이었던가?

원래 이 박달령에는 칠보산탐승길을 새로 잘 닦기 위해 도에서 조직한 돌격대가 있었다. 벼랑을 까내고 옹벽을 쌓으며 한창 길을 넓히었는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런저런 조건

으로 하여 일자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있었다. 도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해지고있는 조건에서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중요대상들에 집중할데 대하여 토의하고 칠보산돌격대도 발전조건설에 돌리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랬는데...

아, 생각난다. 어느 돌격대식당에서 만났던 칠보산의 개심사 관리원... 《잔소리령감》으로 불리운다고 했었지. 그때 그 돌격대 지휘관들과 당원들은 모두 당회의때문에 지휘부에 모였다고 해서 박명국은 생활형편도 료해할겸 혼자 침실과 식당들을 돌아보고있었다. 그런데 식당에서는 그 《잔소리령감》이 송이버섯이 무독히 담긴 바구니를 놓고 애어린 식당취사원처녀를 닦아세우고있었다.

《자, 이걸 봐라. 송이를 이렇게 뽑는 법이 어디 있어, 응? 송이는 이 돌레를 손바닥으로 눌러주면서 요렇게 비틀어 따고는 그 자리에 복토를 해주어야 해. 그래야 거기서 또 송이가 돌아날게 아닌가. 자꾸 잔소리 한다구 싫어하지만 말구... 제것이라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뿌리(균실)채 뽑는 건 종자채루 다 먹어치우는것과 같은거야. 그래, 래일은 어찌되든 오늘날 좋으면 그만이란 말인가?

아무리 우리 칠보산이 유명한 송이산지라 해도 이렇게 해선 몇날 못 가. 그래 대체 어떤 녀석이야, 응? 너희들 철수한다니까 더 망대기치는게 아니야?》

칠보산의 풀 한포기, 돌맹이 한개 잘못 다쳐도 그가 누구이건 붙잡아놓고 《노루체조》를 시킨다는 《잔소리령감》이었다. 얼굴이 빨개서 애꿎은 욕을 먹던 처녀가 그의 뒤에 나타난 명국을 보고 당황해서 《잔소리령감》의 팔소매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도당책임비서동지.》

도당책임비서라는 말에 놀란듯 《잔소리령감》이 눈이 둥그래서 명국을 돌아보더니 먼구스려운듯 뒤더수기를 술술 문다쳤다.

《수고들 합니다.》

박명국은 고개를 끄덕여보이며 모두 거리로 인사를 하고는 취사장안으로 들어갔다. 취사장안을 둘러보다가 푸투 김을 뽑는 가마뚜껑을 열어보았다. 밀창에서 누린 통강냉이알들이 끓고있었다. 눈이 쓰려와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이번엔 조리대우에 놓인 금방 다듬어놓은듯 한 배추통 몇개와 마른 고사리를 담은 버치가 망막에 비쳐들었다.

이것이 돌격대원들의 저녁식사준비 전부인것이다. 돌도 삭일 한창나이의 돌격대원들은 오늘도 남새국과 산나물채를 놓고 저 통강냉이를 먹을것이다. 힘든 일을 맡아하는 손자같은 젊은이들을 배불리 먹일수 없는 피로움이 가슴을 무겁게 짓

눌렀다. 창고의 얼마 안되는 강냉이자루와 소금단지까지 열어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취사장을 나서던 박명국은 주춤 멈춰섰다.

문앞에서 그 개심사 관리원이 눈을 슴벅이며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갑자르고있었기때문이었다.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소?》

《저... 도당책임비서동지... 돌격대를 정말 다 철수시킵니까?》

박명국은 어딘가 따져묻는듯 한 관리원의 질문이 저으기 못마땅했지만 누그럽게 대답해주었다.

《그렇게 되었소.》

《사실이구만요. ...》

관리원은 한숨을 짓고 혼자말처럼 뇌이였다.

《그러니 우리 칠보산은... 우리 칠보산은... 또 ...》

관리원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이 별로 가슴을 찌릿하게 해주는것이 있어 박명국은 새삼스레 그를 쳐다보았다.

관리원의 두눈엔 연물같이 진한것이 고여오르고있었다.

박명국은 이 어려운 때에도 칠보산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눈물겹게 고마왔지만 그렇다고 이 심산속의 절간 관리원에게까지 도가 처한 형편을 일일이 설명해줄수는 없었다.

《모든 일엔 선후차가 있고 중심고리가 있는 법이요. 칠보산도 이제... 인차... 꾸립시다.》

그러자 관리원은 피로와하는 명국의 심정이 리해되었는지 그저 꺼질듯 한숨만 내쉬고는 돌아서 고말았었다. 락심천만해하던 그 모습, 슬머시 외면하던 그 눈길, 긴 한숨소리... 그것이 오늘에 와서 이렇게 못으로 박히게 될줄이야. ...

정녕 우리에게 이 탐승길 하나 닦을 힘이 없었던란 말인가.

박명국은 모두숨을 내쉬며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다.

창대같은 비발은 앞차창과 기관실덮개를 내리두드리며 뽀얀 물보라를 일으켰다. 시창밖개는 부지런히 반원을 그리며 열심히 비물을 흠쳐냈다. 하지만 전조등빛은 얼마 더 비치지 못하고 비발속에 녹아든다.

물론 그때 박명국에게 탐승길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것만은 사실이었다. 오늘과 같은 영광의 기회가 오리라고는, 바로 이 령길에 장군님을 모시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명국이었다.

전기, 연료, 자재, 식량...

형편은 날을 따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있었다.

쇠물이 끓던 로들에서 하나, 둘 불이 꺼지고 고기배들은 기름이 없어 부두에 못박힌채 바다에 못나가고 논발엔 가물과 큰물로 쪽정이만 남고...

안타까웠다. 도의 책임일군으로 임명받고 떠나

오던 날 장군님께서 두손을 꼭 잡아주시며 《함경북도에는 명국동무에게 맡깁니다.》라고 하시었는데...

명국은 모든 일꾼들이 다 사무실문을 닫아걸고 현장에 나가 살도록 요구하는 한편 자신도 김철, 무산, 성장, 라남 등 중요한위들부터 추쳐세우려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바로 이러한 때 명국은 장군님께서 함경북도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다.

명국은 너무도 반가운 소식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쑥 나오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엔 가슴을 저며내는듯 한 아픔을 느꼈다.

그이께서 오시는데 기쁨을 드릴만 한 일을 해놓은것이 하나도 없다는 자책감이 뇌리를 찔던것이다.

어제 저녁무렵, 장군님께서 오실 도로분기점에 마중나간 박명국은 자기도 모르게 땀발이 선 손바닥을 자꾸 바지흔술에 문대이며 그이를 기다렸다.

(도의 실정을 들으시면 또 걱정하시겠구나.)

명국은 난관을 뚫지 못하고 앓아망개는것만 같은 자신이 더없이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기까지 했다.

(내 이제 무슨 낮으로 그이를 뵈온단 말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속에 도의 책임일꾼으로까지 성장한 박명국이였다. 그 사랑과 보살핌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더 뜨거워지고 세심해지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키우신 일꾼》, 《수령님을 받들어 일을 잘해온 일꾼》이라고 하시며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돌보아주신다. 전쟁때 부상당했던 자리가 말썽을 부린다는것을 아시고는 외국에까지 보내어 말끔히 고쳐주시고 안해가 앓을 때에도 지어 머느리를 맞을 때에도 일일이 관심을 돌려주시고 첫 손자의 돌생일때는 《두벌자식이 더 곱다는데 할아버지가 빈손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하시며 손수 마련하신 장난감지함까지 안겨주시였다.

명국이 그때 일을 더듬으며 눈굽을 적시는데 어느새 승용차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저앞에 멈춰섰다.

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차에서 내리시였다.

《잘 있었습니까? 명국동무!》

《장군님!》

목메여 부르며 한결을 내짚던 박명국은 갑자기 몸을 흠칠 했다.

장군님의 모습이 전에 뵈왔을 때보다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으로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모습을 뵈웁던것보다 더 수척해지신것 같은 느낌이 세차게 뇌리를 후려했던것이다. 불시에 눈굽이 찡—하더니 뜨거운것이 쿵 솟구쳐올랐다. 얼마나

몸을 혹사하시였으면 이렇게까지...

명국은 목이 꼭 메여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저 두눈을 습벅이며 활달하게 내미신 그이의 손을 두손으로 황황히 감싸쥐었을뿐이였다.

《보고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상당했던 자리가 이제는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까?》

은근하고도 사려깊으신 그 말씀, 가슴이 뭉클해졌다.

《장군님, 전 일없습니다. 장군님의 배려로 외국에까지 가서 수술을 하고 료양치료까지 받고나니 정말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건강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명국동무가 일만 일이라면서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길래 한번 만나서 단단히 말해주려고 했었습니다.》 《장군님, 전 정말 건강합니다. 장군님의 사랑은 정말 하늘같은데... 제가 일을 쓰게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명국이 젖은 음성으로 말씀올리자 장군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명국동무한테 〈정말〉, 〈정말〉 하는 새로운 버릇이 생긴것 같습니다. 허허허.》

그러자 뒤에 따라서던 수행원들도 병긋거리며 웃었다.

《난 명국동무를 비판이나 하자구 온건 아닙니까. 이번엔 동무와 함께 칠보산을 좀 돌아보자고 왔습니다.》

《예? 칠보산을... 말입니까?》

명국은 너무도 예상치 못했던 말씀에 자기가 혹시 잘못 듣지는 않았는가 하여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기까지 했다.

장군님의 뒤에는 늘 그이를 모시고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군 하는, 텔레비전으로 이미 낮을 익힌 그 인민군장령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있었다. 문득 그들뒤에 유표하게 사민복을 한 사람이 눈에 띄였다. 그는 놀랍게도 외교부 부부장을 하는, 고급당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정진섭이였다. 저 사람은 어떻게 여기엘...

《왜 그러니까. 내가 칠보산을 탐승하자는것이 뜻밖입니까.》

《아니 저... 그렇게 아니라...》

명국이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라하자 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였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해도 정서생활까지 〈고난의 행군〉을 할수야 없지요. 허허허, 명국동무가 밤잠도 잊고 일한다는데 이번에 만나서는 함께 칠보산을 돌아보자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 진섭동무가 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 동무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출창 다른 나라에 나가 살다싶이 하는 저 동

무가 언제 칠보산구경을 해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소?》

정진섭이가 기름한 얼굴에 어쭙은 빛을 띄우며 한손으로 불을 술을 곁었다.

《예, 고급당학교에 다닐 때 박명국동지가 칠보산자랑을 하군 했지만 전 사실 한번두…》

《그것보란 말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요.》

이때 왜서인지 정진섭을 못마땅해서 흘겨보던 한 장령이 아무래도 안되겠다는듯 한걸음 나서며 장군님께서 어제 밤도 꼬박 밝히시고 오늘도 내내 강행군을 하셨는데 이 저녁만이라도 좀 쉬시고 래일 아침 떠났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휴식은 차를 타고가면서 합시다. 이번에 계획한 대상들을 다 돌아보려면 서둘러야 하오. 명국동무는 내 차에 함께 타고갑시다. 도의 실정을 가면서 들읍시다.》

이렇게 되어 장군님을 모시고 《함북금강》으로 이름난 칠보산으로 가게 된 명국이였다.

명국은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보아도 장군님께서 단순히 칠보산탐승만을 목적으로 오신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비오는 날의 탐승은 이 칠보산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기때문이었다. 하다가 중단된 탐승길때문은 더더욱 아닐것이다. 온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생사를 걸고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리는 이때 한갓 탐승길때문에 예까지 오시겠는가.

장군님의 사색의 한분한초, 걸으시는 자욱자욱의 그 하나하나가 다 그러하듯 이번 걸음에도 명국이 자기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웅대한 구상이 비껴있을것이다.

그런데도 날씨는 점점 더 나빠지고 길마저 이 지경이니…

명국은 차가 들출 때마다 죄스러움이 곱절로 더 커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 차를 타고가면서 휴식하자고 하시었는데 길을 이 모양으로 해놓아서 쪽잠이나마 편히 주무시지 못하게 하였으니… 여기 박달령도로를 뚫는데 동원되었던 돌격대원들이 오늘의 이 사연을 안다면 가슴을 치며 통탄할것이다. 또다시 그 개심사 관리원의 원망어린 눈길이 가슴을 파고든다. 락심천만해하던 그 모습, 후들후들 떨리던 그 손…

번쩍— 저앞에서 시퍼런 번개가 하늘중간을 찢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파르릉— 하고 하늘이 통채로 무너지는듯 요란한 퇴성이 울렸다.

명국은 얼른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여전히 눈을 감고계시였다. 얼마나 피로하시었으면… 갑자기 불덩이같은것이 왈각 목을 데우며 솟구쳐올랐다. 수척해지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노라니 저절로 눈물이

샘솟았다.

문득 옛그제 외교부의 그 정진섭부부장과 전화를 하던 일이 생각났다. 조미합의문실행을 위한 문제때문에 한달동안 외국출장을 잤다온 정진섭이었다.

적들은 우리가 금년 5월을 넘기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5월위기설》까지 내돌리고있다. 《코뮌》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통제수단이라는건 몽땅 다 발동하였으니 우리 나라가 질식되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라고 하고있다. 미제는 이번에 우리 나라를 《비최혜국 및 적국관계》지역명단에도 넣었다. 상품이라고 생긴건 일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우리를 아예 말리워버리는것이다, 살겠으면 무릎을 꿇라는것이다.

정진섭이가 한 말이였다.

《우린 주먹으로 회담탁을 쳤습니다. <좋다, 제재를 더 강화하겠으면 강화하고 마음대로 하라.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어디 두고보자.> 하고 말입니다. 그때는 격분해서 그렇게 폭탄선언을 하고 돌아섰지만… 조국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거 정말 죄스러워서 못 견디겠구만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철도역도 아닌 허허벌판에 열차가 띄어 있는것을 내려다보는 순간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만 같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우리 조국인민들에게 또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아무런 성과없는 이 회담결과에 대해 장군님께 어떻게 보고드릴단 말입니까. 이 <고난의 행군>을 앞장서서 헤치느라 것처럼 고생 많으신 장군님이신데… 정말 그때 그렇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가 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터질것만 같습니다. 가슴이…》

그렇게 안타까와하던 진섭이가 지금 장군님의 수행원들속에 있다. 회담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장군님께서 직접 걸으러 부르신 모양이였다.

장군님께서 정녕 얼마나 속이 타실가, 정진섭이네의 그 일까지 아니, 온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난관과 시련을 다 안으시고 앞장서 헤쳐나가시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러하신 장군님께 나까지도 기쁨은커녕 또다시 근심을 얻어드리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전사의 도리인가. 나같은 전사 천이면 뭘하고 만이면 뭘하는가.

언뜻 몸이 앞으로 쏠리는듯 한감이 들었다.

차창밖을 내다보니 차는 어느덧 박달령을 넘어 개심사가 자리잡은 산중턱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명국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다섯시가 가까와 오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눈을 좀 붙이자고 하신지 이제 겨우 10분이 좀 넘었다. 아, 이런 시간이라도 더 길었으면…

《명국동무 왜 쉬지 않습니까?》

갑자기 울리는 나직한 물으심에 명국은 얼른

몸가짐을 바로했다. 얼굴을 붉히며 깔린 어조로 말씀드렸다.

《용서하십시오. 저희들이 길 하나 제대로 닦아 놓지 못해… 장군님께서…》

《그만하면 한 15분 달게 잔셈입니다. 그렇게 자면 됩니다. 잠도 전투적으로 자고 피로도 전투적으로 풀고… 난 습관이 돼서 그게 좋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현현하게 말씀하시며 차창밖으로 시선을 옮기시었다.

하지만… 사실 장군님께서는 지금껏 주무신 것이 아니었다. 명국이가 밤을 꽤우는것이 걱정되어 좀 쉬자면서 먼저 쪽잠을 청하시었던것이다. 쉬고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으시였었다. 그러나 것처럼 피로하시였어도 좀처럼 잠을 이루실수가 없으시였으니 그것은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바로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기때문이었다.

그럴 때면 하늘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것 같던 대국상의 그 7월이 못 건디게 생각나곤 하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창대같은 비줄기, 하늘을 갈가리 찢던 번개, 노성을 터뜨리던 퇴우, 곡성이 터져오르던 만수대언덕, 자기들은 비를 줄줄 맞으면서도 꽃바구니엔 비웃을 씌워들고 울면서 만수대로 오르던 학생들, 인민들, 아이들…

그때부터 이 나라에 비는 얼마나 많이 내렸고 우뢰는 또 얼마나 울었던가. 그때부터 우뢰소리, 비소리는 먼저 수령님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을 불러오곤 하였다. 그 우뢰소리, 비소리를 들으시며 가만히 눈을 감고있노라면 의례히 수령님께서 찾아오시곤 했다.

방금전에도 역시 수령님께서는 집무를 보시는 장군님의 집무실로 찾아오시였다.

《장군은 밤이 깊었는데 오늘도 쉬지 못하누만.》

장군님께서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령님을 반겨맞으시였다.

《밀린 일감이나 처리하고는 인차 쉬려고 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장군님께서 권한신 쏘파에 몸을 실으며 절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건강을 돌봐야 하오. 장군은 어렸을 때 날보고 아버지는 개인의 몸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장군 역시 개인의 몸이 아니라는걸 잊지 말아야 하오. 온 나라 인민이 장군만을 바라보고있지 않소.》

《수령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건강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수령님의 다심하신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움을 느끼며 얼른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그런데 어떻게 밤이 깊었는데 오시였습니까?》

수령님께서는 풀색가위를 한 두툼한 책 한권을 앞차대우에 놓으시였다.

《내가 쓴 회고록이 또 한권 출판되었길래 들고 왔소. 이걸 보면서 머리쉽이라도 좀 하라고 말이

요.》

장군님께서는 반색을 하며 회고록을 받아드시였다. 수령님곁에 나란히 앉으며 회고록을 한장한장 번져보시였다. 소제목들을 읽어보시느라니 눈곱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벅차치시였다.

《또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회고이시군요. 지금 회고록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이 글들이 그대로 동지와 인민들에 대한 열렬한 송가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정말 내세워주고싶은 인민이요. 나는 회고록을 쓰면서 세상에 우리 인민같은 훌륭한 인민이 없다는걸 더 절실히 느끼고있소. 나와 근 한세기나 고락을 함께 해온 인민이 아니요.》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그렇게 키우셨지요.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과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으로… 그런 인민이여서 더 잘 이끌어야겠는데… 지금 우리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더욱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야 일시적이지. 난 장군을 믿소.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게요. 우리 조국은 백두산처럼 우뚝 솟아올라올게요.》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엔 앞날에 대한 믿음과 락관이 짙 차흐르고있었다. …

그렇다, 수령님말씀대로 고난은 일시적일것이지만 시련은 너무도 엄혹한것이였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난관들이 갈수록 첩첩 겹쌓이고있다. 인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겹게 고난을 헤쳐가고있다. 수령님께서 것처럼 사랑하신 인민, 그렇게도 내세워주고싶어하신 우리 인민이 배를 굶고 있고 기대를 돌리다가 그열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생각하실 때면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쪽잠에 드셨다가도 주먹을 부르짖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래서 꾸르릉거리는 우뢰소리를 들으며 지금도 역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이 조국과 인민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것인가 하는 사색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계시였던것이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시였다. 일군들부터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앞장에서 난관을 뚫고나가면 사실 이따위 고난이 무슨 문제겠는가.

하지만 적지 않은 일군들이 지금 일시적인 난관앞에 당황해서 어찌할바를 몰라하고있다. 신심을 잃고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더욱 힘들어지고있다.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안타까우시여 조금이라도 쉬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실 때에도 이처럼 힘든 걸음을 하군 하시는것이였다.

《장군님, 우리 칠보산휴양소에 가서 잠시라도 휴식하시고 날이 개인 다음에 탑승하시지 않겠습니까?》

명국의 젓은 음성이 조심히, 간절히 울리었다.
장군님께서 돌아보시니 명국의 두눈에 그렇그
령 물기가 고여있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언제 날이 개일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벌써 날
이 희분해지고있지 않습니까. 비도 좀 멎는것 같
구만.》

확실히 비발도 훨씬 가늘어지고 우뢰소리도 더
는 들리지 않았다. 전조등빛도 희미해지고... 저
앞으로는 칠보산의 웅장한 자태가 다가오고있었
다. 산중턱 안침진 곳에 합각지붕을 한 옛건물이
나타났다.

개심사였다. 개심사로 들어가는 길은 껍 고르로
왔다. 길옆으로는 석축을 새로 알뜰히 한것이 알
렸다. 이곳 주인들이 도로관리를 잘하고있는것이
반가우시었다. 사람은 주인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법이다. 사람이 먹을것이 좀 부족하다고 자
기 집을 망탕 거두는 법은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렇게 돌을 쌓을데는 돌을 쌓고 문이
삐걱거리면 못을 박아주고 창유리가 깨어지면 하
다못해 비닐박막이라도 알뜰히 대군 한다. 그것은
그 집이 바로 자기가 살 집이고 그 일이 누구도
해줄수 없는 자기가 해야 할, 자기자신을 위한 일
이기때문이다.

여기에도 바로 그런 주인이 있다. 이 깊은 산중
에도...

장군님께서는 길좌우를 주의깊게 여겨보시었다.
비바람에 넘어질세라 버팀목을 세운 나무들이 얼
핏얼핏 지나간다. 봄철에 심은 나무들인듯싶다.

장군님께서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박명국을
돌아보시었다.

《참 명국동무, 여기 개심사에 심근수라는 관리
원이 있습니까?》

《예?》

명국이 뜻밖인듯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둥그래
진 명국의 눈을 보시며 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
으시었다.

《모르는 모양입니다?》

명국의 얼굴이 순간에 벌개졌다.

《저... 작년에 개심사 관리원이라는 사람을 얼
핏 만난적은 있는데... 그 동무의 이름이 심근수
인지는...》

《그렇수도 있지요. 한개 도를 책임진 사람이 어
떻게 심산골의 절간 관리원이름까지 기억하겠습
니까.》

장군님께서는 더 말씀을 안하시고 차창밖을 내
다보시었다.

명국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어떻게 개심사 관리원의 이름까지
아시게 되었을가,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칠보산에 오시는것도 혹시 그와 무

슨 련관이 있는것은 아닌지...

개심사는 점점 가까워지고있었다.

날도 벌써 흰히 밝아오고있었다.

2

개심사 관리원은 갱끗한 얼굴에 얼기설기 잔주
름이 얹힌 60이 좀 넘어보이는 사람이였다. 청소
를 하고 물건정리를 하다가 차소리를 듣고 달려
나왔는지 손에는 물고기형목탁을 들고있었다. 그
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첫새벽에 찾아오신것이 선
뜻 믿어지지 않는 모양 입을 행하니 벌린채 눈만
검뻑검뻑하며 꺼꺼부정 서있었다. 꿈을 꾸는것은
아닌가 해서인지 얼굴에 들고있던 목탁을 텅텅
두드려보기까지 했다.

절이 비어있는줄 알았는데 벌써 나와 일을 하
고있는것이 반가우시여 장군님께서는 차에서 내
리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목탁 두드리느 솜씨가 신통히 못한걸 보니 승
려는 아니로구만. 수고합니다.》

관리원은 그제야 제정신이 든듯 어떻게 몸건사
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다가 목탁든 손을 배
허벅에 모으며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장군님!》

목메인 소리뿐 인사도 제대로 울리지 못했다.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 관리원입니까?》

《예. ... 개심사 관리원 심근수라고 합니다.》

장군님의 다정하신 물음에 좀 진정이 되는듯
심근수는 큰소리로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는 반색을 하시었다.

《음, 동무가 심혁일부대장의 아버지로구만.
반갑습니다. 한번 꼭 만나보고싶었었는데... 그래
아들한테서는 소식이옵니까?》

《예, 엇그제 편지를 받았는데 초소에 오신 장군
님을 만나뵈왔다고 하면서... 장군님을 모시고 찍
은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더
러...》

감격해서 젓은 소리로 말썽올리던 심근수가 갑
자기 말꼬리를 흐리며 애들처럼 손바닥으로 뒤더
수기를 슬슬 문대었다. 그 모양이 《장군님, 저의
아버지는 저... 칠보산에서... 칠보산에서...》 하며
우물쭈물하다가 종시 말끝을 맺지 못하던 그 부
분대장의 뒤더수기를 문대던 모습과 신통히 비슷
해서 빙그레 웃으시었다.

장군님께서 얼마전 전선동부의 최전연초소에
가시였을 때였다. 교양실과 침실, 식당과 세목장,
일일창고 등을 일일이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휴
식장에서 방금 초소근무에서 돌아온 병사들과 마
주앉으시었다. 그들의 이름이며 나이와 입대년도,
취미와 건강상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시다
그들의 고향과 부모형제들에 대해서도 물으시었
다.

《옛, 저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아버지는 평양화

력발전연합기업소 노동자이고 어머니는 종합인쇄 공장에 다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고려의학과학원 연구사입니다. 작년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공훈란부입니다. …》

고향도 각각, 부모들의 직업도 각각이지만 모두 아버지, 어머니들에 대해 긍지높이 자랑하고있었다. 그런데 하사령장을 단 부분대장만은 얼굴을 붉힌채 우물쭈물하며 동무들뒤에서 몸돌바를 몰라하고있었다.

그는 자기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서기는 했지만 얼굴이 수수떡처럼 되어 손바닥으로 뒤더수기를 문대며 떠들거렸다.

《저…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명천군인데… 아버지는 칠보산에서… 칠보산에서… 절간관리원으로…》

절간관리원이라는 소리에 모여앉았던 병사들은 병긱병긱 웃었다. 절간관리원이라는 말이 새삼스러운듯 동정어린 눈길로 바라보기도 했다. 부분대장은 더욱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쫓지고 들어갈 자제였다.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와 담화하시는 과정에 아버지가 년로보장나이가 지났다는것을 아시게 되었다. 혁일은 아버지가 남들처럼 사회주의건설장에서 큰일 한번 못해보고 생을 보내는것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모양이었다.

아버지때문에 주접이 들가봐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해 여간 마음쓰이지 않으시였다.

《혁일이, 사람이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면서 어떻게 살고있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거야. 난 동무 아버지도 한생을 당이 맡겨준 한직무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온 참된 사람이라고 믿고싶소.》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믿으시였었다.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만나보니 심근수가 그 부분대장의 아버지답다는 확신에 자못 마음이 흥그러워지시였다.

《아들은 건강해서 군사복무를 잘하고있습니다. 지금 보니 아들이 아버지보다 몸무게가 두배는 될것 같구만.》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게 군대에 나갈때에는 키만 쫓쫓았더랬는데… 사진을 보니 몸이 얼마나 났는지… 군대살이 올라서…》

《군대살이라…》

장군님께서는 명국이네들을 돌아보며 소리내어 웃으시였다.

《혁일이네가 그만하면 식사질도 높고 생활도 간지게 하고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살림살이를 잘해서 창고에 부식물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민군적인 방식상학을 조직하도록 하였습니다. 혁일이는 〈일당백의 싸움군〉 하고 속보판에 이만큼 크게 찍은 사진까지

나붙어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손으로 사진크기까지 그려보이며 혁일이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였다.

《난 헤어질 때 혁일에게 아버지도 지금 건강해서 일을 잘하고있을것이라고, 걱정말고 군사복무를 더 잘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심사로 올라오면서보니 이 깊은 산속에서도 길이랑 잘 손질해놓았구만. 그리고 이렇게 신새벽부터 절간에 올라와 유적들을 깨끗이 관리하는걸 보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허허허.

자, 이제는 여기 개심사와 칠보산에 대하여 좀 설명해주지 않겠습니까?》

심근수는 《예? 제가… 말입니까?》하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습관인듯 또다시 손으로 뒤더수기를 어루쓸었다.

《저는… 잘은 못합니다. 사실 여기에 학술연구원선생이 있었는데 지금 도에 출장을 가서…》

《도에 간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데려오겠소. 일 없습니다. 아는것 설명해주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안내했다는것을 알면 심혁일부분대장도 무척 좋아할것입니다.》

《장군님!》

심근수의 두눈에 물기가 가득 고여올랐다.

장군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고 고색창연한 개심사의 전경을 만족한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안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 개심사는 언제 지었습니까?》

그제야 심근수는 손등으로 눈굽을 훔치며 황황히 따라섰다.

그리고는 젖은 소리로 말씀올렸다.

《이 개심사는 발해시기인 826년에 지었는데 1377년과 1784년 그리고 1854년 이렇게 세차례에 걸쳐 개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건물은 1854년에 개축한것인데 이 절에 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불공을 드려야 소원을 성취할수있다고 〈개심사〉라 이름을 지었다는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러자 심근수는 한결 몸이 풀리는듯 자연스러운 손세를 쓰며 장군님을 대웅전으로 안내해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석가상들이며 《탱화》며 청룡, 황룡을 주의깊게 살펴보시였다. 그러시면서 유적보존관리를 잘했다고 심근수를 치하해주시였다.

《우리 나라엔 이 개심사와 같이 오랜 력사문화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 유적들 하나하나에는 모두 우리 인민의 우수한 건축술과 뛰어난 예술적재능이 깃들어있습니다. 이 귀중한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이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관리원동무가 아주 무겁고 중요한 일을 하고있습니다.》

《장군님!》

심근수는 목메인 소리로 이렇게 한마디 부르고

는 더 말을 못했다. 두눈에 물기가 또다시 쾅 돌았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지였다. 아들마저도 사람들앞에 떳떳이 내놓고 말하기 저어하는 그의 직업이었던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 장군님께서는 그를 더 높이 내세워주고싶으시였다. 사랑하는 전사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실지로 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변함없이 맡은 일을 주인답게 해나가고있는 그 마음이 또 귀중하셨기때문이였다.

《자, 그럼 이제 승선대로 올라가봅시다.》

개심사안을 다 돌아보고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처마밖으로 손을 내밀어 비를 받아보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시였다.

《아직 비가 오누만.》

장군님을 뒤따라나오던 심근수가 얼른 한걸음 나섰다. 장군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어린애처럼 기분이 등 뜬 그였다.

방금전 반들반들해진 돌사자상을 돌아볼 때에는 함경도사투리가 막 튀어나가는것도 모르고 옛날 중들이 아이 못 낳은 녀성들이 불공드리러 오면 그 돌사자상에 앉히고 아흔아홉번 절구를 찢게 하면서 흥측하게 놀던얘기까지 해서 사람들을 웃긴 그였다.

심근수는 자기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성수가 나서 말쑤울렸다.

《장군님께서 승선대에 오르시면 아마 날이 개일겁니다.》

누구인가 뒤에서 황급히 심근수의 옷자락을 잡아챘다. 웬일인가해서 동그래진 눈길로 뒤를 돌아보던 심근수는 대번에 찢금 목을 움츠렸다.

《동무, 지금 제정신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장군님을 승선대에 모신단 말이요?》하는 노한 질책을 명국의 엄한 눈빛에서 읽은것이다. 그제야 근수는 자기가 무엄하기 짝이 없는 말쑤를 올렸다는것을 깨닫고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장군님, 제가 그만...》

명국이 떠들거리는 그의 옆으로 한걸음 나서려 하자 장군님께서는 청청하게 웃으시며 심근수의 어깨를 툭 치시였다. 《동무는 확실히 병사의 아버지답습니다.

이 최고사령관의 마음을 알아준단 말입니다. 뜻이 통하거든. 허허허.》

활달한 걸음으로 마당에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개심사를 다시한번 돌아보시다가 그뒤에 있는 덩지 큰 나무를 가리키시였다.

《저게 약밤나무가 아닙니까?》

심근수가 죄스러운 감정을 어찌지 못해하며 말쑤드렸다.

《그렇습니다. 200년 묵은 약밤나무인데 여기 칠보산에는 약밤나무가 많습니다. 원래 약밤나무는 평안남도나 황해도 이남에서만 자란다고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칠보산에는 제주도나 울릉도에만 있다는 파초일엽과 돌

가시나무까지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 칠보산이 하도 아름다와 그것들도 여기에 와서 산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송이버섯과 고사리, 기름나물, 열레지 같은 산나물과 약초들도 많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심근수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웁습니다. 여기 칠보산지구는 백두산줄기와 함경산줄기가 겨울의 찬 북서풍을 막아주고 바다의 영향을 받기때문에 겨울기온이 높을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상이 다양하고 남쪽계통식물이 많을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승선대쪽으로 돌아서시자 마침내 명국이 앞으로 나서며 송구한 어조로 조심스레 청을 드렸다.

《장군님, 이처럼 비가 올 때엔 칠보산골안들은 모두 비안개에 잠겨 경치를 제대로 부감하실수가 없습니다. 저두 작년에 탐승길때문에 왔다가 비안개때문에 종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생각엔 휴양소에 가서 좀 쉬시다가 비가 멎은 다음에 보시면 어떻겠는지 해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 저으시였다.

《시간이 없는데 올라가봅시다. 그래도 보이는게 있겠지요.》

장군님께서 승선대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심근수가 부지런히 따라걸으며 말쑤울렸다.

《여기 승선대는 옛날 신선들이 하늘로 날아오른 곳이라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승선대에만 오르면 내칠보의 경관을 한눈에 다 볼수 있어서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와서...》

명국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것을 느낀듯 고개를 기웃한채 따라걸고있었다. 비오는 날의 탐승... 이것이 무엇을 목적인것인지 그 의미를 새삼스레 음미해보는듯 했다. 장령들도 정진섭이기도 묵묵히 걸으며 심근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길은 넓지 못했지만 손질은 많이 했다는것이 첫눈에도 알렸다.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사시나무 잎들은 비물에 번들거리고 길옆으로는 도랑물이 팔팔 흘러내렸다.

개심사에서 승선대까지는 400미터가량 되였다.

장군님께서는 마침내 승선대에 올라서시였다. 순간 기이한 현상이 펼쳐졌다. 그 순간에 바로 비가 멎었던것이다. 수행원들속에서 《야!》하는 탄성이 일어났다.

심근수가 너무 기뻐 환성을 올리다싶이 웨쳤다.

《장군님, 비가 멎었습니다. 진짜 날이 개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고 칠보산이 드릉드릉 울리도록 웃으시였다.

《심동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승선대에

오르면 날이 개일거라고... 심동무가 정말 신통합니다.》

그야말로 신비의 세계였다. 방금전까지만도 번개치고 우뢰까지 파르릉거리며 내리던 비가 순간에 멎고 마치 무대막이 열리듯, 칠보산을 뽕얇게 감싸안았던 비안개가 너울을 벗는듯 한쪽으로 서서히 밀려가는 것이었다. 검은구름이 침침하게 내리드리웠던 하늘도 파랗게 열리고 눈부시게 쏟아져내리는 아침햇빛에 내칠보의 명소들이 일시에 빛을 뽐기 시작했다. 지금껏 비물에 몸을 들쭉대며 씻었으니 더더욱 청신해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심근수가 신이 나서 설명해드렸다.

《장군님, 저기 제일 좌측에 보이는게 〈만사봉〉입니다. 만마리의 사자가 웅크린것 같다고해서 그렇게 불려왔답니다. 그 다음엔 천개의 불상이 서있는것 같다고 해서 〈천불봉〉, 다음엔 종을 매단것 같다고 해서 〈종각봉〉, 〈부부바위〉, 〈송이버섯바위〉...》

장군님께서 심근수의 해설을 들으며 이 세상 만물이 다 모여온듯 한 내칠보의 전경을 흐뭇한 눈길로 쪽 둘러보시고 나서 다시금 명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세심히 여겨보시었다.

《저 〈만사봉〉은 만마리의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는데 만마리의 사자가 아니라 만개의 절간이라 봐야 할것 같소. 저열의 봉우리가 천개의 부처를 쌓은 〈천불봉〉이라는데 부처야 절간에 있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소?》

심근수가 어쭙게 웃으며 또 뒤덜미를 손바닥으로 슬슬 문대었다.

《전 그저 지금껏 그렇게 불려왔기에... 학술연구원두 그렇게 말했구...》

《동무가 해설을 잘못했다는게 아니요. 역사문헌들을 다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 그러는 거요.》

명국이 얼른 말쑤드렸다.

《제가 학술연구사들에게 과업을 주겠습니다.》

(후에 학술연구사들은 역사문헌을 다시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만사봉》의 《사》자가 절 《사》라는것을 알아냈다고 한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러한 명국의 얼굴이 그리 밝지 못한것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이번엔 《부부바위》를 가리키시었다.

《명국동무, 저 바위엔 전장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 부부가 서로 열싸안았다는 전설이 있다는데 저 녀인의 손이 참 묘한데 감춰져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국이라도 그 전설이 생각난듯 버럭 웃었다.

《아마도 너무도 기뻐서 그것부터...》

요란한 폭소가 터져올랐다.

장군님께서도 웃으시며 수원들을 둘러보시었다. 장명들뒤에 서있는 정진섭을 손짓해부르시었다. 이번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죄스러워하

던 그였다.

《진섭동무, 동무가 아무리 세상천지를 메주밟듯 했다 해도 이런 훌륭한 경치는 못 보았을게요. 그래서 동무가 조국에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자 여기로 오라고 한것이요. 마침 칠보산이 일정에 물러있어서...》

그러시고는 손들어 가리키시었다.

《저것보시오. 잔치날 새각시가 났다는 〈가마바위〉, 그 각시의 첫날이불을 쌓아놓았다는 〈금적바위〉, 수많은 장서들을 진렬해놓았다는 〈책바위〉, 노젓는 〈사공바위〉, 초가이영을 인 집들이 서로 맞붙어 오구구 모여있는 〈초가집바위동네〉. 얼마나 신통합니까. 칠보산은 확실히 명산중의 명산입니다. 다른 명산들과 달리 여기서는 한곳에서 모든것을 다 볼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보는 경치, 내려다보는 경치, 올라다보는 경치... 어느모로 보아도 멋이 있는 명산입니다. 근수동무, 이 칠보산에서 어느 계절이 제일 멋있습니까?》

《예, 칠보산은 꽃이 피는 봄경치가 멋있습니다. 끝마다 울긋불긋 꽃들이 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구... 아니, 록음이 짙은 여름경치도 좋습니다. 푸른 숲과 저 바위들이 한데 어울려서... 아니, 아니... 아, 가을이 제일 멋있는것 같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타는데다가 산열매들까지 무르익구...》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겨울대로 멋있습니다. 저 바위와 봉우리들, 나무가지들마다 눈이 하얗게 덮이는데 정말 기막힙니다.》

《그러니 다 좋다는거로구만.》 하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즐겁게 웃으시었다. 《여기 칠보산은 4계절다 그럴것지만 겨울풍치가 제일 멋있을것 같습니다. 이 지구는 겨울기온이 온후해서 눈이 와도 진눈까비같은것이 많이 올것입니다. 저 숲들과 봉이들과 바위들에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면 그야말로 절경일것입니다.》

《웁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심근수가 제격 긍정하는 바람에 모두들 소리내여 웃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박명국을 돌아보시었다.

《명국동무는 이 칠보산이 왜 우리 나라의 5대 명산에 속하지 못한것 같습니까?》

《저... 전 잘...》

명국은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장군님께서서는 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칠보의 전경을 둘러보시며 분개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통치배들이 함경도를 사람못살 고장으로 치부하면서 이곳을 정배살이, 류배살이 고장으로 삼았기때문입니다. 봉건통치배들은 교통이 불리한 이곳에는 거의나 발길을 하지 않았고 가까운데 있는 명승지이나 찾아다니며 음풍영월을 하였습시다. 갓쓰고 하늘소

를 타고 부채질을 하면서 부귀영화만 누려온 그들의 눈이 칠보산과 같은 명산을 알아볼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 때문에 칠보산은 오랜 세월 묻혀있었습니다.》

명국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이 칠보산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휴양소가 꾸려진 후부터 해마다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전국의 곳곳에서 수많은 휴양생들이 찾아오군 합니다. 그들모두가 칠보산을 명산이라고 감탄해마지않군 한답니다.》

《옳습니다. 칠보산은 명산중의 명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5대명산을 꼽았다면 우리 로동당시대에는 6대명산을 꼽고 칠보산을 단연 첫자리에 놓아도 손색이 없을것입니다.》

심근수가 흥분하여 한결을 나섰다.

《1766년에 당주 박종이라는 사람이 칠보산을 돌아보고 남긴 글이 있습니다.

〈맑고 개절한 틀에서는 금강산을 일러야 하고 높고 기발한 점에서는 설악산을 들어야 하며 서리고 겹친 산세로서는 묘향산을 손꼽아야 하지만

깊숙한 가운데 기괴한 빛을 갖춘것으로서는 칠보산이 으뜸이다〉

그리고 우리 〈칠보산 개심사〉 기록엔 이런 예언글도 있습니다. 〈만고로 비장(문혀)되었던 이 명산이 일조 일달 일국의 제일이 될거니〉 하는 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을 두고 쓴 글 같습니

다.

정말 우리 칠보산은 이제야 자기를 알아주는 진짜주인을 맞이하였습시다.》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심근수를 쳐다보시였다.

《〈우리 칠보산〉 이라... 고맙습니다. 이 칠보산을 〈우리 칠보산〉 이라고 부를수 있을만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이 산의 주인으로 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동무같은 칠보산의 주인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장군님을 우러르는 심근수의 두눈에 물기가 핑고여올랐다. 속눈섭을 몇번 습벅이던 심근수는 굵기야 고개를 떨구었다.

《장군님, 전 사실 그런 치하의 말씀을 받을만한 일을 못하였습니다. 칠보산탐승길공사를 하다가 다들 돌아가자 한뼘 맥을 놓았었구... 그후엔 그저 혼자서만 뭘 좀 해보자구 했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혁일이한테두 부끄러웠구...》

장군님께서는 들먹이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였다.

《아니, 난 오늘 동무를 보고 큰 힘을 얻었소. 우리 이제 혁일이가 아버지자랑을 더 크게 할수 있게 일을 잘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젠 정말 일을 잘하겠습니다.》

심근수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젖은 음성으로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

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시한번 내칠보의 경치를 부감하시다가 박명국에게 물으시였다.

《칠보산엔 폭포가 없습니까?》

박명국이 난처해하며 두손을 맞비볐다.

《장군님, 폭포는 덕골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퍼그나 됩니다.》

장군님께서는 반색을 하시였다.

《됐구만, 명산엔 폭포가 있어야 제격이지. 그럼 이번엔 폭포에 가봅시다.》

심근수가 정신이 번쩍 든듯 고개를 흔들어보고는 성급히 말씀드렸다.

《장군님, 덕골까지는 아직 자동차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길을 닦지 못해서...》

장군님께서는 서글서글하게 웃으시였다.

《심동무가 어떻게 자동차길까지 닦겠소. 자, 걸어서라도 가봅시다.》

《장군님!》

박명국이 얼굴을 붉히며 죄책어린 어조로 말씀드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쓰게 못해서... 앞으로 꼭 길을 닦을테니 그때 차를 타시고가셨으면 합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정진섭이도 장령들도 간절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였다.

《일없습시다. 명산에 왔다가 폭포도 못 보고 그냥 가겠습니까. 앞으로 인민들은 차를 타고다니라고 하고 우린 멀어도 걸어갑시다.》

《장군님!》

박명국은 이렇게 목메인 소리를 하며 고개를 꼭 떨구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어떤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를 점점 더 통절히 느끼게 되는 것이였다.

3

덕골폭포로 골안따라 올라가는 오솔길은 여기저기 뿌죽뿌죽 돌부리가 솟아있고 열기설기 나무뿌리들이 가로지른데다가 해묵은 잔 나무토막들까지 덮여있어 험하기 그지없었다. 좌우에는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사시나무를 기본으로 하는 넓은잎나무숲과 소나무숲이 짝 들어찼고 골짜기로는 비온 뒤끝이지만 맑은 물이 팔팔 요란스레 소리치며 흘러내렸다. 해별은 머리우에서 지글거리고 습기를 가득 머금은 땅에서는 열기가 확확 뿜어올라왔다.

여기저기서 매미들이 경쟁이라도 하는듯 맴맴거리며 열심히 더위를 북돋아주었다.

장군님께서는 진창길을 벗어나자 길옆에서 나무꼬챙이를 집어 신발에 잔뜩 달라붙은 진흙을

쭉쭉 밀어떨구고는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의 땀을 훔치며 뒤를 돌아보시었다.

장령들도 정진섭이도 박명국이도 땀을 뻘뻘 흘리며 우물구불 끝짜기를 따라 올라오는것이 나무 잎과 가지들사이로 얼핏얼핏 보였다. 그들도 신발에 진흙이 자꾸만 달라붙어 몹시도 걷기 힘들어했다. 그가운데서도 박명국이 류달리 몸돌바를 몰라하는것이 알리었다.

장군님께서는 이윽도록 그를 내려다보시었다. 언제인가 아버지수령님께서 한 기계공장에 현지지도나갔다가 오시여 좋은 일군을 한사람 알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던 일이 불쑥 떠오른다.

《그 공장 사람들이 자기네 당비서를 보고 〈땅크〉라고 하더군. 아닌게 아니라 전쟁때 땅크병을 했대요. 앞으로 잘 키우면 한개 도 좁은 능히 담당할수 있을것 같소.》

그가 바로 박명국이였다. 박명국은 아버지수령님의 류다른 관심속에 인민경제대학과 김일성고급당학교를 나오고 연합기업소 책임일군으로 자랐고 내각과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사업하면서 일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그가 칠보산탐승길을 건설하던 돌격대까지 다른 곳으로 돌렸다. 장군님께서는 이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도가 치한 형편이 헤아려졌고 박명국이 난관앞에 어떻게 당황해하고있는가를 꿰뚫어보실수 있었다. 지금껏 예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난관에 갑자기 부닥치다니 자기도 모르게 동요심이 생기고 신심과 배짱이 약해진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갈팡질팡하고 있다. 저 부르튼 입술, 수척해진 볼, 충혈된 눈… 저 《땅크》에게 필요한 《기름》도 바로 그 신념과 배짱이 아니겠는가.

《빨리 올라오시오. 그 구간만 지나면 진창길은 끝이요.》

장군님께서는 잠시 그들을 기다리며 좌우 산릉선쪽을 올려다보시었다. 한동안 산경치를 부감하시다가 시크무례한 냄새에 눈길을 돌리시었다. 커다란 바위가 웅크리고 앉은 약간 그늘진 습지대에는 삼지구엽초가 싱싱한 자태를 드러냈고 그옆에서는 대줄기같은 싱아들이 숲을 이루며 자라고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몇걸음 걸어가 싱아 한대를 당겨 새콤한 냄새를 맡아보시다가 명국이 가까이 오자 함께 걸으며 나직이 물으시었다.

《명국동문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박명국은 자책이 어린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저의 잘못으로 장군님께서 이렇게 험한 길로 힘든 걸음을 하시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걸음을 좀 걷는거야 뭐랍니까. 가슴아픈 건… 동무들에게 요구되는걸 듬뿍듬뿍 쥐여줄수 없는 그것입니다. 사실 난 동무네가 이 칠보산에 탐승길을 새로 건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또 하나의 명승지를 안겨주게 되었구나 하고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때문에 중지했다는것을

알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장군님, 제가 장군님의 뜻을 잘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승길같은것은 그닥 바쁘지 않은것으로 여기고… 한생을 아버지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셔온 제가…》

장군님께서는 앞에 드리운 짙광이나무가지를 들어올려 명국이 지나가게 길을 띄워주며 약간 갈린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조국강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는것은 바로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더 절박한건 인민들의 생활문제입니다. 난 가끔 차를 타고가다가도 부피큰 배낭들을 지고다니는 우리 녀성들을 보면…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습니다.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게 가슴에 걸려 그런 날은 쪽잠마저도 잘수가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는 점점 악랄해지고 파국적인 자연재해는 해마다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래 그렇게도 풀지 못할 난국이겠는가. 명국동무, 장애물이란 올려다보면 높아보이고 내려다보면 낮아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는 명국이 돌부리에 걸쳐여 비칠하는것을 얼른 부축여주시었다. 명국이 힘들어할새라 부축하신채로 걸으시었다.

어디선가 뻘뻘—뻘뻘—하고 뻘꾸기가 울었다. 그 소리가 별로 유정하게 들려왔다.

향긋한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길옆에서 꽃솔이 한껏 벌어진 나리꽃이 하느적이고있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슬기롭고 강의하기로 소문난 인민입니다. 난관이 크다고 주저앉을 인민이 아닙니다. 수령님을 따라 만산을 뚫고 이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한 우리 인민이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일군들에게 있습니다.

탐승길문제는 심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래 함경북도에도 이 탐승길 하나 건설할 힘마저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난 이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탐승길문제가 아니라 신념문제가 있고 배짱문제입니다.》

박명국은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의 말씀을 석공이 돌에쪼아새기듯 심장에 마디마디 새겨넣고있었다.

머지않은 곳에서 또다시 뻘뻘—하고 뻘꾸기가 울었다.

4

장군님께서는 덕골에 가시여 옥계폭포와 상덕폭포를 보신 후 외칠보며 해칠보며 동서로 60리, 남북으로 100여리에 달하는 칠보산의 천연기념물과 명소를 다 돌아보시고나서 정진섭에게 물으시었다.

《어떻습니까, 돌아본 감상이…》

정진섭이 감개무량해서 말씀드렸다.
《장군님,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정말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정말...》

《이 동무에게도 〈정말〉, 〈정말〉 하는 버릇이 생겼구만. 그것도 명국동무에게서 옳은게 아닙니까.》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자 수원들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 이 칠보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 칠보산지구를 외국인들의 관광지구로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명산을 조금만 꾸려놓으면... 많은 외화를 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수원들을 둘러보시었다.

《이 동문 여기 와서도 역시 외국인들과 사업할 생각뿐이구만. 허허허, 이보오. 진섭동무, 우리에게 중요한건 외화를 버는것이 아니요.

칠보산은 외국인들의 관광지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야 합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듯 자연을 팔아 돈을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칠보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것을 다 와서 보고 마음껏 즐기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더 잘 알게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될것입니다. 나라를 한목숨 바쳐서라도 지켜야겠다는 각오도 굳어지고... 〈고난의행군〉을 한다고 이런 중대한 사업을 중단할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내밀어야 합니다. 100년, 1 000년, 먼 앞날을 내다보며 칠보산으로 들어오는 길도 넓히고 명소들로 가는 길도 잘 닦고 차집들과 정각들도 짓고 해서 칠보산을 세계적인 명승지로 건설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명국은 첫순간 미처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너무도 크나큰것이 심장에 쿵 하고 들어앉는것을 느꼈다.

100년, 1 000년, 먼 앞날을 내다보라... 그랬다, 장군님의 가슴속엔 이 《고난의 행군》이 승리할 그날이... 아니, 그보다 훨씬 먼 앞날... 천년, 만년 후의 내 조국의 모습이 안겨있었다.

그런데 나는 어떠했던가. 눈앞에 다닥친 난관들이 넘지 못할 언덕처럼 높아보여서 아득하게만 생각하지않았던가. 내판에는 부족되는 자재와 로력을 한데 집중해서 돌파구를 연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명백한 후퇴였다. 《동면》이었다. 그것이 돌격대원들에게는 과연 어떤 정신적후과를 미치였겠는가. 다시금 심근수의 그 원망의눈길, 꺼질듯한 한숨소리, 락심천만해하던 표정이 가슴을 지지며 파고든다.

아—아— 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이 칠보산 탐승길뿐이 아니었다. 도의 전반사업이, 나의 사업과 생활이 다 그랬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면서 동분서주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래서 오신것이다.

이런 나를 깨우쳐주시려고...

문득 폭포터로 가실 때 길이 험하다면서 몸소 부축해주시며 걸으시던 장군님 그 은정이 목메이게 안겨왔다. 가슴에 불덩이를 안은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제구실 못하는 전사를 어제는 외국에 료양치료까지 보내며 건강을 보살펴주시고 오늘은 또 이 먼곳까지 찾아오시여 신심과 배짱을 안겨주시며 일하는 법을 배워주시고... 이 박명국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갑자기 꾸르릉— 하고 내칠보쪽에서 우뢰가 울었다. 칠보산이 통채로 울리는듯...

《동무는 우리 수령님께서 키우신 일꾼입니다.》

그것은 박명국을 외국에 료양치료보낼 때 하신 장군님의 간곡한 말씀이었다. 《동무는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군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명국은 어깨를 쭉 폈다. 가슴엔 칠보산이 통채로 들어앉는듯 심장이 커지고 키도 거인처럼 부쩍 커지는듯싶었다. 온 천하가 발아래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해낼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다시금 물으시었다.

명국은 신심과 용기가 피줄기를 따라 온몸에 쭉쭉 퍼져나가는것을 느끼며 힘차게 대답올렸다.

《장군님, 하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미더운 눈길로 명국을 보시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공사량이 얼마나 되겠는가 해서 이번에 다 돌아보았는데 사실 도자재의 힘으로 하기엔 험치 않을것입니다. 더구나 경치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하자면 품이 이만저만 들지 않을것입니다.》

《장군님, 할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인민들은 장군님께서 칠보산을 세계적인 명승지로 잘 꾸리라고 하셨다는걸 알면 만세를 부를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은 벌써 승리한것이라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저 한쪽 옆에 서있는 심근수를 보시며 빙그레 웃으시었다.

《하긴 함경도사람들이 일을 제낄줄 알지. 한번 멋있게 꾸려보시오.》

그러시고는 수원들을 둘러보시며 힘있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어려운 때이지만 명승지를 꾸리는 사업을 더 힘있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구월산, 정방산, 장수산들도 더 잘 꾸리고... 전반에 룡문대굴을 돌아보았는데 군인들이 잘 꾸려놓았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계속 군대가 앞장서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령들이 약속이나 한듯 우렁차게 대답올렸다.

그러자 정진섭이가 걱정을 금치못해 한걸음 나섰었다.

《놈들은 우리가 굶어죽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 앞날을 내다보며 명승지까지 건설하고있다는것을 알면 아마 기절충동할것입니다. 시간표까지

짜놓고 언제 무너지겠는가 하고 컴퓨터앞에 앉아
이제나 저제나 하며 지켜보던 놈들인데... 아예
눈이 뒤집힐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미소어린 눈길로 그를 쳐다보시
였다.

《그들이 우리 인민을 다 알자면 아직 멀었습니
다.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있는
지... 앞으로 계속 놀라라고 합시다.》

그러자 수원들이 통쾌한듯 소리내어 후련하게
웃었다.

정진섭은 저으기 흥분한듯싶었다.

《장군님, 정말 배짱이 생깁니다. 이젠 장군님께
서 왜 저를 여기로 불러주셨는지 잘 알았습니
다.》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신채 고개를
가로저으시였다.

《동무를 부른건 휴식을 주기 위해서였소. 이번
회담때문에 너무 속을 쓰는것 같아서... 어제도
말했지만 동무는 이번 회담때 아주 잘 행동했소.
자존심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요.》

《장군님, 알겠습니다. 제 앞으로도 계속 놈들을
배짱을 가지고 다볼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오. 자, 그럼 명승지에 온 기념
으로 사진이나 한장 찍읍시다. 진섭동무랑, 명국

동무랑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는데...
관리원동무도 어서 오시오.》

《장군님!》

장군님께서 찾으시자 심근수는 목메인 소리를
하며 머리를 숙였다.

《난 오늘 여기에 와서 관리원동무에게서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그 어디에서 무
슨 일을 하건 누구의 가슴에나 다 보석같은것이
꼭 차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
다. 그 믿음, 확신... 그것이 곧 우리의 담력과 배
짱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난 오늘 정말 기쁘니
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초소에 보내면 혁일
이도 좋아할것입니다. 아버지를 자랑하게 될것입
니다.》

꾸르릉.

또다시 우뢰가 울었다.

인차 비가 오려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박명국이
며 정진섭이며 심근수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우
뢰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칠보산의 그 우
뢰소리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련의 언덕을
뛰어넘어 강성대국의 봄언덕으로 질풍같이 내달
리는 천군만마의 발구름소리를 듣고있었다. 승리
의 축포소리를 듣고있었다

사랑의 해빛

-한 영예군인지배인을 대신하여-

진춘근

날이 가면 갈수록
뜨거우신 그 사랑 잊을수 없고
자애로운 그 영상 어려와
그리움에 고마움에 젖는 이 마음

비내리는 그날에
우리 공장 찾아오신 장군님
좋은 날 좋은 때에
좋은 길 골라 오실수도 있으련만
영예군인들을 위한길은
단 하루도 미루실수 없으셨기에

하많은 날중에도
하늘가득 땅가득
폭우가 쏟아지는 곳은 날
우리 공장을
몸소 찾아오신 아버지장군님

비를 맞으실가봐
그이의 옷자락 젖으실가봐
송구한 마음 조이며
급히 우산을 받쳐들고 달려갔건만

오히려 내가 비를 맞을가봐
감기라도 걸릴가봐 걱정하시여
영예군인동무가 쓰라고
자신의 체온으로 이 몸을 꼭 껴안으시고
친히 우산을 펼쳐주실 때

몸도 마음도 다 말긴채
두볼을 적시며 적시며
내 삼키고 또 삼킨것은
눈물만이었던가

지꽃게 야속하게 쏟아지는 폭우에
장군님 야전복자락에선
차디찬 비방울이 쉬임없이 떨어지고
나의 옷섶에선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도

이내 가슴속엔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이
더욱 뜨겁게뜨겁게 흘러들었네
우리 영예군인모두의 심장에도
오늘도 그날처럼 파사로이 흘러드네

혁명전사의 모습앞에서

조영일

오늘도 주작봉마루
영생의 언덕우에 서계시는
김철주동지!
그이의 모습을 우러러 서니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윽한 술향기도
그이의 숨결되어 이 가슴에 안겨오는듯

어려오누나
10대의 어리신 그 시절부터
만경대가문의 크나큰 뜻을
한가슴에 새겨안으시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혁명가의 그 모습이

소사하의 작은 집에서
형님을 잘 도와드리고
형님과 같은 혁명가가 되라고 하신
어머님 남기신 그 말씀
그 유언 심장에 새겨안으신 김철주동지!

언두부 한모를 앞에 놓으시고
마실줄 모르는 술 한잔으로
작별의 타는 가슴 달래이시며
수령님의 두손을 뜨겁게 잡으셨던
량강구의 바람찬 그 가을날이
지금도 이 가슴에 어려오나니

그렇게 수령님과 헤어져 가신 길엔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쳤더라
결음걸음 폭압의 광풍을 헤치시며

혁명조직을 복구하시고
청년들을 투쟁으로 일으키시며
혁명전사의 억척같은 그 신념으로
걸으신 그 길은 몇천 몇만리...

반일련합전선의 사선을 헤쳐가신 그 나날에도
이국의 광야에 헤매이던 가슴마다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던 그날에도
혁명전사의 오직 한모습
오로지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지켜
한몸을 혁명위해 태우셨거니

수령님의 동생이시기 전에
혁명전사!
한없이 고귀한 그 부름으로
한생을 빛내이시며 불같이 사신분

아 너무도 젊으신 나이에
너무도 크나큰 업적을
조국과 혁명앞에 쌓으시고
우리결을 떠나시였어도
그이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앞에
혁명전사의 귀감으로 빛나시여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한모습이여
위대한 장군님따라 선군혁명천만리
최후승리를 향해나가는 천만군민의 대오앞에
오늘도 기수가 되어 서계시여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영원한 그 모습, 혁명전사의 모습으로!

가사

영웅의 고지우에 푸른 소나무

김영순

총잡고 내가 선 고지우에는
사연많은 한그루 소나무 서있네
바위도 불타던 전화의 나날
영웅들 심었던 애솔포기 나무라네

타는 목 추겨줄 한모금 물도
영웅들 이 나무에 정히 부었다네
최후의 돌격전에 나아갈 때도

승리의 래일을 이 나무에 엮었다네

푸른 숲 우거진 영웅의 고지에
사연많은 한그루 소나무 서있네
선열들 피로 바꾼 나무들 자라
그날의 위훈을 속삭이며 설레네
아 영웅의 고지우에 푸른 소나무

계몽기가요에 대한 이해와 보급선전을 위한 고귀한 지침

서재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로작 **《계몽기가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음악유산이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96(2007)년 3월 20일, 31일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문화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하신 이 력사적담화에서 계몽기가요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음악유산으로 된다는 것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시고 그에 대한 보급선전사업이 가지는 의의, 이 사업을 잘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이 로작은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살려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문예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량식이며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며 북과 남, 해외에 사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무엇보다 먼저 심오한 력사적 및 미학적해석과 완벽한 론리로 계몽기가요에 대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줌으로써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계몽기가요에 대한 편견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력사의 이끼속에 묻혀버릴번 했던 계몽기가요를 선군시대에 다시 찾아 빛을 뿌리게 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계몽기가요는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우리 민족의 귀중한 음악유산으로 됩니다.》

계몽기가요를 어떻게 리해하고 취급하는가 하는것은 민족문화유산계승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이다. 해방전시기에 창작된 계몽기가요를 퇴폐적인것으로 리해하면 거기에 스며있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이 파문히게 되며 그 제한성을 보지 못하면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이 흐려지게 되는 후과를 낳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첫시기부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살려나가는데서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계몽기가요에 대한 리해와 취급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력사적과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가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

지에 의하여 비로소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계몽기가요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주시고 지난 시기 계몽기가요에 대한인식과 보급에서 나타난 편향의 형태와 내용, 그 부당성을 까밝히시였으며 계몽기가요의 특징, 그 진보성과 제한성을 명철하게 해명해주심으로써 계몽기가요를 덮어놓고 부정하던 종래의 비과학적인 인식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계몽기가요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선 계몽기가요는 어떤 가요이며 그 인식과 보급에서 나타난 편향이란 무엇이며 그 부당성은 어디 있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로작에 밝혀진것처럼 계몽기가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 나온 진보적인 노래들을 말한다. 그것은 나라없고 돈없고 부모처자 잃은 눈물겨운 처지를 한탄하여 지은것이다.

그런데 해방후에 계몽기가요의 진보적성격에 대하여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몽기가요를 퇴폐적인 류행가라고 하면서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다보니 한때 계몽기가요들이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도외시되고 빛을 잃게 되었다.

계몽기가요를 무시하는 편협한 태도는 자기 민족이 창조한 문화유산을 허무적으로 대하는 주체성과 민족성이 없는 표현이다.

또 다른 편향은 한때 일부 사람들이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나온 노래들가운데서 계몽기가요는 인정하지 않고 항일혁명가요만 인정해야 한다고 한데서 나타났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 이 문제를 보고드리었는데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계몽기가요를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항일혁명가요는 우리 나라 음악사에서 혁명적 문화예술, 주체음악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은 력사적뿌리라고 말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나온 혁명가요들만 당시의 우리 나라 노래라고 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우리 나라 노래가 얼마 나오지 못한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사실 해방전에 항일혁명가요와 함께 계몽기가요들이 많이 나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계몽기가요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계몽기가요가 가지는 계몽적의의와 유산적가치, 진보성에 대하여서도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시신바와 같

이 계몽기가요의 특징은 우리 조선사람들이 작사와 작곡을 한 노래, 조선민족의 가요이며 우리 인민들이 부르기에 쉬운 서정적이며 생활적인 노래라는 것이다.

해방전에 우리 나라의 량심적인 문예인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도 민족음악을 지키고 사람들을 반일사상으로 각성시키기 위하여 계몽기가요를 많이 창작하였다.

계몽기가요는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들의 눈물겨운 처지와 민족적울분을 반영한 노래이며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항거의 감정을 반영한 노래이다.

시대의 제약성으로 하여 오늘날의 노래와 같은 혁명적인 사상을 반영하지는 못하였지만 거기에는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슬픔, 울분의 감정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계몽기가요의 특징으로부터 계몽기가요의 계몽적의의와 유산적가치, 진보성이 흘러나온다.

계몽기가요의 계몽적의의, 유산적가치, 진보성은 첫째로, 계몽기가요가 가사내용에서 당대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념원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반일의를 높이는데 일정하게 기여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향의 봄》, 《고향하늘》, 《필레꽃》, 《타향살이》, 《황성옛터》와 같은 계몽기가요들은 당대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빼앗긴 조국과 떠난 고향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데 이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속에는 나라를 강탈하고 짓밟은 침략자들에 대한 원한과 항거의 감정도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

계몽기가요에는 《조선타령》, 《조선팔경가》, 《조선찬가》와 같이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경계나 명승고적과 결부시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들도 있는데 일제침략자들이 《내선일체》니 《동조동근》이니 하면서 우리 민족자체를 없애려고 미쳐날뛰던 때에 삼천리강산을 궁지높이 자랑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데 기여하였다.

계몽기가요에는 《봉선화》, 《눈물젖은 두만강》과 같이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과 함께 조국해방의 념원을 절절하게 표현한 작품들도 있다. 조국해방에 대한 념원은 일제를 쳐부시고 도란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위인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당대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그밖에 《그리운 강산》, 《반달》과 같은 동요들도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상을 그리는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통하여 해방의 날을 학수고대하는 인민들의 심정을 정서깊이 노래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이 노래들은 어린이들뿐아니라 어른들속에서도 많이 불리웠다.

《감격시대》와 《락화류수》는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로 반드시 도래할 조국해방에 대한 확신이 넘쳐흐르던 시대상을 생동하게 반영한 노래들이다.

계몽기가요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에서 커다란힘을 얻고 밝은 앞날을 확인하는 량만적인 노래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계몽기가요에는 일제를 쳐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코야말리라든 굳센 의지를 그대로 표현한 노래도 있다. 《압록강의 노래》는 주체 8(1919)년 3.1인민봉기이후 피눈물을 삼키며 조국땅을 떠나가면서 기어이 나라를 찾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독립투사의 심정을 담은 노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가로서의 자신의 인생은 이 노래와 함께 시작되었다는데 대하여 여러번 말씀하시였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압록강의 노래》를 혁명가요로 생각하여왔고 일부 책들에서 이 노래를 혁명가요로 취급하여온데는 그런 뜻깊은 사연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계몽기가요이다.

이처럼 계몽기가요는 가사에서 식민지노예살이에 대한 울분과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그리워하는 당대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담겨져있으며 애국적이며 계몽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바로 여기에 계몽기가요가 가지는 계몽적의의와 진보성의 하나가 있다.

계몽기가요가 가지는 계몽적의의와 유산적가치, 진보성은 둘째로 음악형식에서 전통적인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가요음악의 종류와 형식을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나라 가요예술을 한계단 발전시키는데도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계몽기가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 가요예술은 여러가지 종류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것이 1920년대 이후 사회력사적현실과 현대적발전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미학적요구를 반영하여 이 시기 새로 자라난 작곡가들속에서 다양한 가요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창작활동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여러가지 가요종류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속에는 동요도 있으며 예술가요도있고 신민요와 일명 《류행가》라고 불리운 대중가요도 있다.

계몽기가요의 매개 종류들은 자기에게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총체적으로는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밀접히 결부한 민족가요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있다. 특히 계몽기가요들은 조선민요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인류음악이 달성한 우수한 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민족성과 현대성이 잘 결합된 선물형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대중가요, 신민요를 비롯한 계몽기가요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널리 류행될수 있는 요인의 하나였다.

가요음악의 새로운 종류를 개척하는데서 이룩한 이러한 성과로 하여 계몽기가요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나라 가요예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을뿐아니라 해방후 가요음악의 다양한 발전을 가져올수 있게 한 밑천으로 되었다. 바로 여기에 계몽기가요가 가지는 유산적가치와 진보성의 한 측면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계몽기가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지난 시기 일부 사람들이 계몽기가요의 진보적 측면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유행가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부르지 못하게 한것은 아주 잘못된것이다. 유행가란 나쁜 말이 아니며 그 어떤 가요종류를 가리키는 용어도 아니다. 유행가란 말그대로 사람들속에 유행되어 불리우는 노래를 가리키는 말이다.

해당 시기 인민들속에서 유행되면서 널리 불리워지면 유행가이지 유행가라는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유행가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게 된것은 당시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외곡, 모독하는 퇴폐적인 노래들이 나와 일제의 비호밑에 《유행가》라는 이름으로 범람하였기때문이다. 이런 퇴폐적인 유행가와 그 시기에 유행가라고도 불리워왔던 계몽기가요는 엄격히 갈라보아야 한다.

계몽기가요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특수한 사회적환경속에서 나온 음악인것만큼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인민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것을 비롯하여 당시 우리 민족앞에 절박하게 나섰던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한것이며 음악적으로 양상이 다양하지 못하고 서정적인데 많이 치우치거나 슬픈 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이다.

계몽기가요의 이러한 제한성은 창작가들의 세계관적미숙성과도 관련되지만 진보적가요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그들이 자기의 창작의도를 자유롭게 터놓을수 없었던 사정과도 크게 관련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처럼 계몽기가요의 특징과 진보성뿐아니라 제한성까지 구체적으로 해명해주신데 기초하여 계몽기가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음악유산으로 된다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해명에 의하여 일제의 비호밑에 범람했던 퇴폐적인 유행가와 그 시기에 유행가라고도 불리워왔던 계몽기가요사이의 본질적계선이 명백히 그어지고 계몽기가요를 유행가라고 하면서 부르지 못하게 하던 허황한 꾀변의 부당성이 여지없이 폭로되게 되었다. 만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몽기가요를 인정하고 부르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 력사의 이끼속에 묻혀버리고말았을것이며 우리 나라 음악사에서 1920년대~1930년대 음악을 잃어버리게 되고 특히 계몽기가요가 많이 확대보급된 《카프》 시기부터 해방전까지의 사이에 공백이 생길번 하였다.

비범한 사색과 탐구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끝

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계몽기가요에 대한 리해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고 계몽기가요를 다시 찾은것은 우리 나라 문예사에서 하나의 큰 사변이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리고 력사주의 원칙에서 민족음악유산을 계승하는데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우리 나라 음악발전에서 곡절 많았던 계몽기가요의 운명을 건져주시고 선군시대 조국과 민족의 재보로 내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선군문학예술평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다음으로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계몽기가요의 보급선전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간직하고 이사업을 더욱 활력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명시한 고귀한 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우선 계몽기가요의 보급사업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그것은 첫째로, 계몽기가요보급사업이 우리 나라 문학예술사를 더욱 풍부히하고 빛내일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유산을 옹계 계승하면 력사가 빛나지만 유산을 옹계 계승하지 못하면 력사에 공백이 생기고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몽기가요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옹계 계승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해방전에 창작된 항일혁명가요와 함께 계몽기가요들에 이어 해방직후에 창작된 가요들이 쏙련결되므로 우리 나라 음악사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고 음악사가 자기의 품격을 원만히 갖추게 되었다.

공백이 생긴 력사를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없다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이다. 특히 계몽기가요는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성격이 강한 노래들로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나라 가요예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것을 실지로 보여줌으로써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계몽기가요보급사업이 가지는 의의는 둘째로,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을 풍부히 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준데 있다.

노래는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정서가 풍부해질수록 노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마련이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이러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인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즐겨부를수 있는 여러가지 노래도

있고 춤도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문화정서생활에는 혁명적인 노래, 전투적인 노래도 있어야 하지만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노래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서결핍증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다른 나라의 노래를 망탕 부르거나 출처가 불명한 곡조에 제멋대로 지은 가사를 붙여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제창하는 《세계화》바람에 말려드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세계화》바람에 말려들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고 모든것을 다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문화정서생활에서도 애국의 넘과 향취가 어린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세계를 향하여 당당히 나가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사람들이 새로 창작되거나 재형상된 생활적인 노래들과 함께 계몽기가요를 널리 부르게 하면 그들의 문화정서생활도 보다 다양해지고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퇴폐적인 노래들도 막을수 있다. 계몽기가요는 가사가 서정적이고 생활적이며 선율이 통속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부를수 있다.

우리 청년들은 계몽기가요를 부르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수난속에 살던 우리 인민의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것이다. 그리고 노래를 하나 불라도 우리의것을 즐겨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 장단에 맞추어 추면서 활기에 넘쳐 락천적인 생활도 하게 될것이다. 계몽기가요보급이 가지는 의의는 셋째로, 이 사업이 조선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좋은 작용을 한다는데 있다.

계몽기가요는 우리 민족이 분열되지 않았던 해방전에 전민족적인 노래로 창작보급된 노래이다. 그러므로 계몽기가요는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살건 공통적으로 즐겨부르고 사랑해온 노래들이다.

민족의 넘과 향취가 짙은 계몽기가요는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며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과 풍습을 귀중히 여기는 북과 남, 해외에 사는 모든 조선사람들의 일치한 감정에 부합된다.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성을 지켜나간다면 엉켰던 오해도 풀리게 되고 끊어졌던 혈맥도 다시 이을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몽기가요를 옹계 평가하고 널리 부르도록 한것이 남조선인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것은 실지 있는 사실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남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남조선의 민족음악가들이 평양에 온적이 있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유럽식 양악만 하면서 민족악기는 다 집어던지였다는 거짓선전을 듣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시 평양음악대학도 참관시키고 대학에서 준비한 민족음악발표회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개량한 민족악기와 함께 통소, 거문고, 아쟁과 같은 고악기들도 연주하고 옛날 곡과 현대적인 곡들도 다 연주하는것을 보고 민족음악을 배우려면 여기에 와야겠다고 하면서 북조선의 민족음악은 자기네보다 몇십년 앞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고 한다.

계몽기가요와 관련하여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시기 계몽기가요와 관련한 일련의 편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계몽기가요를 음악사에서 널리 취급하도록 하고 해방전 시기를 반영한 영화들에서도 많이 쓰도록 하시였다. 다부작에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만들 때에도 장면에 맞게 계몽기가요를 많이 리용하도록 하시였는데 《카프》작가편에는 계몽기가요 창작가의 한사람인 홍란파에 대하여서와 그가 작곡한 《봉선화》도 취급하도록 하시였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한때 우리가 항일혁명문학예술외에 다른것은 인정하지 않는것처럼 외곡선전하여왔다. 지어 그들은 해방후 북조선에 들어와 활동한 조령출, 한명천, 리면상을 비롯한 계몽기가요창작가들에게 당치 않은 딱지를 붙여 그들이 쓴 계몽기가요들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달아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던것이 《북조선바로알기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우리가 계몽기가요를 음악사에서 널리 취급하고 영화에도 많이 넣은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찾아와 한명천을 비롯한 계몽기가요창작가들을 추모하고 그 가족들에게 원고료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계몽기가요가 북과 남, 해외에 사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사상과 정견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 위업실현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서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계몽기가요의 보급선전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계몽기가요에 대한 보급선전을 잘하자면 먼저 계몽기가요들을 발굴고증하고 정리하는 사업부터 잘하여야 한다.

계몽기가요를 발굴고증하는 사업은 계몽기가요에 대한 보급선전에서 첫 공정으로 된다.

지난날 계몽기가요를 발굴정리하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인민들속에 파묻혀있는 계몽기가요들이 적지 않은 실정에서 이런것들을 다 발굴정리하여 우리 민족음악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

계몽기가요를 발굴정리하는데서는 계몽기가요와 계몽기가요를 옹계 구분하여야 한다.

계몽가요와 계몽기가요는 창작보급된 시대적배경과 사상주제적내용이 서로 다르다.

계몽가요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기간에 벌어졌던 애국문화운동의 영향밑에 나온

노래들로서 당시에는 창가라고 하였던것을 후에 문예학자들이 계몽이라는 말을 덧붙여 계몽창가 또는 계몽가요라고 한것이다. 계몽가요는 《학도가》, 《문맹퇴치가》, 《금주가》와 같이 문화계몽적인 성격을 띠는 노래들이 기본을 이루었다. 그러나 계몽기가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나온 노래들로서 계몽가요에 비하여 반일계몽적성격이 강한 노래들이 주류를 이루고있었다. 그러므로 계몽가요와 계몽기가요를 혼탕시키지 말고 똑바로 구분하여야 한다.

계몽기가요를 발굴정리하는데서 진보적인것과 반동적인것을 옳게 갈라보아야 한다.

계몽기가요는 총체적으로는 진보적인 음악유산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일제의 군국주의 야망실현에 리용된 친일반동적인 노래들도 있으며 비애와 한탄이 지나치게 강조된 노래들도 있다. 이런 노래들은 사람들에게 민족의 넋을 흐리게 하고 염세와 절망, 타락과 허무감을 줄수 있으므로 절대로 부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몽기가요와 해방후에 남조선에서 창작된 노래들도 옳게 갈라보아야 한다. 해방후 남조선에서는 계몽기가요와 비슷한 류의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어 퍼졌는데 이런 노래들을 계몽기가요로 잘못 알고 부르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몽기가요종류들의 이름을 잘 고증하여 쓰도록 하며 당시의 시대상에 맞게 해방전에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살려 쓰도록 하여야 한다.

계몽기가요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소개선전하는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

계몽기가요에 대한 글을 쓰는데서는 해당한 가요의 주제사상적, 음악형상적특징, 구체적인 창작경위와 일제의 탄압책동에 대하여서와 계몽기가요와 민족음악과의 호상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주제적립장과 역사주의적원칙을 잘 지켜 당대 사회력사적조건과의 련관속에서 그 진보성과 음악사적의의, 제한성을 옳게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계몽기가요의 창작보급에 기여한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평가하고 그들의 창작활동에 대하여 후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서 살다가 사망한 계몽기가요창작가들의 해방전 창작활동과 작품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계몽기가요가운데서 좋은 노래들을 골라서 재형상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계몽기가요를 텔레비존방송과 소리방송으로도 내보내야 한다.

계몽기가요를 텔레비존방송과 소리방송으로 내보낼 때는 노래와 관련한 설명을 주어 사람들이 계몽기가요에 대한 리해도 보다 깊이하고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우리 민족의 수난의 력사와 우리나라 음악발전의 우여곡절에 대해서 잘 알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의 마감부분에서 발

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반영한 노래들을 많이 창작보급하는것과 함께 지난 시기에 나온 좋은 노래들도 재형상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잘해나감으로써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즐겨부르면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도록 하여야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 의하여 계몽기가요의 진정한 면모가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으며 잃을 번 하였던 음악사의 한 부분을 찾게 되고 귀중한 민족음악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재정립하게 된것은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음악사적사변으로 된다.

이 업적에 의하여 우리 당의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상리론은 더욱 풍부화되고 사회주의음악과 함께 민족음악유산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더욱 풍만하게 꽃피워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되었으며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사상정서적무기로 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계몽기가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력사를 옳바로 인식하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데서도 좋은 작용을 한다. 계몽기가요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력사적사실과 당대 인민들의 감정정서를 생동하게 담고있다. 이것은 사람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지난날 나라를 빼앗긴 망국도의 설음이 어떤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며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이 얼마나 값높은것인가를 반증하는 동시에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수호의 멸적의 의지를 가다듬게 하고있다. 또한 일제가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재침의 칼을 버리는 한편 제놈들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의 력사를 미화분식하기 위하여 력사의곡위조행위에 매달리고있는 조건에서 력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교훈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면에서도 계몽기가요가 겪은 수난의 력사는 참으로 귀중하다. 그리고 일제의 가혹한 민족문화말살책동속에서도 민족의 슬기와 재능의 고귀한 결실인 우수한 민족음악유산을 창조한 사실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총명하고 문명하며 우수한 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이 고전적로작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민족의 우수성이 빛난다는 철리를 다시금 절감하게 한다.

자기 민족의 좋은것을 알고 그것을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이 우리 민족을 제일 사랑하며 민족애를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장군님의 민족관이며 좌우명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에는 민족이 이룩해놓은 자그마한 문화유산도 더없이 소중히 여기시며 후손만대에길이 빛내여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열렬한 민족애가 뜨겁게 어려있다.

참으로 로작은 우리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에

게 우리의것, 우리 민족의것을 어떻게 보고 대하며 또 새 세대들에게 어떻게 넘겨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민족의 뉘를 지켜 몸부림치던 선각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가를 명백히 밝혀준 민족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가 력히 맥박치는 불멸의 력사적문헌이다.

우리들은 로작의 자자구구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의 세계, 천재적인 예지에서 빛발치는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계몽

기가요에 대한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량만, 민족적정서가 더욱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명작창작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서야 할것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전재훈

보이는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사는 공업도시 함흥
우리의 가슴가슴에
시원하게 흘러드는 맑은 공기도
아버이수령님 주신것입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조업을 갓 시작한 비날론공장에서
비날론이 폭포칠 때
수령님 오신다는 소식에
밤새도록 꽃다발 엮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해빛도 눈부신 그 아침
방사직장앞 구내길에서
연도환영을 하던 우리 가슴에
공장일군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시는
겸허하신 우리 아버지
수령님을 우러러 꽃다발을 흔들며
목청껏 터친 우리의 만세소리에도
울음이 절반 섞였었습니다

언젠가는 흥남을 찾으시여
맑은 공기 흐리게 할수 있는
비료공장 공정도 바로잡아주시고
우리 비날론공장에 오셨을 때는
섬유직장 건조로의 먼지도
말끔히 없애도록 대책도 세워주신 수령님

걱정의 파도가 일던 그날이

처음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직은 이른봄날
날씨는 쌀쌀한데
아버이수령님 왜 승용차의 차창을
열어젖히고 오셨는지

놀라워하는 그 표정을
헤아려보신듯
나는 함흥에 올 때마다
공기를 가슴해보느라고
승용차창문을 열어놓고 다닌다는
수령님 그 말씀 들으며
눈곱에 뜨거운것을 담은것은

아 수령님
우리 마시는 공기는 가벼워도
사랑의 무게는 끝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쏟아지는 제품을 보시기 전에
사람들의 건강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삶의 노래

김선화

부르고부르다 못다 부르면
대를 이어서라도 부르고부를 노래
살아서 살아서 못다 부르면

죽어서도 가슴에 안고 갈 노래
아, 어머니품에 안긴 전사의 노래
영원한 영원한 삶의 노래여!

아버지는 전사였습니다

이 딸에게
손을 맡기고
지친 몸 의지하는
병상의 아버지는
어찌 보면 아기같았습니다

허나 아버지는 결코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정을 떠나
자기결에서만 땀돈다며
간병하는 이 딸을 책망할 땐

아버지는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곧바로 가야 할 보답의 한길에서
자식들 한결음이라도 헛디딜가보아
마음 못 놓고 속태울 땐

아버지는 전사였습니다
한생 다하지 못한
전사—시인의 사명을 두고
용서하시라, 용서하시라
전화의 날 돌격의 참호에서처럼
조국과 말을 나누며 피로워할 땐

아버지는 시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목메여 어머니를 불러 찾던
그때 그날처럼
심혼을 다하여 사색을 가다듬을 땐

아버지는 한생을 바쳐
피도 숨결도 같이한
우리 당의 참된 전사—시인이었습니다

아, 이 세상 오직 한분
위대하신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앞에선
아버지는 그렇듯 순진한 아기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에서 삶으로 돌려세운
태양의 빛발이여
위대한 은인의 존함
아, 김정일, 김정일!
그이 보내주신 친필이여

—병을 빨리 고치여
보람찬 우리 시대를
더욱 빛내여갑시다

구절구절 사랑이 흘러넘치는
장군님의 친필서한 우러르며
한없는 고마움에 젖는 그 눈빛은
엄마를 울려다보는
아기의 순결한 그것

간밤에 또 계신
장군님의 다심하신 말씀 전해들으며
걱정에 들먹이는 얼굴, 떨리는 입술은
어쩌면 엄마의 젖품을 파고드는
아기의 무아경

생명의 은인이시고
영원한 보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 영상 우리를 땐
그 품에 안겨들 땐
아버지는 이 세상 다시 없는
가장 순결한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사였습니다

락엽

락엽을
추풍에 흩날려 떨어지는
락엽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주름깊은 눈가에
사랑이 자글자글합니다

노란 은행잎사귀 하나
소중히 손바닥에 받아안고
마른 입술 추기며
속삭이는 목소리

들릴듯말듯
정 넘치는 속삭임
보담의 먼길을 이어가야 할

이 딸에게 하는 당부인듯
가슴에 찌릿이 흘러듭니다

—안되지, 키워준 은혜 잊으면 안되지
떨어져도
명이 다해 떨어져도
어머니대지에
한줌 거름이 되어야지...

《명약투약시간》

아들아
사진속의 나의 아들이
너 왜 말없느냐
초소로 떠나던 그 아침처럼
거수경례 씩씩하게 드리렴

—할아버지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병상에서 벌떡 일어서며
힘차게 대답하실거야
손들어 답례도 보내실거야

—고맙소, 병사
로병근위상위 결사전을 하고있소

얼마나 안아보고싶어하는
군복입은 손자인지 아느냐 아들이
반듯한 목깃우에 빨간령장
눌러쓴 군모우에 반짝이는 오각별
팽팽한 군복가슴에 꺼안은 총

—병사, 힘들지 않아?
왜 힘들지 않겠느냐?
극복, 극복해야 돼
병사가 되는 길은 험치 않아
하지만 그 영예, 그 긍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거야, 아무렴

얼마나 자랑하고싶어하는
병사손자인지 아느냐
너 비록

대학생, 중학생 다른 손자들처럼
할아버지 병상에 찾아오지 못해도
할아버진 매일 아침 너의 사진 바라보며
병사, 너와 화선식담화를 나누신단다

—병사, 걱정말어
백발이 날린다고 허술히 보지 말아
나는 제대를 모르는 영원한 병사시인이야
병사는 병상에서 절대로 죽지 않아
병사는 전장에서만 죽을수 있는거야

아, 그러면
저기 저 동트는 언덕
최고사령관기 펄럭이는 최전연고지에서
가슴속에 또랑또랑 메아리쳐오는
병사의 목소리

—할아버지
아니 로병근위상위동지!
빨리병을 고치고 초소에서 만나자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그래 그래!
복무함!
복무함!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아들아 알아다오
초소의 병사여 알아다오
로병과 병사의 화선식담화시간
이것 또한 더없이 즐거운
할아버지의 《명약투약시간》 이란다

시인의 심장은...

누가 말했습니까
사람의 심장은
바로
그 사람의 주먹만 하다고
그렇다면

시인의 심장
그것의 크기는 정녕
체소한 아버지의
저 주먹만 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인의 심장
그것은
사랑과 열정의 크나큰 불덩어리

끓어넘는 열정의 도가니입니다
아름이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에조차
못다 쓴 삶의 노래를 읊조리며
붉은 피를 펄펄 끓이는

정의의 불같이 뜨거워
만사람의 심장을 함께 불태웠고
불의엔 얼음같이 차디차
천만적을 서늘케 한 심장

시인의 심장이 어찌 작을수 있겠습니까
키워주고 살려주고 빛내여주신
어머니께 못다 바친 충정을 두고
저렇듯 모대기는 심장이
머지않아 밝아올 강성대국을 안아보며
환희와 격정에 고통치는 그 심장이

어찌 작을수 있겠습니까
멈추지 말라고
멈춰서지 말라고
긴긴밤을 지새우시며
소생의 불사약 안겨주고
사랑의 비행기를 띄워주시며
우리 장군님 지켜주신 시인의 그 심장이

아, 장군님 주신 심장
시인의 심장
어찌 준엄한 날에
비발치는 총탄속인들 주저하겠습니까
사랑을, 조국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쿵—쿵—
시인의 심장은
장군님전사의 심장은 오늘도
박동도 높이
격정도 높이
태양의 노래를 부르고있습니다
영원히 멈출수 없다고 웨칩니다

아버지의 모습

염득복

내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져
손자손녀를 거느린 할머니가 되였건만
마음은 변함없이 어린시절로 흘러간다
내 고고성 터뜨릴 때
아버지는 총을 메고 전선으로 떠나셨지

사진으로만 익힌 아버지모습
아버지있는 애들이 부러울 때면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달려
아버지가 어디 갔느냐고
철없이 조르던 일이 어제만 같아

그때는 몰랐다
동구밖에서 시어
어머니 오래도록 바라본 곳
아버지 달려간 전선 저 멀리인줄

엄마란 말이 나에게
아버지란 말도 대신하는 부름이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손에 쥐여진
그 무엇을 어렵קות이 기억한다

추억의 쪽문을 열고

아득히 흘러간 세월을 더듬어보니
아 그것은 바로
군복입은 나의 아버지 사진이었다
보고싶은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추억을 거슬러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고
다만 아버지가 지켰다는
불타는 고지만이 눈앞에 안겨왔거니

아버지,
불러도 대답없는 아버지
아버지를 찾는 딸의 간절한 마음
세월의 언덕넘어
오늘에도 왔거니

아버지는
이 딸의 래일을 위해
내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한치의 조국땅을 목숨바쳐 지켰거니
아버지를 그려보는 이 딸의 마음속엔
아버지란 부름과 함께
크나큰 조국이 숨쉬고있어라

백두산찬가

리명

붓을 들기 앞서

백두산에 대한 글을 쓰고싶은 마음은 언제나 꿈같은 소원이었지만 선뜻 붓을 들게 되지 않았다.

옛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탐승과 등산, 탐험과 기행, 답사들을 통하여 훌륭한 글들을 남겼는가.

그러나 나는 지난해 백두산을 또다시 답사하고는 직접 체험한 백두산에 대한 소감을 내판의 목소리로 높으나 낮으나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우리 나라의 강토를 한지맥으로 거느린 동방의 대산, 백두산을 《불함산》, 《개마대산》, 《도래산》, 《태백산》, 《장백산》, 《백산》 등으로 부르며 이 나라의 조종의 산, 우리 민족국가의 발상지로 널리 자랑하여왔다.

18세기에 활동한 박종의 《백두산기행》, 서명응의 《백두산유람기》, 홍량호의 《백두산고》, 성해응의 《동국명산기》 등 중세문헌기록들과 주체 20(1931)년에 쓴 안재홍의 《백두산등보기》 들에는 한결같이 백두산의 웅자와 신비, 우주를 품에 안은듯 한 천지의 호탕한 경개와 이나라 지맥을 거머쥔 그 위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른바 만리창공을 떠이고 솟은 웅대하고 절묘한 대자연의 정수, 거악거봉과 세계적인 명산으로서의 제찬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백두산은 불세출의 위인들을 모신 혁명의 성산으로, 태양조선의 새 아침이 밝아온 천하제일명산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개척하신 《백두산답사행군대》의 로정을 따라 학창시절에 여러번 백두산을 밟았었다.

그때 보고 듣고 느낀 인상들이 흰 종이장같은 나의 뇌리에 얼마나 선명하게 찍혔던지 지금도 뜬금으로 속속히 기억하고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백두산은 자기가 품고있던 력사의 자취와 고귀한 흔적들을 더더욱 풍부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백두산에 대한 그리움이 날과 더불어 덧쌓여져만 갔다.

그러던 나에게 또다시 백두산답사의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백두대지를 밟으며

1.대지에 쓴 《서사시》

하늘이 들리고 바람은 맑고 낱알 익는 냄새가 풍기는 계절이다.

답사빠스는 오후녘에야 대흥단군에 들어섰다. 우리는 백두산답사로정을 혜산쪽으로가 아니라 무산방향으로 정했다. 무산을 경과하게 되면 백두산일대의 첫 관문인 대흥단삼천리별과 그곳에 새로 건립한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참관할 수 있었다.

대흥단읍거리는 비교적 깊숙하면서도 아늑한 골짜기에 전개되어있었다. 골바닥가운데로는 웅벽을 알뜰히 쌓은 골개수가 흐르고 그 량옆바닥과 산턱들에 문화적인 살림집들이 들어섰다.

대흥단읍거리를 지나 더기에 올라서니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대형궁형식온실로 된 《감자연구소》였다. 그와 조금 떨어져 아담한 기와집들이 줄지어선 농촌살림집들이 보여왔다.

여기서부터 백두삼천리별이 삼지연방향인 서북쪽으로 펼쳐졌다. 별가운데로 끝없이 곧게 뻗은 석비례도로, 길랴옆으로 눈이 모자라게 드리누운 대평원, 그 광대무변한 대지를 이갈나무들이 바둑판처럼 짙게 갈라 포전을 형성하였다. 하늘을 찌를듯 미출하게 곧추 솟은 이갈나무들은 포전의 경계일뿐만아니라 바람막이방풍림이었다.

문득 이곳 사람들은 대지를 밟아 일욕심이며 통이며 성미들이 큼직큼직하리라는 생각이든다.

대규모의 포전들에는 시누런 밀이삭이 해기우는 바람결에 고요히 물결치었다. 키는 작으나 굵은 대들에 밀이삭들이 무겁게 드리워져 땅이 꺼질듯싶다. 어떤 포전들에는 밀수확기들이 가동하는것이 눈에 띄었다.

밀포전을 지나니 이번에는 이파리와 줄기들이 누렇게 고삭아버린 감자포전이 나졌다. 나는 좀 아연해졌다.

이 고장은 10월 초순이면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상기도 감자를 수확하지 않다니?...

하지만 그런 걱정따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쑥 프락프르가 나타나 통랑거리며 감자수확기를 끌고 다녔다. 감자수확기에서는 아이들의 머리통같은 감자알들이 데굴데굴 쏟아져내렸다. 분장일군

인듯 한 중년이 포전머리에서 수확고를 관정하느라 평뜨기를 하고있었다. 우리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우리들중 누군가가 중년한테 올해감자작황을 물었다.

중년은 제일에만 움하면서 우리쪽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분장 올평균실적은 지난해보다 좀 넘을것 같수다.》

《?!...》

우리는 한결같이 펄쩍 놀랐다.

《종자부터 혁명했수다. 그다음은 이른 봄철 싹틔우기와 통감자알심기, 물거름도 많이 내고 비배관리도 과학농법대로 해야 합니다.》

다수확비결을 알려주는 중년의 목청은 자못 거쉬였으나 차근차근 친절하게 들렸다. 투박하면서도 인정미가 넘치는 북관사람들의 성미 그대로였다.

나한테는 하나의 의문이 그냥 지워지지 않고있었다. 저 까마득하게 펼쳐진 감자포전을 언제 다수확하랴 하는 의혹이었다. 짐작하건대 트랙터로 수확기 100대가 동원된다 해도 어림없을것 같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레 비치자 중년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 무연한 벌을 바라보며 비주름히 웃었다.

《여긴 애기포전이지요. 엄지포전은 저 야산너머에 있수다. 여기 백두고원지대는 이맘때가 밀도그래 감자도 그래 수확철이지요. 지금 분장기계력량이 엄지포전감자수확에 달라붙었으니 한 열흘와딱닥 제끼면 거기고 여기고 넉근하웨다.》

《!》

얼마나 배심이 든든한가. 이 일망무제한 벌을 애기손바닥만치나 여기는 이곳 사람들의 담도 담이지만 통머리 큰 일본새며 대군단을 이루었을 기계화장비수준이 료량된다. 벌도 풍성하고 사람들 배포 또한 넉넉하여 마음이 흥그러워진다.

불쑥 눈길이 미치는 저멀리 산등성이마다 흰눈에 덮인듯 하얗다. 방목을 하고있는 염소떼들이다. 그뒤 나무숲사이에는 덩실한 감자가공공장 푸른 지붕이 언뜻거린다.

조국의 고산지대, 바람 세차 날새들도 깃을 접지 못하고 그 옛날 눈물에 젖은 화전뽕기들이 기운 누데기처럼 얼룩져있던 불모의 땅이 한여름이면 감자꽃바다를 수놓은 자랑높은 선군8경의 한 모습으로, 풍요한 옥토로 전변되었다.

중년은 잠시 일손을 놓고 감심에 젖은 우리들을 둘러보며 감개무량한 어조로 다시 이었다.

《이 백두벌에 깃든 사연을 말하자면 저 사례긴 이랑처럼 끝이 없수다. ...

어느해 우리 장군님께서 생신날을 맞으시던 무렵이었지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글썽 장군님께서 소문도 없이 또 오시지 않았겠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감자혁명을 일으키시려 선군장정의 그 바쁘신 나날속에서도 이 고장을 자주 찾으시여 감자우량증자문제며 채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며 현대적인 감자가공기지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수다.

북방의 성깔사나운 모진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오신 장군님께서 아침진지도 건느시고 곧장 감자가공공장부터 찾으셨수다. 한해전 대소한 강추위속에서 흰눈우에 손수 공장구획도를 그어주시고 나라의 수만금을 들여 새로 꾸려주신 공장이었지요.

그이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며 아주 멋쟁이라고 만족해하시고는 찬물속으로 줄줄이 내리는 국수발을 보시며 국수가 뽕수욕을 잘한다고 호탕하게 웃기도 하시고 몸소 뽕동고에까지 들어가시여서는 우리민인이 먹을것이 가득차있는 이런 뽕장고라면 며칠을 들어가있어도 춥지 않겠다고 즐거워하셨지요. 그리고 쉬임없이 쏟아지는 하얀 분탕이며 감자물엿이며 독특한 맛과 향기를 풍기는 특산물제품들이 흘러나오는 그앞에서는 감동을 금치 못하시여...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동무들은 오늘 나한테 제일 큰 생일상을 차려주었소, 난 아직 이보다 더 푸짐하고 기쁜 생일상을 받은적이 없소, 고맙소, 동무들... 라고 말씀하시며 일군들의 손을 짹 잡고 농으실줄을 몰랐지요. 그러시는 그이의 눈곱에는 뜨거운 물기가 어리시었수다. 인민의 기쁨을 곧 생일로 여기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은 목이 짹 메여 그만...》

그날 장군님께서 오래도록 대홍단벌을 내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바로 이런 인민의 기쁨, 인민의 세상을 세우시려 설한풍 휘몰아치는 백두대지에 충성을 올리고 붉은 피를 뿌리신 백두산위인들의 고귀한 생애가 더듬어지시었다.

일찌기 이 백두고원을 개척할 크나큰 구상을 품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의 그 나날에도 이 대지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었다.

어느해에는 이곳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께서 식량으로 가지고있던 밀주머니를 이고장 사람들에게 안겨주며 이 땅에 감자와 함께 밀도 심어 쌀밥을 먹어보라고 밀농사법을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었다.

조국의 운명이 관가름되던 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첫 개밭자들을 여기에 보내시고 새로 서는 국영농장 이름을 5호농장이라 부르자고 하시지 않았던가!

우리는 얼마후 대홍단벌에 솟은 《무산지구전투 승리기념탑》을 찾았다.

총대로 형상한 탑에는 항일전장의 불길속을 종횡무진 누비며 전투지휘를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모습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

머님의 모습이 승엄히 모셔져있었다.

나는 거창한 총대탑아래 끝간데없이 펼쳐진 대
홍단삼천리벌을 새삼스레 둘러보았다. 그러자 총
대탑신이 움썹거리며 뭔가 이 백두대지에 쓰고있
는것 같았다.

총대탑아래로는 이깔나무방풍림에 싸인 감자포
전이 하나의 시행처럼 흘러가고 뒤미처 황금이삭
이 물결치는 밀이랑이 또한 하나의 시줄이 되어
이어지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장비한 감자와 밀가
공기지들, 갖가지 감자식료품들이 강물처럼 쏟아
지며 또 한줄, 구름처럼 흐르는 염소떼며 야산기
슥에 준비하게 일떠선 문화주택동네며 축복받은
홍단이네 집도 또 한줄... 이야말로 총대로 씌여
지는 강성부흥의 《서사시》가 아닌가! 아, 천만자
루의 붓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서사적화폭이 총대
로 씌여지는 복받은 대지! 수령님께서 총대로 찾
아준 이 땅, 장군님의 선군의 총대가 있어 인민의
행복이 봄꽃처럼 피어웃는 사회주의무릉도원이
다.

나는 선군의 총대우에서 만발하는 백두산아래
첫 동네를 그들먹한 감격에 젖어 바라보며 온 나
라에 동터온 강성대국의 려명을 바라보았다.

2. 삼지연의 물맛

차창밖으로 이깔나무숲과 봇나무숲이 서로 엇
바뀌어 스쳐지났다. 붓초리같이 아슬하게 보이는
서쪽길우에는 흰 구름송이들이 떠있다. 여러가지
구름모양새들가운데는 어디론가 훨훨 날을듯 한
《두루미》도 있었다. 그 《두루미》의 한쪽날개가
넋이 밟기해지더니 뒤컨으로 돌연 은금색의 화려
한 빛줄기가 뿜어져나왔다. 《두루미》는 그 찬란
한 후광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로 얼마간 까딱 움
직이지 않자 점점 화염같은 붉은 광채에 휩싸였
다. 서쪽 하늘은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어갔다. 태
양은 저물어가면서도 래일의 좋은 날씨를 가꾸었
다. 우리가 삼지연초입에 들어섰을 때에는 그 적
황색노을이 연보라빛으로 뒤바뀌는 무렵이었다.
빠스는 삼지연읍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약간 둔덕
진 곳에 잠시 머물렀다.

바람 한점 없는 저녁역광속에 잠긴 삼지연읍거
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경탄
을 자아내게 했다. 이미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그
변모에 대해 알고있었지만 제눈으로 직접 보니
놀라움과 충격이 더 컸다.

높고낮은 련봉들에 둘러싸여 가운데가 약간 경
사진 드넓은 접시모양의 안침진 곳에 자리잡은
도시는 한쪽의 아름다운 동화그림을 보는듯 선명
하고 황홀하기 이를데 없다.

크지 않은 산간도시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현
대풍의 다층건물과 소층건물들의 알맞춤한 배합

도 새롭지만 건물의 구조와형식, 양상들이 이루
다 꿈을수없이 각양각색이여서 눈맛이 있고 문화
정서적인 미와 조형미, 높은 예술성과 사색미로
정신적안정감을 주는것이 특징이다.

건물마다 직선미와 곡선미를 적절하게 주어 단
조롭지 않고 균제미가나며 건물들의 층고와 형태
들이 다양하여 립체감이 날뿐만아니라 중량감이
있는가 하면 경쾌하고 아기자기하고 화려하고 소
박하고 추운 지대의 특성에 맞게 든든하고 무게
있고 지붕물매들은 대체로 급하게 하였다. 특히
고깔모자를 쓴 모양의 집들이 고산지대의 류다른
정서와 풍치를 돋구었다.

추녀가 건듯 들린 조선식지붕, 처마가 땅에 닿
을듯 한 급경사지붕, 둥근 지붕, 삼각지붕, 평지붕,
계단식지붕, 탑식지붕... 여러 기하학적도형의 지
붕들에는 빨강고 파란 기와들이 씌워져 번쩍이고
건물벽들에는 갖가지 중간색들을 주어 읍거리전
체가 환하면서도 오붓하고 따뜻하다.

가로세로 시원스레 뻗은 아스팔트도로를 따라
어깨성을 쌓으며 계단식으로 줄줄이 일떠선 살림
집들,덩지 큰 문화회관과 학생소년궁전, 목욕탕에
물놀이장까지 갖춘 《천지원》과 체육관, 산경사
면에 비행기활주로와 같은 스키장, 가쁜한 이깔과
봇나무, 전나무들로 조성한 가로수들, 키낮은 세
가닥의 길등그런 수직가로등들...여기 건설에 참
가한 젊은이가 겨끔내기로 퍼붓는 물음에 대답을
하느라 진땀을 뻘다.

이곳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은 방도 전기로 덥
히고 밥도 전기로 하고 수도에서는 더운물, 찬물
이 흘러나오고 욕실과 위생실도 그뿐하다.아이들
과 로인방, 부부방이 따로 있다. 이 거리의 전기
화를 위해 대규모의 삼수발전소를 세웠다.

세계건축사는 한개 도시를 꾸리는데 세기를 두
고 내려움을 전하고있다. 그러나 이 삼지연읍거리
는 불과 수년사이에 일떠섰다. 나는 이 미증유의
창조력을 알고싶었다.

《그래 젊은이는 이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나?》

건설자젊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별썩 웃
었다.

《거야 우리 건설자들이 삼지연의 물맛을 알았
다고 할가요. ...》

《뭘, 삼지연의 물맛?!》

나는 젊은이의 왕창같은 대답에 놀라 어땡땡해
졌다. 그러나 그 말뜻을 더 음미할새 없었다. 또
다른 이채로운것이 눈길을 끌어서였다.

새로 지은 집주변들에 넓은나무들과 바늘잎
나무들이 엷썩여 솟아있다. 정원수처럼 운치롭게
집을 감싸고있다. 집을 짓느라 주변환경을 변경하
지 않았다. 오히려 나무와 언덕, 실개울과 바위들
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집형태를 꾸몄다. 마치도
수림과 집이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 자란듯 자연
과 사람들의 보급자리를 하나로 융합시켰다. 집앞

에 솟은 나무에는 새들의 둥지가 그냥 있다. 사람도 살고 나무도 살고 새들도 살고있다.

자연과 인간생활을 하나로 조화시킨 이 다정다감한 구도야말로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정서와 사랑과 아름다움, 맑고 신선한 대기를 주는 가장 이상적인 생태환경일뿐만아니라 교육환경이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순수한 자연환경속에서도 정화되고 정제된다. 하물며 이 고장의 나무 한그루, 한줄의 흙에도 항일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스며있음에야.

석양이 드리운 거리는 붉었다. 분주히 오가는 자동차들과 퇴근길로 봄비는 사람들, 문화회관고성기에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우렁찬 노래가 울려 퍼지고 저기 둔덕우에 번듯이 자리잡은 《백두관》으로 답사자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찾아들고있다. 이곳 《백두관》에는 조선혁명의 발원지인 백두산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형성한 축소사관들과 종합적인 해설강의를 받을수 있어 그를 통하여 백두산일대에 깃든 위대한 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와 업적을 집대성하여 학습할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수림속의 답사숙영소에 들었다. 모두들 저녁식사를 마치고는 5백여리길의 행군피로도 다 잊고 즐거운 오락을 펼쳤다. 숙영소의 따뜻한 전기온돌방은 노래와 춤판으로 들썩했다.

나역시 잠들지 못하고 밖에 나섰다. 희푸르스름한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널려 반짝인다. 거리는 가로등불빛과 집집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으로 대낮같다. 은하수의 별무리들이 내려온듯 도시는 불야성이다.

그 옛날 고역에 지친 《처서군》들의 함바집들에서 팔술불이 가물거리던 심심두메였다. 게다가 동토대나 다름없는 지대여서 기나긴 겨울이면 집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가서질줄을 몰랐다. 집울안에 장작가리를 집채만큼 쌓은것이 이 고장의 풍경이고 또 그래야만 한겨울의 혹한속에서 생명을 유지할수 있었다.

이 빙천설지의 땅, 나무도 땅도 바위도 얼어터지게 하는 폭풍을 파스한 봄날의 혼풍처럼 여기는 이 《열대》의 세계... 이는 꿈속에서도 상상할수 없는 인류의 리상촌이다. 분명 이 땅의 변모는 지각변동과도 같은 세기적인 사변이다.

나는 대흥단에서 광활한 대지에 총대로 쓴 강성부흥의 서사시를 읽었다면 여기서는 인간을 그 지없이 포근하고 다정다감하게 사랑하는 선군시대의 삶의 노래를 듣고있다. 나의 심장은 그 뜨거운 열원의 시원을 찾아 불타오른다.

(삼지연의 물맛?)

부지중 아까 건설자툼은이가 한 의미심장한 말이 떠오른다.

나는 송진내 풍기는 어두운 소로길을 지나 넓은 공간에 나섰다. 서늘한 기운에 머리가 거뜬해

진다. 추석을 열흘 앞둔 조각달이 잔잔하게 너울거리는 물결우에 떠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우러러 이밤도 태고연한 밀림속에서 출렁이는 삼지연못이다.

문득 옛글에서 삼지연을 두고전한 글귀가 뇌리를 스친다.

삼지연은 《백두경승3중심》의 하나로 격찬하였다. 멀리 백두산을 배경으로 수놓아진듯 한 맑고 고요한 풍치, 못가에서 목을 추기고는 하얀 모래불우에서 뛰노는 노루와 사슴떼들, 특히 새벽의 젖빛안개속에 잠겨있다가 술바람결에 서서히 드러나는 삼지연의 그 청초하고 그윽한 모습은 하늘선녀가 하얀 너울을 살그머니 벗고 자기의 미모를 드러내는 《속세간에 돌도 보기 어려운 조화의 신기한 기교》라고 일러왔다.

그러나 지금은 밤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을 관망할수 없다. 그리고 나는 삼지연의 어여쁜 미를 감상하고싶어 이 못을 찾은것이 아니다. 이 땅에 경이적인 현실을 안아온 삼지연의 말을 듣고싶다. 삼지연은 예나 지금이나 한모습으로 자기의 언어로 말하고있다. 세세년년을 두고 흐를수 없는 사연, 후손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

주체28(1939)년 5월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진군의 길에 여기에 들리시어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삼지연은 풍치도 좋고 물맛도 좋습니다.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합시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과 투사들은 이 물을 마시며 목메여 흐느끼었다. 그 사연을 전하는 군상이 삼지연못속에 세워져있다.

나도 학창시절 백두산답사길에서 이 물을 떠마셨다. ...

우리 수령님께서 좋다고 하신 물맛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울며 흐느끼시며 마신 물이다. 이 물에서 그리도 보고싶던 조국, 고국의 향수를 느꼈기때문에 물맛이 좋다고 했을가?... 아니다! 조국의 물 한모금, 흙 한줌, 나무 한그루를 빼에 사무치게 피처럼, 살처럼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 느낄수도 체험할수도 없는 물맛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은 그 물맛을 알수 있을까? ... 나는 감히 물을 떠마시지 못한다. 또 모를가봐. 아니, 필경 모르리라! 별안간 뜨거운 열풍이 스친다. 그러자 나는 이 땅을 작열하는 태양의 열정으로 품안고있는 거인적인 습결과 체온을 느낀다.

나의 심장은 금시에 터질듯 한 환희로 들뛰었다. 오! 이 땅을 변혁한 창조의 거룩한 열원은 바로 우리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처럼 이 삼지연의 물맛을 뜨겁게 체험한 위인만이,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심장만이 이룩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 건설자들도 이 삼지연물맛을 알았기에 언땅

에 첫삽을 박고 장군님의 구상을 실현해나갈수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 창조의 샘같은 삼지연물이 차오른다. 창조는 누가 하는가? 삼지연의 물맛을 알라. 이 세상 단맛, 쓴맛, 산해진미를 알기 전에 삼지연물맛부터 알라. 그때만이 거대한 그 무엇을 창조할수 있으리라!

고향집

백두산지구의 첫 답사로정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이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소백수골에 있다. 소백수골에서 서북방향으로 40리가량 되는 곳에는 백두산이 솟아있고 20리쯤 되는 지점에는 선오산, 동북방향으로 15리정도 떨어진 수림속에는 간백산이 있다.

아침을 일찍 치른 나는 남먼저 뺄스에 올랐다. 마치도 친어머니가 기다리는 고향집에 수십년만에 찾아가는듯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뺄스는 인츰 출발하였다. 고산지대의 가을날치고는 아침별도 곱고 바람도 잔잔하였다. 하늘도 알아주는듯 맑고 푸르다.

지금은 뺄스를 타고 답사하기때문에 날씨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그러나 내가 첫 답사를 할적만 해도 밤을 자고나면 날씨부터 알아보고 하였다. 수십수백리씩이나 서로 떨어져있는 답사지들과 참관지들을 도보로 행군하면서 찾아야 했기때문이었다. 그러다나니 때론 로상에서 뜻하지 않는 봉변을 당할 때가 있었다.

그때가 3월 초순이었다. 별방은 봄별이 한창 무르녹고있었으나 백두산지구의 수림과 길들은 온통 눈속에 묻혔었다. 우리는 빨찌산들처럼 눈을 헤쳐 행군하기도 하고 솟눈길은 설피를 신고 한발자국만 남기며 걸기도 하였다.

어느날 건창숙영지를 지나 청봉에 왔을 때는 날이 저물어 거기서 한밤을 쉬기로 하였다.

지휘부에서 숙영준비구령이 내리면 소대(소대단위로 행동하였다.)는 먼저 천막을 칠 자리부터 정한다. 숙영도 항일유격대식이었다.

우리 소대는 될수록 눈이 많이 쌓인 곳을 골라 눈을 치고 천막을 쳤다. 그런 곳에 천막을 치면 눈장벽이 바람을 막아주어 아주 아늑해서 좋았다. 천막을 친 다음에는 바닥에 마른나무잎을 깔아 잠자리를 될수록 땅바닥랭기가 미치지 않게 꼭신하게 한다. 그와 동시에 천막가운데 한립방정도의 통나무를 쌓는다. 그 통나무우에다 고깔불을 피워놓으면 통나무가 밤새껏 아래로 타내린다. 연기는 천막꼭대기의 구멍으로 곧추 빠져 내굴냄새도 모르고 한밤을 뜨뜻이 지낼수 있었다.

이 모든것을 날새게 해치운 우리 소대는 그날 밤 취침구령이 내리기 바쁘게 뚫아떨어졌다. 그날

따라 백여리나 행군하여 다들 지칠대로 지쳤던것이다.

그런데 그밤에 백두산눈보라가 터질줄이야.

나는 야밤에 무엇인가 뒤통수를 후려치는 타격에 눈을 번쩍 떴다. 천막이고 모포자락이고 동무들이고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몸뚱이는 눈구멍이에 빠져있었다. 나는 한참이나 신고질한 후에야 간신히 눈속에서 빠져나왔다. 숨도 채 돌리지 못하고있는데 한줄기의 돌개바람이 나를 휩 잡아비틀더니 어디론가 내동댕이쳤다. 나는 검불처럼 날려 또 눈무지속에 구겨박혔다.

《눈구멍이에서 나오지 말라!》

누군가의 웨침이었다. 실로 섬찍하고 무시무시한 폭풍이었다.

어디선가 우우 소리치는 눈보라는 천군만마의 발굽소리같은 굉음을 지르며 파도쳐 들려오더니 갑자기 맹호의 퇴성벽력같은 울부짖음으로 수림을 뒤흔들었다. 하늘땅을 메우는 뽀얀 눈보라속에서 아름답리강대목이 태를 치며 몸부림치다가 허리중등이가 와지끈 부러지면서 다른 나무들을 꺼안고 자빠졌다. 눈몽치들이 쏟아져내리고 하늘과 밀림이 부르르 떨며 천둥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밤의 목격을 통하여 천고의 수림을 뿌리채 뽑을듯 광란하는 눈보라, 아름답리거목이 허리부러져 휘뿌러지는 광경, 수만마리의 말발굽소리, 하늘을 조각조각 들부시는 서슬푸른 섬광, 울부짖는 맹호의 노성... 드세차고 사납고 장쾌하고 억세고 호호탕탕하고 위엄도도한 이 기세야말로 백두의 기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회억에 잠긴 사이 어느결에 뺄스는 백두산밀영구에 닿았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백두산밀영은 백두산일대의 수많은 위성밀영들의 중심적거점이었으며 조선혁명의 본거지였다.

밀영구의 길목에는 붉은 기폭의 대리석비가 화강석대돌우에 세워졌었다. 기폭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정중히 새겨져있었다.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조금해났다. 그러나 백두산밀영은 한참 더 가야 했다. 깊은 골로 한정없이 들어가는것 같았고 산세도 험하여 천힘의 요새다웠다. 아마 밀영이 서기 전에는 이 적막강산에 산짐승발자국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을것 같았다. 길옆으로 소백수가 흐르고 키낮은 버드나무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그 버드나무들은 휘늘어진것이 아니라 아지와 이파리들이 다 우로 치여들려 사뭇 소담하고 싱싱하였다.

잠시후 우리는 백두산밀영여귀에 세운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송시비앞에 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선뫼를 맞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친히 쓰신 송시는 한시와 풀이시를 나란히 하여 아아히 치솟은 정일봉을 배경으로 세워졌다. 후손만대를 두고 전할 금옥같은 송시의 구절구절들이

가슴에 뜨겁게 마쳐왔다.

여기서부터 유서깊은 백두산밀영이 시작되었다. 천나무, 종비나무, 이깔나무, 자작나무들로 꽉찬 수림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활동하신 사령부 귀틀집이 있고 그와 조금 떨어져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이 자리잡고있었다.

이깔나무와 삼송나무로 지은 자그마한 귀틀집, 통나무짚새는 이끼로 메웠다. 부엌과 방안으로 드나드는 출입문이 있고 정주방은 피창을 냈다. 지붕은 나무쪽판대기로 된 동기와를 이었다. 구름노전을 칸 방안구석쪽에 이부자리를 몇채 얹은 나무궤짝이 있다. 피창아래 앉은책상우에는 그이께서 어린시절 쓰시던 나무권총과 나무망원경, 쪽무이조선지도맞추기, 나무칼과 수자맞추기가 있을뿐... 더는 없었다.

이 나라를 백두산처럼 들어올린 위인이 태어난 고향집이지만 《검소하고 소박하고 수수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비여》있었다.

고향집트락앞으로 소백수가 흘렀다. 수정같은 물이 은쪼각처럼 반짝이며 소연히 흐르는 물말에는 하얀 조약돌이 알른거렸다. 우리는 그 물살빠른 개울을 넘어 숲에 들어섰다. 태고연한 정적이 깃든 숲에서는 상쾌한 향취가 짙게 풍겼다. 숲속은 어둑하나 간간히 해별이 스며들었다. 천나무사이를 지나니 앞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 저것 좀 봐요.》

처녀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나의 팔을 꼭 잡으며 속삭이였다. 나는 몇발자국앞에 서있는 굵은 나무우로 눈길을 더듬었다. 높다란 나무아지에는 다람쥐가 두발로 무엇인가 모아잡고 굴리고있었다. 그놈은 인기척에 자주 멈춰서서는 작은 눈알을 재빨리 도글거렸다.

그때 실바람이 숲에 잦아들며 나무잎새들을 건드렸다. 기름기 흐르는 바늘잎끝머리에 달려있던 물방울이 우를 쳐다보는 내 얼굴에 떨어졌다. 나는 흠뻑 몸을 떨었으나 이마에 퍼지는 그 물방울에서 산뜻하고 신선한 숲의 정기가 피부에 스며드는듯 상쾌하였다. 산들바람은 멈추지 않고 간밤에 관목숲에 함함히 맺힌 은빛물방울들을 뿌려주었다. 나는 이 구슬알같은 물방울들이 얼마나 기분 좋고 청신한지 머리가 맑아지고 거뽀하여 심신은 날을것만 같았다.

해빛이 비치여 황금색으로 물든 나무웃소리에 한무리의 새들이 날아왔다. 목에 노란띠를 두른 이쁘게 생긴 조그마한 그것들은 이쪽저쪽 나무아지로 넘나들며 청아한 소리로 야단스레 지저귀었다. 숲은 샅시에 즐겁고 활기로운 소음으로 끓었다. 그러나 인츰 어디론가 사라지자 숲에는 또 다시 귀가 멍멍한 정적이 깃들었다. 아니, 아니였다. 이번에는 귀를 간지럽히는 가는 음향이 들렸다. 가까우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소리

였다.

《선생님,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견폴벌레들이 이슬을 먹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자 그 수다쟁이들이 지저귀건 저희들끼리 오늘의 날씨를 주고받는 소리구요. ...》

《허어, 처녀 그들의 말을 도통했군.》

《아이 선생님, 꿀풀을 밟으셨네. 조심하세요. 이쪽 참나물을 또 다치겠네. 여긴 진귀한 약초며 고급 산나물들이 많지요 뭐. 아이 어찌나, 노란 것 버섯!》

처녀는 환성을 지르며 두손으로 손뼉을 딱 마주쳤다. 아닌게아니라 닭알모양의 일새를 활짝 편 야광나무아래에는 갓을 쓴 노르끼레한 버섯들이 다문다문 솟았다. 더러는 몸을 한옆으로 제빠듬히 제끼것들도 있었다.

《야 요고, 거드름을 피우는 갓 쓴 선비갈네.》

《허허... 참.》

나는 처녀의 동심에 어이없어 웃고말았다. 그제야 나는 줄곧 허전하던 생각을다 잊고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처녀는 그냥 제기분에 취해있었다.

《고향집주변에는 특별히 이채로운 버섯들이 다 있거든요. 흰락엽버섯, 황색깔매기버섯, 비늘느타리버섯, 색갈이갓버섯, 붉은무리버섯, 주름띠버섯, 변형무리버섯, 밤색갓버섯, 나무뿔새버섯, 잔디락엽버섯, 나도락엽버섯, 분홍빛깔매기버섯... 정말 이루 다 꼽을수 없군요. 어때요, 선생님. 산중의 명물인 버섯들은 산천이 좋은 곳을 골라가면서 돈는다지요?》

《그건 죄다 옳소.》

《그러니 이 태고연한 산천의 풍토와 향취, 맑고 투명한 공기, 새들의 음향과 정서... 이보다 더 티없는 순결과 순백이 또 있을가요. 겨울에는 더 기가 막혀요. 하얀 솜눈, 산뜻한 눈내음새, 소백수물김이 피우는 서리꽃의 신비, 아...》

처녀의 맑은 목청은 연방 탄성으로 떨었고 아름다운 환상속에 잠긴듯 가늘게 찢어진 눈에서는 발랄한 생기와 기쁨의 불꽃이 튀었다. 그 순간 무겁던 내 뇌리속으로 희한하고 눈부신 섬광이 누볐다. 나는 미지의 대륙을 발견한듯 한 고도의 흥분에 휩싸였다.

《옳소. 여기에는 티없이 깨끗한 순결과 명료한 백두의 정갈이 있소. 태고적부터 다듬고 다듬은 순결무구한 정기가 말이요!》

《그리고말예요. 한겨울 백두산눈보라가 터질 때면 여기 산천이 얼마나 굉장히 태를 치며 울부짖는지...》

《정말 그 광활무쌍하고 장엄하고 거세찬 기세를 당할 힘이 이 세상 어디 있겠소.》

나는 처녀의 말을 꺾으며 흥분을 견잡지 못했다. 가슴으로는 벅차고 용용하고 억센것이마냥 흘러들었다.

처녀는 그새도록 내 손을 놓지 않고 한걸음 앞서 걸었다. 우리앞에는 해빛이 뛰노는 크지 않은 공지가 나졌다. 공지에는 아직 황이 들지 않은 잔디가 푸른 주단처럼 깔렸다.

《선생님, 전 말예요. 이따금 이 잔디밭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군 해요. …》

처녀는 또 무슨 공상에 잠긴듯 눈빛이 그윽해졌다. 내가 그한테서 호기심어린 눈길을 떼지 못하자 살짝 불우물을 지으며 숫집게 웃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봄날의 해맑은 날이었을거예요.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리신 아드님의 첫걸음마를 시키려고 이 잔디밭에 나오셨을거예요. 어리신 그이께서는 한발자국 한발자국 용케도 어머니품을 향해 걸음을 짚어요. 어머님께서서는 두팔을 벌려 아드님을 껴안으실 그 순간을, 미래의 태양을 열싸 품으실 그 행복한 순간을 숫집게 기다려요. 아 그때 어머님의 안광에 어렸을 사랑과 애무로 가득찬 꽃같은 미소랄까?... 난 도무지 표현할 수 없구만요.》

처녀는꿈을 꾸는듯 속삭이였다.

나는 처녀의 그 참스러운 상상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 어찌 이 산천에 비껴흐르는것이 함뻍 웃으시는 어머님의 미소뿐이라. 아버지수령님의 축복이며 투사들의 환호성이며 그리고 김정숙어머님께서손수 지어 부르시던 《자장가》의 부드러운 선율도 깃들어있으리라.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총칼을 메고
조국해방 만세소리 활발한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

가슴이 격정으로 끓어오른다. 숫구치는 환희가 나를 한자리에 굳어붙인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눈앞으로 다시금 하나하나 안겨온다.

백두산밀영을 지켜선 장수마당 산정우에 흰구름을 휘여잡고 웅장도도히 솟은 정일봉, 그 머리우에 만리로 비낀 하늘, 태고의 정기, 맑은 산천의 풍토, 숲의 음향과 향취, 소백수의 정갈, 2월의 서리꽃과 폭풍치는 눈보라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축복과 어머님의 해빛같은 미소... 가장 억세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부드러운 자애가 흐르는 성지다. 수림으로 덮인 백두의 중심, 이 행성의 한복판인 태양의 성지다!

하기에 여기서 백두의 폭풍같은 기상과 담력, 백두의 순결하고 청렴고결한 성품과 백두의 해돋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 어머님의 해빛같은 자애를 지닌 위대한 백두산장군성격이 움튼것 아닌가!

오, 백두의 성새에 둘러싸여 조용히 빛나는 고창집이여! 이 집에는 번쩍이는 대리석 원주도 비

단이부자리도 값진 벽화도 주단도 찬연한 장식불빛도 없다. 하지만 그에는 비길수 없는 나무권총과 쪽무이조선지도, 망원경이 있다. 그것은 총대와 조국, 래일을 안겨준 아직 이 행성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재부다.

이 재부가 있어 위대한 주체의 혁명위업은 만대로 이어져 우리 인민은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 것이며 인류는 자주의 새봄맛이를 하리라.

항일의 나날에는 짓밟힌 조국과 인민들에게 조선의 대통령을 안겨주며 조국광복의 신념으로 불타게 하던 고향집, 오늘은 이 집이 있어 침략의 떼구름장은 갈기갈기 찢겨져 정의와 진리만이 비낀 선군조선의 푸른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는 동지애로 뭉친 일심단결의 화목한 대가정이 펼쳐져 인간사랑의 물결이 굽이친다.

이 추녀났은 집이 있어 온 나라의 도시에는拉克원의 거리가 솟고 농촌들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꽃핀다. 산원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은 학교와 야영소에서 맘껏 배우며 뛰놀고 발전소에서는 타빈이 돌고 공장들은 세찬 동음을 울린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북과 남 인민들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환호성을 울릴것이며 우리 조국은 세기적인 숙원인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리라. 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창창한 래일이, 선군조선의 미래가 태어나는 집이여!

백두민족

가도가도 끝없는 이깎숲, 빠스는 그 숲속 곧은 길로 줄창 달리였다. 9월 18일 오늘은 백두산정에 오르는 날이다.

빠스안은 아까부터 노래로 범석 뚫었다. 노래없이 잠시도 못사는 젊은이들이였다.

답사의 첫날에 오락책임자를 선출했는데 눈매가 새물거리는 총각이 자기는 즐거울 《오》자를 성씨로 지닌 타고난 책임자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만장일치로 그를 선정하였다. 그 오씨가 오늘도 오락을 주관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무슨 능구렁이같은 속심을 품었는지 내일의 강사처녀를 자꾸 일궈세우지 못해 몸이 달아했다. 처녀는 수집 어하하면서도 벌써 세번씩이나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동무의 새물거리는 눈길이 내쪽으로 옮겨졌다. 나는 은근히 속이 바재여졌다. 이런 판에서는 나는 쫄쫄 매는 문외한이다. 혹시 지명되면 썩소리라도 한곡조 뽑아야 할텐데 무슨 노래를 정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음치는 아니였어도 음정이 고르지 않아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다.

나의 몸은 송곳방석에 앉은듯 자꾸만 술아들었다. 나는 될수록 새물거리는 그 눈길을 피해 창밖에만 시선을 박았다. 오동무의 눈길은 걸으로는

새물대도 속에는 찢뜩찢뜩한것이 있어 일단 부딪치면 풀에 묻어나오기라도 하듯 영낙없이 걸려들었다.

얼핏 희미한 차창유리속에서 나는 그 찢뜩한 눈길과 마주쳤다. 순간 내 몸은 곳곳해졌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는 애원의 미소까지 발리고. 그냥 넘어간것 같았다. 그런데? ... 갑자기 짹짹그르한 박수갈채가 내쪽으로 향해졌다.

(인정사정없는 녀석이군.) 나는 내심 오동무를 나무라며 엉겨주춤이 일어섰다. 현대 내앞쪽에서도 물향아리같은 체통이 있어서지 않는가. 숙소식당로리사녀인이었다. 오늘 로정이 하루길이여서 숙소취사원들을 데리고 떠났던것이다.

(2중창인가?) 나는 속으로 뇌이며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훔쳤다.

《풍만한 부인님을 도우려고 스스로 일어선 아바이, 혼성2중창 청제비 쌍쌍!》

(이런 변이라구야.) 난 그제야 제가 판 함정에 빠진줄 알았다. 다들 배를 그러쥐고 텅굴지경이었다.

《늦은소 영کم도 하지. 내가 기름진 풀밭인줄은 어느새 알았담. 좋아요, 함께 부릅시다요!》

로리사녀인이 오동보동한 손가락을 쳐들고 고아대는 바람에 또 한바탕 웃음바가지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은 별안간 빠스가 멈춰서는 통에 동강났다.

《여러분, 저 박을 좀 보십시오.》

오락을 주관하던 오동무가 차창박을 가리켰다.

우리앞에는 실로 그냥 지나칠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있었다. 그러나 돌연히나타난 이 풍치는 신기무와 같은것이여서 다들 휘둥그런 눈에 입들만 항 벌린채 굳어졌다.

우리는 그사이 이깔수림을 벗어나 백두산아래 말기에 닿았는데 압록강시원이라 볼수 있는 여기 깊은 골짜기와 안개발같은 구름이 허리를 휘감고 있는 밋밋한 등성이는 울창한 혼성림으로 꼭 덮였다. 한창 황이 오르는 계절이라 바늘잎나무들과 넓은잎나무들이 서로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숲을 장식하고있는 이 수려한 경치야말로 보기도문 장관이었다.

태양은 마침 푸른 산정우에 약간 고개를 쳐들어 숲을 비쳤다.

금시 전장에 출전하는 장수마냥 온몸을 금빛 갑옷으로 단장한 림름한 이깔나무, 그결에 황금너울을 쓴 우아하고 눈부신 붓나무, 그뒤로는 유난히 푸른 열정을 뽐으며 젊음을 자랑하는듯 한 전나무 그리고 앞쪽 종비나무사이에는 처음 치장하고 나선 솜털녀인양 빨갭게 타오르는 홍조를 감추지 못하고있는 어여쁜 단풍나무, 그 솜털운 모양새를 두고 빨간 입술을 다사스레 놀리고있는 사시나무 또한 오른쪽 개울가에는 어딘가 거방스럽고 암팡진 박달나무를 비웃으며 푸수하면서도 호합진물

황철이 소소리높이 솟아있고 옷정수리에 빨간 열매를 다롱다롱 달고있는 장난꾸러기같은 마가목도 보였다.

웃초리가 창끝처럼 날카로운가 하면 송이구름처럼 몽실몽실하고 줄기가 풍만한가 하면 매출하고 꺾두룩한가 하면 난쟁이가 같고... 붉고 푸르고 누런것이 얹혀 울긋불긋하고 금구슬을 드리운듯 번쩍이는 빛을 발산하고... 서로 앞을 다투어 일새로 치장하고 줄기로 뽐내고 모양새로 자랑하는 이런 《수목원》이 세상에 과연 또 있을까?

우리는 빠스에서 내려 숲에 다가갔다. 일행의 앞에서 걷던 오동무가 키높은 이깔나무아래 멈춰섰다.

《여러분, 이 이깔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끈하고 림름합니까. 그리고 결에 황금옷을 입고 얹전히 서있는 붓나무, 또 얼마나 소담하고 아릿다운가요. 이들은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입을 다물고있어도 심혼으로 말을 합니다. 이들은 순간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불타는 사랑으로 모진 눈바람과 사나운 추위를 이겨내며 백두산천을 아름답게 가꾸가고있습니다.

오 림름하고 억센 이깔이여

너는 나

티없이 순결한 붓나무여

너는 진정 누구란 말인가?...》

능구렁이같은 녀석이 시적인 물음으로 제 속심을 비쳐놓자 웬일인지 일행의 시선이 처녀강사쪽에 쏠렸다. 처녀의 얼굴은 금시에 빨갭게 단풍이들어 몸돌바를 몰라했다. 그때 로리사녀인이 똥기적거리며 앞에 나섰다.

《홍, 임자들만 이깔이구 붓나무일텐가. 그래 이 령감님과 난 무슨 나무같나?》

너인은 흥판지같이 나와 저를 거든다. 내가 좁전에 열뜨기짓을 한것이 인연이 된것 같다. 어쨌든 재미있는 물음이여서 다들 입에 웃음을 물고 오동무를 지켜봤다. 오동무는 얼른 틀스런 몸가짐을 하더니 도사같은 엄한 눈길로 잠시 나와 너인을 훑어보며 노죽을 부렸다.

《음— 무르면서도 탄탄한듯 제 속을 감추고 사는 삼송은 령감님이고 너부죽하고 푸짐하고 곱할미같은 물황철은 아낙이로다.》

《에그머니나!》

《하하...》

유쾌한 폭소가 산발을 흔들며 메아리쳤다.

우리는 나무들의 운치를 하나하나 감상하였다. 저마끔 이쁘고 의젓하고 고상한 감홍을 자아냈다.

이깔나무만 해도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곳 이깔은 하나같이 20~30미터정도 결가지없이 곧고 미출하게 자라고있다.

《백두의 이깔처럼 곧고 바르게 살자.》 이런 말이 절로 생겨 튀겨나온다. 또한 《백두의 나무들

처럼 생을 아름답게 가꾸자.》

정말 우리 인간들 개개인이 품성으로나 외모로나 인격으로나 백두산나무들처럼 홀룡하게 가꾼다면 우리 사회와 집단이라는 숲은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빠스에 다시 오른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에 잠겨 한참이나 입을 열지 못했다. 숲에서 받은 인상이 그만큼 컸던것이다.

빠스는 사득관같은 무른 저지를 지나 락엽이 꽃잎처럼 깔린 길에 나섰다. 그런데 백두산가까이 지대가 더 높아갈수록 바늘잎나무들은 점점 사라지고 넓은잎나무들만 나타났다. 이는 백두산의 특이한 식물상이었다. 이제 조금 달리면 무두봉에 접어들게 된다. 《백두경승3중심》의 하나가 《무두봉에서의 대전망》이다.

옛문헌에는 무두봉마루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는 천고의 대밀림과 그를 에워싼 크고작은 산발들은 백두산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한 경계라고 하였다.

대각봉, 연지봉, 선오산, 간백산, 소백산 그리고 포태산과 관모봉, 장과 분수령 등 사방으로 벌려서있는 이 수백리 광야와 밀림... 아침이면 동쪽 한끝에서 해빛이 샅시에 퍼지면서 일망무제한 밀림을 속속들이 물들이고 저녁에는 소백산쪽에서 피어난 안개가 숙연히 서리어드는 정경은 말과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웅건하고 심원한 감흥을 자아내기때문에 예로부터 무두봉에 올라 이 대밀림을 부감하지 못한다면 백두산풍치의 진가를 다 알수 없다고 일러왔다.

그런데 무두봉에 못미쳐 우리는 또다시 걸음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다.

새노랑계 단풍드는 자작나무수림이 화려하고 눈부신 풍경을 이루었다. 황금물을 들인듯 한 노란이파리들이 반들반들한 윤채를 뿌리며 산경사면을 따라 바다처럼 무연히 펼쳐졌다.

다른 곳의 자작은 이렇지 못하다. 동해북변의 우리 고장의 자작만 해도 가을이면 잎새들이 희누렇고 어설퍼 그닥 눈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자작은 한결같이 기름지고 살진 잎새들이 유난스런 광택으로 빛난다. 그리고 고기비늘같은 겹질이 반쯤 벗겨진 러실러실한 은백색의 줄기들은 또 얼마나 은근한 세련미를 드러내는가.

백두산입김같은 선선한 바람이 부드러운 숲을 어루만지었다. 하늘을 가리우던 얇은 구름이 갈라지면서 해빛이 소나기처럼 쏟아져내렸다. 구름을 뚫고 비스듬히 비치는 그 광선목숨에 숲은 현란하고 눈부신 빛을 발산하며 굵는 쇠물가마처럼 넘실넘실 춤추며 파도친다. 그 굵기는 잎새의 파도마루우에서 금은보석같은 령룡한 광채가 빛발치며 찌프려드는 하늘과 땅으로 퍼져간다. 하늘은 금시에 밝은 채운으로 건듯 들리고 땅은 금빛미소로 환해진다. 진정 이 세상 황금을 다 녹여부은

들 이런 황홀경을 펼칠수 있을까?...

신통히도 꼭같은 금빛 단장을 한 자작나무의 단일한 색채의 조화이다. 아무런 굴곡도 음영도 없는 하나의 모습, 하나의 색깔이 이런 희한한 조화를 일으키다니?! ... 동서고금에 걸작으로 남은 수많은 풍경명화들도 단일한 색채로 그린것은 한점도 없다. 그 어떤 예술적천재의 붓질도 감히 견줄수 없는 이 거대한 명화폭의 《화가》는 누구란 말인가?...

나는 눈을 뜨고 꿈의 환영을 보고있는지 이 신비앞에 경악했다. 이것이 혹시 나의 눈을 뚫고 들어온 빛의 희룡은 아닌지. 그렇잖으면 아득한 지심속에서 이글거리는 백두용암이 뿜는 반사일가. 나의 의식이 무아경에 빠져 조화를 부리는것은 아닐가? ... 신비가 있는 곳에는 진실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진실이다. 투명한 공기가 흐르고 따스한 가을별이 비치는 공간속의 화폭이다.

나는 무엇인지 까닭모를 기쁨에 숨을 죽이고 숲에 들어섰다. 아니, 그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나를 숲으로 빨아들였다. 들어갈수록 가슴에는 시시각각으로 무엇인가 차오른다. 그지없이 따뜻한 숨결이, 사랑하는 사람의 애무의 입김과도 같은 뜨거운것이 슬며시 온몸을 감싼다. 또 한걸음 켜으니 홀연 막혔던 숨결이 열리듯 심신이 맑아진다. 조용히 뛰던 심장은 박동이 세차치고 용솟는 힘과 정력으로 뼈마디들이 우직거린다. 숲에는 심신을 불길처럼 타번지게 하는 열정의 색채가 있다.

이 하나의 색깔, 하나의 모습이 이리도 신비로울수 있을까? 개개의 나무들은 사멸을 받는 병사들처럼 한결같이 그쫘하여 수림전체는 얼마나 정결하고 눈부신가. 그렇다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 우리 인민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텐가. 그리고 통일조국의 하나된 모습도...

나의 심장은 단일한 색채가 환기시키는 감화력에 취해 그런 《하나》된 세계를 위해 깡그리 태울 열광으로 끓어번진다.

실로 나는 아직 이보다 더 생의 기쁨과 환희를 주고 좋은 앞날을 꿈꾸게 하고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는 아름다움의 절정을 본적이 없다. 세상에는 그 아무리 완벽하여도 《하나》가 모자란다는 말도 있다. 《절대완성》이란 있을수 없음을 이르는 뜻이다. 하지만 풍성한 백두의 이 황금가을은 미의 최고절정이다.

《선생님, 이제 그만 가지자요.》

내 등뒤에서 강사처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나는 땅바닥에서 락엽을 하나 주어들었다. 숨결은 그냥 벅차게 끓고있었다.

《강사동무, 솔직한 말로 내 인생도 락엽처럼 황혼의 계절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소.》

처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할려는지 몰라 눈이 동

그랬다. 그러나 인츰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불우물을 지었다.

《아이참, 선생님두, 이 자작술을 보시면서두… 향이 오르는 여기에는 저물어가는 석양의 서글픈 색조가 없잖아요. 오히려 아침노을보다 더아름다운 황혼의 원숙미가 있거든요.》

처녀는 역시 예술가였다. 나는 또다시 마음속에서 파도치는 감격과 기쁨에 심장이 부풀었다.

《그렇소. 가을의 이 숲에는 섬없이 무르익히는 생의 약동과 활력, 타오르는 열정이 있고 희한한 미지가 있소. 이건 결코 조락이 아니요. 새로운것의 교차와 부활, 새 출발과 환희롭게 움트는 태일이요. 난 무척 단조로울줄 알았던 이 하나의 색채가 이처럼 심원한 사색과 고결한 정서를 불러일으킬줄을 몰랐소.》

《아이, 선생님은 서정으로 더 풍부해진것 같고 열정으로 부활된것 같애요!》

《난 백두의 이 절경에 갱소년이 된것 같소.》

처녀는 감동에 젖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는 속삭이듯 뇌이었다.

《그래요. 백두산의 젖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절경을 낳을수 있겠어요. 이 명화폭의 어머니는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은 금수강산 내 조국의 하늘아래 제일 명산이에요.》

난 감격에 복받쳐 숲에 무릎을 꿇고앉아 두손으로 흙을 담아쥐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백두산천의 이 흙이 우리의 살이 되고 백두의 맑은 물이 우리의 피가 되고 백두의 성스런 바람이 우리의 숨결이 되고 백두의 아름다운 경계가 우리의 모습이 된 우리는 백두민족, 아아 백두산아! 이렇듯 고결하고 아름다운 네 품에 태를 묻고 백두민족으로 태어나 삶을 누린다는것은 얼마나 기꺼운 행운이란 말인가!)

나는 이윽도록 백두의 흙에 얼굴을 묻고 나의 피이고 생명인 백두대지에 감사를 드렸다.

그렇다. 인간은 자연속에서 태어나 자연과 함께 숨쉬며 자연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구별되는것은 서로 다른 하나의 조건인 자연과 생태환경때문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의 대자연은 백두대산줄기이다. 지리학계에서는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의 마지막봉우리인 구재봉을 지나 한나산까지 뻗어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고 이 줄기를 《백두대산줄기》라고 명명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강토가 하나의 백두산줄기로 이어졌음을 밝히였었다.

…백두산이라는 하늘을 받들어 올리고 밑은 대지를 눌러 삼천리전역에 뿌리를 박고있으며 동남으로 호탕한 창해를 내다보고 서북으로는 창망한 대륙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넓혔다…고 전했다.

고려시기에 내놓은 《고려도》,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만든 《산경표》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

도》들에서도 백두산에서 남해의 지리산까지 하나의 산줄기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때문에 《동국지리지》에서는 《금강산은… 백두산의 남쪽가지이다.》, 《약과만록》에서는 《지리산은… 백두산지맥이 흘러내려 이루어진 산으로서 그 이름도 일명 〈두류산〉 이라고 하였는데 그 지맥이 바다에까지 뻗어있다.》라고 쓰고있다.

우리 나라의 곳곳마다 흙과 나무, 물과 공기, 산세들이 대체로 비슷한것은 백두대산줄기에 그 시원을 두어서이다. 조선사람의 피와 살, 골수에는 백두의 원소들이 숨배여있다.

조선사람은 태줄을 백두산에 이어놓았으므로 본래는 《백두족》이다. 이 생태적일치성으로 하여 조선민족은 골격도 피부색갈도 식법도 언어도 생활풍습도 문화도 력사도 하나의 단일민족으로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6.15정신을 안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공동의 대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

백두산처럼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엄높은 조선사람이라 함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명산인 백두산의 영광스럽고 숭엄하고 고결하고 비범한 뜻을 잇지 말자.

백두산의 불

9월 18일.

오전 10시를 조금 지나 뺨스는 백두산을 향해 달리였다. 무두봉을 지나니 나무 한대 없는 용암대지다. 암회색의 용암대가 거대한 산악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멀리서 보면 《백발》이나 《흰눈》처럼 안겨온다. 그리고 산악의 주름으로 보이던것 역시 허여스름한 용암속살을 드러낸 깊은 골짜기였다.

백두산아래자락에는 세기를 두고 바람에 날려온 먼지들이 쌓여 띠얹띠얹 흙토층을 형성하였다. 그 흙토우에는 이파리가 짧은 잔디풀과 적토색의 방울잎잔디, 도깨비바늘송치들이 널려있었다. 그리고 푸른 만병초잎새들이 비교적 넓게 퍼졌다. 이 메마른 대지를 작은 뿌리로 꼭 그러잡고 광란하는 눈바람속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니 백두산을 푸르게 단장하는 만병초의 그말없는 헌신에 눈뿌리가 시큰해진다.

해는 어디에 숨어버렸는지 산협으로 찢어진 안개가 초연처럼 서리였고 남쪽으로부터 스산한 재빛구름이 꾸역꾸역 밀려왔다. 을씨년스러운 날씨를 예감케 하는 조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서 빨리 백두산정에 오르고픈 마음이 앞서 그까짓 날씨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백두산정을 10여리정도 앞둔 지점에 《백두산》이라고 새긴 화강석표식비가 세워져있었다.

여기서 산정을 쳐다보니 향도봉가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활달한 필체로 부각한 글발이 안겨왔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

백두산은 자기의 현판이나 다름없는 이 글발을 안은것으로 하여 더더욱 빛났다.

그리고 우측룡선에는 세멘트건물로 아담하게 꾸린 인차정류소가 보였다. 거기서부터 향도봉까지 인차레루가 급경사로 늘어있었다. 걸음길은 우불구불하고 심히 가파로웠다. 길바닥은 까만 색깔의 현무암(곰보돌)을 네모나게 깎아 포장하였고 도로경계를 따라 화강석말뚝을 세워 그 사이사이를 쇠사슬로 늘어였다.

불현듯 학창시절 백두산정에 오르던 일이 다시 밝혀왔다. 그때는 무두봉에서 백두산정까지 걸었다. 발밑에서 도글도글한 부석알갱이들이 밝혀 산정을 뚫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라 없이 백두산마루에 먼저 오르려고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바 없었다. 백두산상이 점점 눈앞에 다가설수록 일행은 해일이 바닷처럼 뒤셀레이었다. 어느새 남쪽하늘을 덮고있던 구름층이 눈아래로 굽어보인다. 그 구름웃면은 마치도 사품치는 바다갈기도 하고 광야를 덮고있는 눈의 설경갈기도 하였다. 그 광경을 여겨보던 오동무가 가만있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발밑에 구름이 깔렸소.》

《어허, 그러니 우린 어느새 하늘나라 신선이 됐군그래.》

《그럼 난 하늘선녀겠구만.》

취사원 풍보녀인이 너스레를 떨자 오동무가 제창받아 응수했다.

《여봐라, 곰할미선녀는 옥황상제의 침전에 들랍신다.》

《예예—이—》

와하— 떠들썩한 웃음이 차안을 들었다놓았다. 뻘스는 그 웃음을 실은채로 백두산마루에 닿았다.

오전 11시, 마침내 나는 백두산정에 조심히 발을 놓았다. 손으로 하늘이 만져지고 발은 하늘길을 밟는듯 다리가 떨렸다. 다행스럽게도 산에 오를 때 흘날리던 음산한 안개발은 간데없고 남쪽하늘에 흰구름이 덮였을뿐 산상우에는 푸른 하늘이 열려 태양이 명랑한 빛을 뿌렸다.

순식간에 거창한 봉우리들과 기암절벽들, 폭 꺼져 내려앉은 천지가 한꺼번에 안겨들어 어느것부터 부감했으면 좋을지 갈피없이 헤덕비게 된다. 장엄광대하고 웅장화려한 그 자태들은 저마끔 이름할수 없는 탄복과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몸은 한껏 달아올라 땅을 딛고선것 같지 않고 심장은 터질듯 울렁거리 무엇인가 터뜨리지 않고서는건딜수 없다.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잡아흔드는 서늘운 바람이 더더욱 부채질한다.

...

동방의 줄기줄기를

선죽인양 한줄에 걸어취고

만리창공에 백발을 휘날리며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 나라 풍상의 나날을 날날이 굽어

천산성악아, 백두산아!

조기천의 서사시《백두산》의 구절이 절로 터져 나온다. 이 절정에 서니 거인이 된듯 세상은 티끌 같고 이 나라의 높고낮은 산발들은 조정을 향해 었드려 배알하는것 같기도 하고 천리만리 수해처럼 눈뿌리 아득히 굽이쳐 흘러간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격파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파아란 물은 지금은 아기의 눈동자처럼 반짝이며 어머니의 자애의 미소를 머금고 깊디깊은 아버지의 웅심처럼 조용히 숨쉬고있었다.

향도봉에서 천지호반까지 오르내리는 계단도 있지만 인차와 삭도를 운영하는 역이 있어 유리 집으로 된 삭도를 리용할수 있다.

백두산정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르시여 부감하신 자리와 《백두산사적비》가 정중히 세워져있다.

백두산은 실로 보면 볼수록 가슴트이고 기겁고 힘찬 절경이다.

조국산천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장군봉과 향도봉, 해발봉을 비롯한 16개의 기본봉우리들과 그 주위에 천태만상의 절경을 이룬 200개의 크고작은 봉우리로 이루어진 백두련봉은 하나의 거대한 옥돌로 다듬어세운듯이 기기묘묘한 풍경을 지닌 데다가 한가운데 탁 트인 천지호반의 장쾌한 경치와 어울려 더욱 장관을 이루고있다.

옛글에는 《백두경승3중심》에서 첫번째로 꼽히는것이 창공만리를 치뽇으며 높이 솟은 백두령봉과 하늘의 호수, 천지의 유명한 모습이라 하였다.

천지는 압록강과 두만강, 송화강의 3대장강발원지로서 옛날에는 하늘높은 곳에서 우뢰소리를 내는 큰못 또는 통신이 사는 곳이라고하여 《대택》, 《퇴택》, 《룡담》, 《신일》 등으로 불리웠는데 깎아지른 절벽들을 성벽마냥 두르고 새파란 쪽빛물에련봉의 만물상을 비껴담은채 천변만화의 자연현상을 일으키는것은 《하늘의 기적》이라 하였다. 특히 휘몰아치는 비바람, 눈보라속에서도 역센 기상을 드러내는 백두산상상봉에 올라 태고의 기운을 흘날리는 백두련봉과 천지의 웅장한 광경을 보느라면 《웅대한 대자연이 산천정기를 맑게 하고 사람들의 의지를 통일시켜 마음과 눈이 함께 정화된다.》고 칭송하였다.

백두산은 100만여년전 화산분출후 여러차례에 걸쳐 불을 뿜어올리면서 그 분화구에 천지를 형성하였다.

세상에는 분화구에 물을 담은 사화산은 더는

없다. 백두산의 최고봉인 장군봉은 2 750미터이다.

세계에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수없이 많다. 세계의 지붕이라 부르는 히말라야산줄기와 알프스산줄기, 안데스산줄기를 비롯한 거대한 산줄기들에는 해발 5천미터이상의 거봉들이 헤아릴 수 없이 솟아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백두산을 그 모든 거봉들 위에 놓고 자랑한다. 우리 조국의 천만산악과 천만 강줄기를 피줄처럼 늘어놓은 어머니산이여 서 일가 아니면 장쾌하고 황홀하고 신비한 자연미를 지녔기때문일가. 과연 그것만으로 세계의 거봉들이나 명산위에 세울수 있을까?...

처녀강사가 《백두산사적비》에 새긴 송시를 답사자들에게 랑송하고있었다.

...

아,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혁명위업은
그대의 메부리와 함께 세기를 빛발치리니
혁명의 지맥세계에 뻗치는 백두성산이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영생불멸의 업적을 무궁토록 빛내이라!
해와 별과 더불어 길이길이 전하여라!

뒤미처 나의 시야에는 향도봉전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담대무쌍한 필체로 새긴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일성》**이라는 의미가 승엄히 안겨들며 봉우리전체가 장엄한 붉은 기폭처럼 휘날리는것 같았다. 그러자 눈앞에 보이는 모든것이 온통 붉은빛으로 타변졌다. 만리창공을 꿰지른 봉우리들과 깎아지른절벽도 거대한 불길처럼 타고르고 천지도 불의 격파로 길길이 솟구친다.

력사를 더듬으면 20세기 초엽 조선문단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아! 백두산! 백두산이야말로 조선일체의 집약적표현이며 조선최고의 전환적가치이며 조선독특의 절대적정화이다. 조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백두산에서가 아니면 조선에 무엇이 있느냐. 백두산이 아니냐. 백두산은 조선이라는 형상의 거울이다. ... 백두산은 조선의 긍지이고 힘이고 조선을 지키는 진산이다!...

그러나 조선의 긍지인 백두산이 있으면서 우리 인민은 강도일제에게 국토를 빼앗겨 《시일야방성대곡》을 터뜨리며 이 나라 강산을 피눈물로 적시켰다. 조선의 《힘》인 백두산이 있으면서 세계지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것을 믿지 않아 《만국평화회의》마당에서 우국지사가 배를 갈라 자결하였다. 조선을 지키는 진산인 백두산이 있으면서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은 망국노가 되어 상가집개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말았다.

그렇다, 조종의 산 백두산은 있었으나 백두산에는 국토와 민족을 구원할 조선의 녀이, 조선의 기

상이, 조선의 불이 없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칠성관에 올랐던 엄혹한 그 시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용암처럼 끓는 열혈의 심장을 안고 여기 백두산에서 력사의 첫 총성을 울려 조국해방과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불을 질렀다.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으로 지핀 그 총대불을 안고 조선의 혁명가들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하여 백두의 수림속에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국적판도에서 일으킬 근거지와 밀영들이 곳곳에 창설되고 보천보와 삼지연, 대흥단을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에는 항일대전의 피어린 전구들과 자옥들이 수없이 생겼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의 혁명가들을 거느리시고 장장 20성상 불바다 수만리길을 헤쳐가어이 조국을 해방하고 민족을 구원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짓밟히고 뜯기우면서도 피땀히게 그려보던 강국의 꿈, 우리도 언제면 제힘으로 나라를 세워 제손으로 입고 먹고 쓰고 살고 제목소리대로 대국들과 땅땅 맞서 말하랴 하던 그 꿈을 위대한 백두의 불이 있어 비로소 이룩하였다.

때문에 백두의 불은 망국과 노예의 철쇄를 녹여버리는 불이며 민족의 진흥과 부강, 인간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는 정의의 불, 만복의 불이다.

백두의 불은 오늘 백두의 아들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총대로 하여 더욱 세차게 타오른다.

우리 조국의 평화도 번영도 융납하지 않는 미제, 세계제패의 야망을 항시 품고있는 미제는 이 땅을 인간생활의 불모지, 자본사회의 암흑속에 집어넣으려 미쳐날뛰고있다. 핵소동으로 인한 군사적공격, 금융제재와 악랄한 경제봉쇄, 집요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인권도박전... 내 나라의 하늘에 모든 인간적인것을 말살하는 핵구름장들을 뒤덮어놓으려 하고있다.

이 준엄한 시련의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총대를 역세계 틀어쥐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여 미제와의 관가리격전을 선포하시고 선군장정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 길에서 곁을걸음 가슴속에 채우고 다지신것은 기어이 이 땅에 백두산메부리와 같은 강국을 일떠세우리라는 철의 신념이시였다. 그 신념으로 우리의 머리에 드리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내고 이 땅위에 강성대국의 지름길을 열어놓으시였다.

100만여년전 땅속의 용암을 뿜어 어둡던 광야에 동방조선의 지맥을 열어놓은 백두산, 오늘은 여기 산상에 다른 불이 타오른다. 그 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있으며 심장으로 감각하고 느낀다.

세계의 수많은 거봉들과 명산들이 지닐수 없는 거창하고 심원하고 영원불멸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백두산!

우리는 바로 그 불을 간직하려고 백두산에 오른다. 그리고 온세상 사람들도 그 불을 가져다 자기 민족에게 나누어주고있다. 인류는 태고적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앞길에 광명을 주는 불을 갈망해왔다. 그래서 불을 훔쳐다 암흑에 잠긴 이 지상을 밝혔다는 유명한 프로메테우스의 불의 신화도 태어났다.

오늘날 인류는 자기자신을 구원하고 자기가 주어진 세상을 건설하는 광명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더욱 세차게 지피고계시는 백두의 불에서 찾고있다.

백두의 불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고 수령님의 그 사상의 진수는 인간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사랑하는 사회건설이다.

수령님께서 이 위대하고 독창적인 주체사상으로 백두산에 인간사랑을 위한 투쟁의 념, 조선의 혼을 심어놓으시었다. 때문에 백두산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지켜주고 광휘로운 앞날을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이다.

백두산에 불이 타오른다.

위대한 선군조선의 불,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조선의 념이 타오른다. 우리 조국과 인민은 백두산의 그 념이 있어 강성대국의 새 아침을 맞이할 것이며 해와 별과 더불어 길이길이 번영하리라.

진정 그날에야...

진 국

이른아침부터
구내의 키높은 나무에서
까치가 유난스레 울어댔건만
그 누구도 미처 생각지 못했네
날마다 전선길 이어가시는 장군님께서
우리 기초식품공장에 찾아오실줄은

구내가득
구수한 된장향기 풍겨오는것이
그리고 기쁘시여
장군님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 공장 장맛이 좋은것 같다고
현장부터 찾으시였네

아 만경대초가집
그 이지러진 장독이 눈앞에 어리시였는가
어버이수령님을 위해 김정숙어머님
정히 담그시던
사연많은 그 된장맛을
못 잊으시여선가

우리 장군님 친히 된장맛을 보아주실 때
몽클 가슴에 젖어드는 친어버이사랑에
너무도 해놓은 일이 적은것만 같아
내 얼굴 들수 없었네

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실 때면

어찌하여 병사들의 훈련모습 보시기 전에
취사장 국맛부터 보아주시는지
공장지구 찾으실 때면
어찌하여 사품치는 쇠물보다 먼저
로동자들의 식당부터 찾으시는지
내 미처 다 몰랐으니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때도
기초식품생산은 량적으로만 매달리지 말고
질적으로 꼭 보장해야 한다고
일군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시던
다심한 그 사랑 그 은정의 깊이를
내 그날에야 안듯싶었네

바로 그 된장맛을
인민의 요구로 기쁨으로 안으시고
우리 만든 된장이 좋다고
그 맛까지 헤아려주시는
천만군민의 어버이 우리 장군님

장군님 그 높은 뜻 받들어
진정 그날에야
진짜 된장맛을 톡톡히 알았네
인민의 참다운 충족으로 사는
복무자의 참된 삶의 맛을!

시인과 그의 시집

오영재

시인들이 묶어내는 시집들을 접할 때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시인의 한생을 더듬어본다.

최근에 나는 차승수의 시집 《삶의 태양》을 매우 흥분된 심정으로 받아보았다.

나는 그가 이런 시집을 묶어냈다는것이 무척 반가웠고 또 그 시집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시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시인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축하를 보내며 그 시집을 단숨에 읽어보았다. 내가 이미 본 시들도 있고 또 보지 못했던 시들도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이 시집은 시인의 얼굴을 눈앞에 떠올리게 하는 훌륭한 시집인것으로 하여 시인을 잘 알고있는 나뿐만아니라 이 시인의 시를 많이 대하여보지 못했던 독자들에게도 큰 감흥을 주리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시는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시인의 열정이며 못사람을 향해 때로는 속삭이며 때로는 웨치고싶은 거세찬 충동의 산아이며 뉘이다.

시는 그 어떤 구속도 없이 바람과 구름처럼 거침없이 내달리는 시인의 나래이며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다감한 그 심장의 하소이다. 시는 다르게는 될수 없는 시인이라는 그 인간 그대로이며 그의 삶의 총체이다.

시— 그는 곧 그 시인이라는 인간이다.

시는 어디까지나 그 시인—인간자체의 순수한 숨결이며 만약 그 시에 과장이라든가 조작의 이물이 깃들면 그 시는 그 인간의것이 아닌 말하자면 시인의 본심을 떠난 부모없는 고아처럼 버림을 받게 될것이다. 사람들은 시를 보면서 시인의 숨결을 느끼고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 시인의 얼굴을 그려보게 되고 또 시인을 보면서 그시를 다시 보는 감정의 교차속에서 그 시의 공감력을 확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이 명제로 시집 《삶의 태양》을 비추어볼 때 시문학실천과 시인의 사명에 대한 여러가지 의의있는 문제들을 찾아보게 된다.

오늘 우리 시인들이 안고 몸부림치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시대적감정의 주류와 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시대를 향도하며 빛내여주

는 령도자에 대한 감정이다.

그 어느나라나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며 인민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있어도 그 정치인에 대한 인민의 감정은 다 같은것은 아니다. 진심으로 그 정치인을 흠모하고 부모와 같이 그리워하며 따르는 감정은 그 어떤 도덕적의무감이나 논리적사고의 귀결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반세기 우리 혁명을 령도해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흠모의 정은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특유한것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특전이기도 하다. 우리 인민의 감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령도자를 끝없이 그리며 따르는 매혹의 정이다. 오랜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속에 드릴수 없이 자리잡은 이 매혹은 그이의 사상과 정치의 위대성과 진리성에 대한 매혹이며 친아버지로 인자하신 그이의 덕망에 대한 매혹이며 조선혁명의 상징이며 우리 인민이 삶의 뿌리를 두고있는 백두산을 그대로 지니시고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선군혁명을 이끌어가고계시는 위대한 인간에 대한 매혹이다.

정치적 영역을 한그루의 나무에 비겨본다면 매혹의 영역은 그 나무와 연관되어있는 토양과 공기과 햇빛을 포괄한 그 전체이다. 그렇기때문에 매혹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보다 비할바없이 심오하고 풍부한 세계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런 매혹과 그리움의 세계에서 우리 인민이 살고 있기에 그 어떤 시련도 난관도 장군님만 믿고 웃으며 걸어왔으며 장군님의 두리에 혈연적으로 뭉친 일심단결은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위력한것이다.

시집 《삶의 태양》에 실려있는 시 《태양과 별》에서 시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를 울리고있다.

한생토록 툴아올라도

그 뜻에 닿을수 없어

따라가면 손에 잡힐듯 가깝다가도

바라보면 아득히 멀어지는 무지개처럼

신비로운 예지여

깨달으면 자신처럼 명백하고 알고보면 노을처럼 선명하건만 그 뜻에 가닿기에는 한생도 모자라는 자신에 대한 자책의 감정처럼 시는 씩씩했지만 그것은 결코 자책이 아니다. 그이의 뜻을 따

르지 못하는것은 너무도 웅당한것이다. 범상한 인간이 어찌 위인의 예지를 따를수 있겠는가. 그의 자책은 강렬한 칭송에 대한 말없는 말이며 그이에 대한 칭송은 자연스러운 인간감정으로 하여 더 강조되고있다. 드디어 그의 이러한 감정은 시의 결구에 와서 솔직하게 토로되고있다.

아 그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천만생명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칭송하는
김정일동지
...

나는 그 빛을 받아
저 하늘에 빛나는 억만별속에
궁지높이 숨쉬는 별 하나
변함없이 반짝이는 별 하나

억만별들을 다 합친들 태양이 될수 없듯이 태양은 어디까지나 태양이며 별은 어디까지나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인것이다. 시인은 그 하나의 별이 된것을 궁지롭게 생각하고있다. 하여이 시에는 태양을 따르는 별로 자기 한생을 빛내여 가고있는 전사—별의 행복이 있는것이다.

어느 한밤중 시인은 컴퓨터종소리에 소스라쳐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자신이 써올린 글을 그이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환희의 글발을 안겨주신것이다.

세기를 밝히는 예지의 눈빛속에
비쳐지고 밝아진 글발이어서
인류지성의 최고뇌수에
정화되고 다듬어진 글발이어서
나는 마치도
새 문헌을 받아안은듯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밤을 지새우고계신다는 생각으로 하여, 깊이 잠든 인민들을 소리쳐 깨우고싶은 충동으로 하여 그의 심장은 높였다. 《우리 심장의 박동을 다 합쳐/ 그이의 한순간으로 바쳐진대도/ 최상의 행복인 영광의 시대에/ 내 어이 잠들수 있느냐》 하여 시인은

...
그이께서 계시는 세계는
언제나 태양이 지지 않는 곳을 알라!
(시 《잠들수 없는 밤이여》)

이렇게 세상에 대고 호소하고있다.
별로 꾸밈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것

같은 시이지만 여기에서는 시인의 얼굴이 보이고 새벽 3시에 받아안은 너무도 크나큰 충격으로 하여 높뛰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고 걱정에서 겨워 흐리는 시인의 눈물이 보인다.

시란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의 폭발이다. 그러나 그 형태는 다 같다고 말할수없다. 오래동안 축적된 감정이 사색과 탐구의 리과과정을 거쳐 질적변화를 일으키는것도 있고 순간적인 충격이 그대로 오랜 모태감을 거침이 없이 그대로 발화되는 것도 있다. 시 《잠들수 없는 밤이여》가 후자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오래동안 축적된 감정이 그 어떤 충격적인 계기라는 발화점에 의하여 폭발된 형태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런 시들은 이 시집의 다른 곳에도 있다.

시 《그이 계시는 곳으로》에서 그는 문득 어버이장군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여 서둘러 새옷을 갈아입고 넥타이를 바로 잡는다. 그의 평온하던 심장은 폭풍을 안은듯 격랑을 일으킨다. 흥분된 심장으로 그이 계시는 곳으로 가며 그가 터뜨리는 걱정은 무엇인가. 《그곳은 해쫄는 아침과 같이/ 영원한 광명이 빛발치는 세계/ 지척도 볼수 없던 앞길이/ 세월의 한끝까지 열려지는 곳》으로 그는 한아름 영광과 행복을 안고 가고있는것이다.

그이는 계시리라
저 하늘의 태양이
눈부신 빛발로 세상을 밝히려고
뜨거운 열로 만물을 키우려고
있어야 할 그곳에 있듯이

● ● ● ●

그이께서는 반드시 계시리라
인민을 위해 탄생하시고
세계를 위해 한생을 바치시는
인간중의 인간이신 그이께서
계셔야 할 그곳에

● ● ● ●

(방점은 필자의것)

그렇다, 하늘의 태양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있어야 할 그곳에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존재할수 없는것이다. 것처럼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어야 할 곳에 계신다. 태양처럼 장군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없기때문이다. 이 시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처럼 평범하다. 평범한 말을 평범하지 않게 쓰는 거기에 시인의 재능도 있고 기교도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충격적인 계기에 의하여 폭발된 감정을 시화한 작품들이 이밖에도 이 시집에 많다. 시인은 그 충격을 놓치지 않았다. 충격은 순간이며 놓치면 또 다시 그런 충격이 오지 않는다. 시인의 머리에 문득 언어로 떠오른 령감은 기억이라는 수단으로 저장해놓을수 없다. 순간이 지나가버리면 도저히

그 언어를 되찾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시는 감정의 촬영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인 경우에는 지나간 역사적사실을 가지고 역사소설을 쓸수도 있지만 시는 어디까지나 현재이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우주를 향하여 발사되는 순간을 촬영해놓지 않았다면 그 장면을 실지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상상으로밖에 그려보지 못했을것이다. 것처럼 시도 불길과도 같이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순간적인 감정을 시어로 형태화해놓지 않으면 그 귀중한 정신적보물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것이다.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흠모심을 자신의 개인적충격과 체험으로 일반화하면서 소박하면서 진실한 시어로 우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주고있다.

시인이 시를 쓰기 시작한 1960년대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년 창작발표한 시들중에서 애착이 가는 시들을 골라서 묶은 시집 《삶의 태양》에는 그가 걸어온 인생행로와 그 나날에 체험한 감정들이 줄기차게 굽이치고있다.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도 있고 젊은날에 선택한 직업에 대한 랑만도 있고 사회주의조국의 현실에 대한 고마움과 애착도 있으며 이 모든 감정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흠모하며 따르는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의 풍부한 토양으로 되고있다.

여기에는 두발이 가시밭에 피멍이 저도 신발 한켠레 차례질수 없었고 배잠뱅이로 세월의 눈비속을 헤쳐가며 젊어서도 새옷 한벌 갈아입지 못했던 어린시절의 추억도 있다. (시 《은혜》)

《장자강 흰 물사품이/ 깎아지른 벼랑밑을 감돌 아내리고/ 어디 가나 령길이 앞서는 고장》 《소머리아이들이 맨발로/ 애라게 송아지를 찾던 소리/ 산울림해 돌아오던 강기슭》이 시인을 낳은 고향산천이었다. (시 《내 고향》)

시인은 조국의 열렬한 축복속에 의무교육의 때문에 들어섰고 비발치는 탄우속을 한치 또 한치 부모님들 배밑이해 지나간 땅우에서 배움의 아침길을 맞이했고 재무지 헤치고 솟아오른 고래등같은 학교, 형님들의 땀배인 밝은 창가에 선참으로 교과서를 펼쳐놓으며(시 《새 세대》) 조국의 고마움을 눈물겹게 체험한 세대이다.

젊은날에 그는 북방의 산발들을 오르내리며 선렬들이 눈속에서 자던 그 잡자리를 그려보고 그분들이 더운 가슴을 대고 간 나무그루와 바위층령을 쓰다듬어보며 한적한 산정에서 조국앞에 엄숙한 맹세를 다진다.

...

누구도 걸어 못본 그 길을 선참으로 그분들 걸어갔듯이
오로지 빈손으로 산에 올라 크나큰 조국을 안

아왔듯이
내 모래알같은 집
하늘에 닿은 크기의 보화로 바뀌오리라
내 목화송이 하나보다 가벼운 집
억만무게의 채부와 바뀌오리라
(시 《북방의 산정에 올라》)

주체48(1959)년은 그의 한생에서 가장 뜻깊은 해였다. 평범한 로동청년이었던 그는 대학생모자에 대학생교복을 입고 문학수업에 전념했으며 같은 학급의 동무들과 어울려 왕성한 창작의욕을 가지고 현실체험에 땀과 정력을 다 바쳤다. 그무렵 조국은 천리마의 기세로 일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었으며 도처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었다. 자동차와 트랙토르, 굴착기들이 이땅에 환희로운 고고성을 울리며 련이어 쏟아져나오는 새 소식들이 신문마다 대서특필로 소개되었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도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고있었다.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피를 바치고 뼈를 바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로 병원마당들은 군중집회를 련상케 했으며 판매원없는 매대에서는 팔린 상품보다 두고간 돈이 더 많았다. 공업생산량은 놀랍게 장성했으며 사회주의협동벌에서는 해마다 흐뭇한 대풍을 이루었다. 이 벽찬 현실속에 몸을 깊이 잠그고 밀물처럼 밀려와 가슴을 벅차게 채워주는 새라새로운 흥분속에서 사색과 탐구로 모대기던 그는 어느 농촌에 나가 현실을 체험하면서 쓴 시 《가을에 오시라네》 [주체51(1962). 11]를 세상에 내놓았다. 하여 골깊은 산촌 고향의 벼들방천가에서 문학의 꿈을 키우던 그는 전국의 독자들에게 시인으로서의 뜻깊은 인사를 보냈으며 우리 시문단의 화원에 아름다운 한송이 꽃을 더 보태주었다. 그때 가을이 얼마나 좋았던가. 산은 산마다 과일동산이였고 벌은 관개수로마다 생명수가 넘쳐흘렀고 누렇게 익은 탐스러운 벼이삭들은 무겁게 머리숙이며 해마다 대풍의 기쁨으로 설레이는 조선의 가을, 벼나그리의 산을 쌓아놓고 고운 옷 펼쳐입고 덩실덩실 춤추던분배장,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하는 노래도 이무렵에 나온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기다려지는 계절이며 기쁨이며 행복이며 채부이다. 때문에 신문기자를 떠나보내면서도 마지막모춤을 논머리에 꽃아주고 평양으로 가는 정무원(당시)손님들을 배래주면서도, 또 휴가를 마치고 떠나가는 막내손자를 배래주면서도 《가을에 오십시오》, 《가을에 오세요》, 《가을에 오너라》고 북반은 농촌의 가을은 사람들을 부르 고있다. 매 련마다 가을이 부르는 이 당부를 시인은 반복함으로써 독자들은 시를 읽는것이 아니라 가을의 노래를 듣는것 같은 흥겨운 감흥에 사로잡히게 된다. 노래의 결속은 어떤 경우에는 높은 음으로 힘을 주어 맺는것도 있는데 이 시의 노래

는 애써 흥분을 감추며 낮으나 매우 사색적으로
여운을 남기고있다.

...

조합원들 마음은
오백만톤 거두는 가을에 산다네
그래서 손님들을 보낼 때마다
조합원들 인사는 상봉의 인사!
가을에 오시라네
가을에 오시라네

세상만물에 같은것이란 없다. 지어 같은 종류의
동식물에도 개개의것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것이
다. 완전일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조화를
파괴한다. 같은것이란 없는 서로 다른것들의 존재
형태로 자연은 조화되고있는것이다. 사람들도 같
은 사람이 없다. 그의 사고방식, 성격, 취미, 능력
등은 서로 다르다. 시인의 개성은 보다 높은 경지
와 수준에서 고찰되어야 할것이다. 작가의 신분을
가졌다고 하여 다 그 시인이 자기고유의 개성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것이다. 적지 않은 시창
작가들이 자기의 개성을 뚜렷이 세워보지 못하고
붓을 놓은 그런 실례가 얼마나 많은가.

적어도 시인이라고 객관이 인정할 때 그것은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있을 때만이 받아안을수 있
는 칭호이다. 시인의 개성이란 일정한 지성의 높
이에서 자기만이 가지고있는 사물현상에 대한 투
시력과 관찰력, 판단력에 의하여 주어진 사색의
남다른 색깔이며 그 시인의 개별성이다. 이 개성
에 의하여 그가 쓴 시의 체취가 규정되며 그에
맞는 시어구사의 묘미가 이루어지며 그런 개성있
는 시인들의 작품으로 하여 시문단은 조화를 이
루는것이다.

시집 《삶의 태양》을 거듭 음미해볼 때 개방적
이라고 하기보다는 내성적이며 평이하고도 소박
한 시어로 솔직하고도 진실한 감정을 진지하게
추구하고있는것이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특징
이며 개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시인은 다른 시인들이 별로 다치지 않고있는
임원실생활도 그리고있다. 그는 시 《세상에 다시
태어나》에서 세상에 다시 태어난 소생의 환희를
노래하면서 한번밖에 생을 지닐수 없는 사람들에게
게 자기를 부러워하라고 소리치고있다.

...

인덕의 태양 김정일동지
그 해빛을 삶의 피줄로 이어놓고
숨쉬며 약동하는 인간에게는
영생은 있어도
죽음은 없나니
...

자신도 모르게 자래온 그 무서운 병마의 근원

을 찾아내게 해주시고 수술대우에서 의식을 잃고
흐르던 그 시간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그 사랑에
눈물을 머금고 감사를 드리는 시인의 모습이 방
불하게 떠오른다.

이것은 자기 생의 순간순간을 아버지장군님과
이어놓고 사는 시인의 진지하고도 성실한 심정의
호소이다. 때문에 고통스러운 병상우에도 신음소
리만이 아닌 아름다운 시가 있는것이다. 《모진 아
픔과 진통으로/ 살이 저리고 뼈가 쭈실 때/ 난생
처음 당하는 생의 극한점을 체험하면서/ 나는 스
스로 량심에 물었노라/ 동지들의 아픔을 두고/ 내
조국의 시련을 두고/ 내 언제 이토록 살이 저리
고 뼈가 쭈신적 있었던가》(시 《참된 삶의 첫 걸
음》)라고 시인은 한몸의 아픔속에서도 혁명하는
전사의 나라의 한 공민된 자각의 세계에로 감정
을 승화시키면서 마음도 뜻도 수령과 함께 심장
깊이 숨쉬는 첫걸음을 이제부터 걸으리라는 마음
속 다짐을 하고있다.

나는 동료시인들이나 문학의 나이가 나보다 적
은 시인들이 묶어낸 시집들을 보면서 생각되는것
이 있었다. 출판물에 발표된 개개의 시들을 보면
서는 일정한 공감을 가졌으나 묶어놓고보면 총체
적으로 시인의 형태가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
고 개개의 작품들에서는 크게 감흥을 받지 못했
어도 묶어놓으니 그 시인의 얼굴이 반갑게 떠오
르는 시집도 있었다.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전자의 경우에는 기교와 멋이 앞서 일시적으로
독자들을 현혹시킨것이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
기나름의 생활감정의 꾸준한 추구에 있었다. 이러
저러한 활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솜씨를 보여
주는데서 《재간》이라는 말도 있고 《재능》이라
는 말도 있다. 《재간》이란 말에는 묘리와 요령
이라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있으며 《재능》이라
는 말에는 창조성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작가의
진정한 능력은 그가 쓰는 글줄속에 사상이 깊이
숨어있을수록 형상적인것이다.

시집 《삶의 태양》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있던
시인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는 시집이다.
제목이 그러한것처럼 시집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삶의 태양으로 모시고 한생을 살아온 서정적주인
공의 삶의 자욱에 대한 노래이며 삶의 태양을 모
시고 한생을 변함없이 살아갈 심장의 고동이다.

생활의 매 순간마다 장군님께로 끝없이 향해지
는 흠모와 그리움의 정을 시인다운 자세로 시로
적어왔다. 이젠 그도 로년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몸은 늙어도 언제나 젊어있는것은 마음이고 인간
의 정신력이며 열정이다. 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에 대한 찬가, 좋은 시집을 낸 이 시인이 앞
으로도 왕성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우리 장군님
에 대한 훌륭한 송가들을 더 많이 써줄것을 기대
한다.

《보배공장》의 아침에

김해성

공장구내를 거닐며

동해에서 두둥실 떠오른 해가 은근한 미소를 짓고 드넓은 공장을 가웃이 넘보는 아침이다.

아침대기는 더없이 맑고 청신하였다.

이 아침에 나는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어오신 《삼복철강행군》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 있는 단천제련소구내길을 걷고있다. 생소한 길이 아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터전을 잡아주시니 남천강기슭에 착공의 첫 삽을 박고 제련소를 일떠세운 건설자들중의 한사람이어서 공장의 발전사를 잘 안다.

그러나 ऐसा롭게 보아오던 모든 정경이 새로운 의미로 안겨온다.

공장정문에서부터 바다쪽으로 시원하게 뻗어간 포장길이며 색보도블록크가 반듯하게 깔린 유보도... 앞이 탁 트인 큰길의 양옆에 은빛, 푸른빛 지붕들을 띄우고 덩치가 큰 생산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는데 어간어간에는 특색있는 건축미를 자랑하는 문화후생시설들이 다문다문 끼여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8월의 그 아침에 이 길을 걸으시면서 다 보셨으리, 수도의 극장들 못지 않게 멋을 피운 노동자문화회관이며 지성적인 품격을 갖춘 도서관이며 맵시도 이름도 이채로운 《제련원》(종합편의시설)이며...

하르르한 나리웃을 차려입은 어여쁜 소녀가 깜찍스럽게 웃으며 반기는듯싶은 인상을 주는 저 맥주집은 보기만 해도 신선한 맛을 풍기는데 들쭉거리며 말쑥하게 잘 생긴 《연혁소개실》앞 아늑한 공지에 자리잡은 동물사는 또 얼마나 희한한가. 지구상에서 시시각각으로 적지 않은 동식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한 오늘 산림이 아닌 이곳 공장의 마당에 삶의 보금자리를 편 사슴들과 노루, 원숭이들은 참으로 공기 좋고 일하기 좋은 일터로 전변된 단천제련소의 자랑거리가 아닐수 없다.

바로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며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정말 공장을 잘 꾸렸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것처럼 만족해하셨으리.

천지개벽이라더니 언제 이처럼 공장을 멋들어지게 꾸렸을까?...

늘 옆에서 보아오던 아이가 어느새 미남자청년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고 새삼스럽게 경탄하듯나는 황홀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유해가스의 미세한 냄새조차 없어졌으며 소음마저 땅에 잤아든듯 정가롭다. 주조장에서 은빛제품들을 가득 싣고 꼬리를 물고 달려가는 지게차들의 정경만 아니라면 목가적인 정서까지 풍길 일터이다.

상쾌한 아침공기를 들이키며 걸느라니 나는 어느 일터가 아니라 도시의 화려한 거리를 거닐고 있는듯 한 착각이 들었다.

착각일까?... 아니다. 여기는 공장구내길이라기보다 화려한 공장거리라고 표현해야 더 적중할것이다.

높고낮은 건축물들과 생산시설들이 조화롭게 늘어선 공장거리를 거니느라니 한가지 추억이 망각의 이끼를 들추며 생생히 떠오른다.

15년전에 나는 《천리마》잡지에 우리 건설기업소의 한 일군을 소개한 실화한편을 써낸적이 있었다. 그 실화에는 우리 건설기업소와 단천제련소간의 룡구경기를 그린 장면이 있다. 실지 우리 두 기업소는 서로 이웃에 자리잡고있다보니 종종 체육경기를 벌리며 승부를 다투곤 했었다. 나는 그 장면을 그리면서 우리 일군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경기마감 2초를 앞두고 두 팀이 동점을 기록했을 때 경기에 출전한 그 일군이 벼락같은 속공으로 통꼴을 넣는 바람에 우리 건설기업소가 이겼다고 썼다. 그런데 그 글이 물의를 일으킬줄이야...

《천리마》잡지에 그 실화가 나오자 단천제련소 사람들은 내 얼굴을 알건모르건 내 이름을 알건모르건 한결같이 비난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저 건설기업소에 굉장한 허풍쟁이가 있구만.》

《전국이 보는 잡지에 우리 공장을 망신시킨 필자는 도대체 뭘하는 녀석이야?》

《우리 공장의 이름을 팔아 제 뉘를 내고 한 일군에게 아침하다니...》 등등 별의별 험악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제판에는 실감을 주느라고 《단천제련소》라는 고유명사를 패자들에게 척 붙여놓았는데 나는 그 글 한편으로 이웃공장의 《죄인》으로 된셈이었다. 그때 나는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들의 비난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처구니없는 자존심》으로 흘려버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는 진심으로 이 공장 사람들에게 죄송스럽다. 나는 자기 공장의 이름과 명예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단천제련소사람들의 심정을 몰랐고 알은체 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운명이란 참 알긋기도 하다. 나는 자기가 흐려 놓은 우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으니까. 나의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단천제련소에 입직하게 된 것이다. 내가 그 말썽거리실화를 쓴 필자라는 것을 잘 아는 아들네 동력직장일꾼들은 능청스럽게 직장별 예술경연에 출연할 무대작품을 하나 써달라는 청을 나에게 들이대었다. 직장로동자들의 생활과 투쟁내용을 담은 무대작품을 써달라는 그들의 청을 나는 《빛》을 갠 심정으로 쾌히 접수했다. 군대시절부터 무대작품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있는지라 그리 어려울 것도 없었다. 그래서 한번 직장생활을 취재하는 겸 그네들의 예술적인 준비상태도 가늠해보는 겸 단천제련소에 나갔다. 직장썩클수준이야 그저 그럴겠지 하고...

그런데 웬걸, 나는 직장의 《악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별의별 악기에 별의별 재간둥이들을 갖춘 《짹짹악단》의 연기수준은 대단했다.

알고보니 단천제련소의 여러 직장들에서 이런 훌륭한 《짹짹악단》에 《비편제예술단》을 가지고 있었다. 말이 난감에 말하지만 사실 단천제련소 로동계급은 무대에 나서면 모두가 명배우요 경기장에 나서면 모두가 체육명수들이다.

오늘 아침 왜 공장구내와는 동당지 않을듯싶은 이런 추억이 불쑥 떠오르는걸까?... 그렇지, 내심 속에 꿰고있는 감정의 충동때문이지.

바로 공장의 이름과 명예를 제 얼굴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경기장에 나서면 능란하게 공을 다루고 무대에 나서면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향을 뿜어내던 손들이 이 화려한 공장거리를 일떠세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소리쳐 말하고 싶었다. 그 마음들이, 그 손들이 《우리 공장》을 세상에 보란듯이 꾸리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잘살 수 있고 제손으로 새 세기의 락원을 일떠세울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 맛이 나는 일터로 꾸려진 이 현대적인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단천제련소 로동계급의 이 불타는 지향을 읽으셨다. 그리고 이 공장 로동계급이 전국의 앞장에서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제끼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보배공장》의 보배들

나는 아연당이제품들이 더미더미 쌓여있는 주조장에 들리었다.

국호가 새겨진 아연당이제품들은 아침해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거린다.

우리 장군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던 그날 아침에도 은빛의 광채를 뿜으며 그이를 맞았으리라.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그 시각 온 마당에 가득찬 은빛광채에서 인민들의 얼굴에 넘쳐나는 행복의 웃

음을 보셨으리라.

그이께서는 새로 개건현대화된 생산공정들도 돌아보시고 아연당이제품날가리도 보아주시면서 단천제련소는 《우리 나라의 보배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날 아침해빛은 유난스럽게 반짝이며 금싸래기처럼 쏟아져 온 공장을 령롱한 빛으로 물들였다고 한다.

아닌게아니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단천제련소는 파시 《보배공장》이라고 부를만도 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거액의 자금을 돌려주시어 여러 생산공정들을 최신식으로 꾸리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설비들이며 생산제품들만이 귀한 보배여서 《보배공장》일가?...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못내 기뻐하신 배소—류산생산공정의 마당에 이르렀다. 나는 이미 몇번 이곳에 와보았지만 올 때마다 야! 하는 환희의 감탄사가 저절로 솟구치곤 한다.

풍채좋은 배소로결에 울긋불긋 칠보단장을 하고 나란히 서있는 류산공정은 마치 혼례식에 나선 새신랑, 새각시를 방불케 하는데 약간 비켜서서 둘러리를 서는 신사마냥 점잔을 빼고있는 소광싸이로까지 둘러보면 제법 장관이다. 시야에 안겨오는것은 공장의 한개 생산공정이 아니라 마치 그 무슨 과학연구센터같다. 아니 동화에 나오는 휘황한 룡궁이 땅우에 솟아오른듯싶다.

겉으로 보이는것만이 황홀경이 아니다. 이 큰 생산공정이 통채로 컴퓨터에 의한 무인조종으로 움직이고있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나는 컴퓨터조종실을 찾았다. 수많은 설비들로 이루어진 생산공정을 컴퓨터로 손금보듯 관측하며 조종하는 젊은이들의 장한 모습이 눈에 띄어 든다. 넥타이를 받쳐입은 고상한옷차림의 청년들이며 경쾌하고 맵시있는 달린옷을 차려입은 처녀들은 너나없이 미끈하게 잘생긴 선남, 선녀들이었다. 이 선남, 선녀들이 컴퓨터의 조종단추들을 척척 눌러가며 《신선놀음》으로 복잡한 생산공정을 조종하고있다니 어찌나 신비스러운지.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몇해전 단천제련소를 최첨단수준으로 개건현대화하는 공사를 떠밀어주시면서 앞으로 이 공장의 주인공들이 될 대학졸업생들을 공장에 보내주시었다. 공장에 파견되어 온 청년기사들은 모두 20대를 갓 넘긴 새파란 젊은이들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었다. 유럽의 어느 나라가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을 대주는데 막대한 돈을 요구한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돈을 달라는대로 줄테니 제발좀 대주십사 하고 빌것이라고 타산했던것 같다.

천만에, 그들은 조선청년들의 자존심과 실력을 오산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청년기사들은 불과 몇달만에 보다 훌륭한 우리 식의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개발해냈고 더 나아가 자기들의 기술과 지혜로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무인조종화를 원만히 실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컴퓨터조종실에 오시어 유럽사람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청년기사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시었다. 리성근동무를 비롯한 청년기사들이 정보산업시대의 주인공들로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장하다고,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그들을 치하해주시었다.

그렇다, 단천제련소의 천지개벽을 안아온 시대의 주인공들은 젊다. 이들이 젊으니 우리 조국은 나날이 젊어지고 공장도 젊어진다.

지금은 컴퓨터기술대학을 졸업한 청년기사들이 키워낸 애젊은 처녀들이 컴퓨터를 날렵한 손으로 조종하고있다. 능숙한 솜씨로 컴퓨터건반을 짚어가는 처녀들은 두손을 꺾싸게 날리며 피아노를 치는 연주자들을 연상시킨다. 그들이 놀리는 손끝에서 금시 귀맛좋은 음악선율이 흘러나올듯싶다. 아니 저 컴퓨터화면에 흐르는 설비들의 동작이야말로 새 세기의 《예술》, 흥겨운 노동의 노래이다.

다시 보자, 《선남》, 《선녀》들의 우아한 모습을. 이들이 바로 공장의 자랑찬 오늘을 대표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릴 공장의 창창한 래일을 약속하는 보배덩이들이 아니라.

내가 컴퓨터조종실에서 나오는데 배소로쪽에서 눈이 역실역실하고 다부지게 생긴 사람이 활달한 걸음새로 마주왔다. 그는 최신식으로 일신된 배소—류산생산공정을 지휘하는 배소직장장 안남호였다. 말도 행동거지도 씩씩한 이 40대의 일군은 노상 흥조비긴 얼굴에 열기가 이글거리는 다혈질의 사나이이다. 그는 나를 알아보자 대뜸 큰소리로 말했다.

《선생이 쓴 단편소설을 읽었습니다. 괜찮더군요.》

저런, 언제 봐야 늘 반달음쳐다니는 이 사람이 어느 째에 내 작품을 다 읽었담. 어쨌든 반가웠다. 현실주제의 소설은 잘 썼다! 라는 평가를 듣기가 험치 않다. 괜찮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그닥 섭섭치는 않다.

나는 별썬 웃어보이며 사례했다.

《감사합니다. 공장이 개건현대화되니 직장장이 소설을 읽을 시간도 있는가봅니다.》

《허허허... 소설도 읽어야지요. 사실은 문학애호가인 안해를 모시고 사는 덕에 가끔 곁에서 흠쳐보곤 합니다.》

그의 우선우선한 말을 들으니 그의 안해 리정순의 복스럽게 생긴 동그란 얼굴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한때 단천시 문학소조에 다니던 리정순

은 전도가 촉망되는 쟁쟁한 《너류시인》이었다. 그런 연고로 우리 문학소조원들은 그의 결혼식에 초청되어 새 가정을 축복하는 시도 읊어주고 진심으로 축배잔도 쥘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그들은 40대를 넘어섰다.

내 심회를 아는지 모르는지 안남호직장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일터를 마치 미술가가 자기의 창작품을 애뜻이 감상하는듯 눈을 쪼프리고바라보았다.

《내가 제련소에 배치받았을 때엔 이곳이 공기가 나쁘고 일하기 힘든 작업장이었지요. 그래서 누구도 선뜻 오기를 꺼려했구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직장 로동자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신사뎡쟁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또 하나의 선군풍경이지요.

우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이 배소—류산생산공정을 단 3년동안에 새롭게 개편시켰습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아는 사실이다. 우리 건설자들도 단천제련소 로동계급과 어깨결고 개건현대화공사를 해제켰다. 추운 겨울 혼합기에 뜨거운 증기를 짜넣으면서 몰탈을 이기고 두대의 자동차적재함을 맞붙여놓고 육중한 구조물들을 실어 한대는 전진으로, 한대는 후진으로 움직이면서 나르던 일들이 생생한 화폭으로 번져진다.

그 잇을수 없는 밤들에 공장사람들과 건설자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면서 웃고 떠드는 아낙네들 속에서 리정순을 가끔 보곤 했었지, 워낙 열정적이고 다정다감한 기질의 녀인인지라 일판에서나 노래판에서나 언제나 주역이 되곤 했어.

피땀 이런 생각이 뇌리를 친다. 리정순은 자기의 시를 종이에 아니라 지금 내앞에서 손세를 써가며 열변을 토하는 남편의 저 불같은 심장에 쪼아박지 않았을까? 그리고 잉크가 아니라 땀방울을 들고 뛰어다니며 콩크리타입물에 뿌린 땀방울로, 새 설비들을 조립하던 남정들의 손에 끼워주던 흰 장갑들로 시대와 함께 맥박치는 시구절들을 엮지 않았을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의 걸음걸음에 발을 맞추자는, 시대의 선군자로 살자는 절절한 녀원이 글이 아니라 실천적인 형상으로 이루어진 시들을 뽐냈듯 낱았으리.

그래, 리정순은 결코 시를 버리지 않았다. 시대의 첨단에 우뚝 나선 이 안남호직장장이야말로 성공하지 못한 《너류시인》 리정순의 진짜 성공작이며 필생의 걸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내 마음은 즐거웠다. 그러고 보니 이들부부는 또 얼마나 마음도 일손도 여무진 공장의 보배덩이들인가!

그렇구나. 일손이 보배라는 말이있듯이 공장의 최신설비들이며 생산제품들이며 어느것 하나 소

홀히 여길수 없는 보배들이지만 먼저 꼽아야 할 보배는 이 공장 사람들이었다. 새 세기에 강성대국의 해돋이를 남먼저 마중하며 줄달음치는 이들의 열정과 일본새는 그 무엇을 주고도 살수 없는 보배중의 보배였다. 바로 그 열정, 그 일본새를 무엇보다 미덥게, 귀중하게 여기셨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살며 일하는 단천제련소를 《우리 나라의 보배공장》이라고 높이 불러 주신것이라.

탑이 솟았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장소인 배소로굴뚝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높이가 백여미터나 되는 굴뚝은 하늘을 꿰치며 거연히 서있다. 아스라하게 쳐다보이는 이 굴뚝은 저 멀리 바다의 수평선상에서도 잘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항해하는 배들은 이 굴뚝을 표적으로 삼고 단천땅을 쉽게 가려본다.

이 굴뚝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져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여기 남천강기슭의 모래벌에 자리잡은 제련소건설장에 찾아오시였을 때 신설될 공장의 사판을 보여주시면서 공해현상이 있을세라 배소로굴뚝의 높이를 원래설계보다 훨씬 높게 정해주셨다.

높이가 백여미터이면 우리 나라에서 드물게 높은 굴뚝이다. 배소공정이 최신설비로 현대화된 지금은 연기가 나가는것을 볼수 없는 빈 굴뚝이다. 하지만 이 굴뚝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하늘처럼 떠받드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을 길이 전하는 탑마냥 어제든 오늘도 사시장철 거연히 서 있다.

그날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배소—류산생산공정에서 가스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무척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윽고 배소로 굴뚝에 시선을 옮기시며 저 높은 굴뚝을 어떻게 쌓았는가고 느닷없이 물으시였다.

공장지배인이 자끼로 철판휘틀을 떠올리면서 미끄럼식타입공법으로 쌓았다고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몸소 강력한 건설력량과 자제도 우선적으로 보내주시면서 단천제련소건설을 추진시켜나가시던 나날들을 감회깊게 돌이켜보셨는지...

그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면 하는 청을 말씀올리였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청을 쾌히 받아주시면서 무엇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으면 좋겠는가고 무렵없이 물으시였다.

공장일군이 제격 아연덩이제품더미를 가리켜드리자 그이께서는 머리를 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진은 배경이 좋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을

다름아닌 배소로굴뚝앞에 나란히 세워주시고 자신께서도 그들속에 들어서시였다. 이리하여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연기 한점 볼수 없는 배소로굴뚝을 배경으로 두번씩이나 사진을 찍게 되였다.

영원히 공해를 모르는 조국산천—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지상락원을 가꾸시려고 평생을 기울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리상이 현실로 꽃핀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연기없는 굴뚝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하지만 가슴 벅찬 그 시각에 일군들은 그의 깊은 심중을 미처 헤아릴수 없었다.

나는 이 무딘 펜으로 현명한 독자들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다. 다만 한마디만 덧붙여 말하고 싶다.

우리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배소로굴뚝을 기념탑처럼 화폭의 중심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으신 그 시각 이 영광의 자리에 수자로써는 높이를 잴수 없는 충정의 탑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는것을...

그것은 보이지 않는 탑이였다. 하지만 단천제련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모두의 마음속에 우뚝 솟아오른 탑이였다.

그날의 아침시간은 짧았던가

우리 장군님께서 쏘아지는 피약별을 맞으시며 범람하는 홍수를 헤치시며 쉬임없이 이어가시던 《삼복철강행군》의 그날에 단천제련소를 찾으셨던 아침시간은 짧았다. 애오라지 우리 장군님 오실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공장의 안팎을 공원처럼 꾸려온 단천제련소사람들에게는 우리 장군님을 모시였던 행운의 아침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였다.

하지만 그날의 아침시간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공업시험소 기사 엄동진아바이는 우리 장군님께서 큰 관심을 돌리시며 보아주신 내산뽑프를 만들어낸 기술자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머리가 새하얗게 세였으나 어린이처럼 순진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마음의 문을 허물없이 열어보이였다.

《그날 아침에 나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그렇다. 사람들은 그날부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듯 새삼스럽게 대했고 우리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린 애국자로, 선군시대 공로자라는 선망의 눈길로 보면서 저저마다 인사를 했다.

그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도 한생을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기쁨을 느껴보지요. 솔직히 말하면 난 늘그막에 사는 맛, 일하는 맛이 얼마나 단맛인지 비로소 알았

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날 아침에 나에게 인생의 보람을 안겨주셨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연혁소개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이 닿은 내산뿔프를 보았다.

사람은 끊임없이 박동치는 심장의 《뿔프질》에 의해 온몸의 피가 순환하면서 살아간다. 단천제련소도 피줄처럼 열기설기 뻗어간 수많은 배관들에 흐르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해야 돌아갈수 있다. 이 《혈액》순환은 생산공정의 요소마다에 배치되어있는 내산뿔프들의 작용에 의해 보장된다. 그런데 그 《혈액》은 특수합금강도 견디지 못하는 산물질로 이루어져있어 특수재질로 만드는 내산뿔프들도 부단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며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때에 내산뿔프들을 사온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공장을 가동시키는 《심장》의 역할을 하는 내산뿔프를 자체로 만드는가 못 만드는가 하는것은 공장의 운명을 건 판가리결사전으로 되었다.

그 시기 단천제련소에는 금속재료공학전문가가 없었다. 엄동진기사만 놓고보아도 유색야금공학을 전공한 기술자로서 생소한 분야의 《땅》을 두지며 탐구의 시추를 해야 했다.

그러나 절박한 필요성은 가능성을 낳았다. 전국의 판도를 뛰어다니며 때로는 몇끼씩 굶기도 하고 때로는 역기다림칸에서 선잠을 자기도 했으나 그들에게는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었다.

견인불발의 의지와 노력은 기적을 낳았다. 그들은 불과 짧은 기간에 한대당 원가를 5분의 1로 줄이면서도 성능과 수명이 수입제보다 못지 않는 내산뿔프를 제힘으로 광광 만들어낼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연혁소개실》에 진렬된 내산뿔프를 눈여겨보시면서 일군들이 올리는 보고를 들으시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비록 크지 않은 창조물이지만 제손으로 만들어 원썬들의 경제봉쇄의 사슬을 여지없이 동강낸 내산뿔프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쓰다듬으시면서 이 공장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날 아침 우리 장군님께서 그닥 요란하지도 않는 자그마한 내산뿔프에서 무엇을 보셨던가.

그이께서는 그 하나의 설비에서 오직 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이 공장의 역사를 읽으시였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그 역사를 빛나게 장식해주시였다.

역사는 결코 흘러온 시간과 날들의 모임이 아니다. 역사는 인간생활의 회로에락이 깃들고 피와 땀으로 쌓아진 창조와 투쟁의 난가리이다.

단천제련소는 조업한지 20년밖에 안된다. 시간적으로 보면 역사가 길다고 할수 없는 공장이다. 그래서인지 전국에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 이 공장은 일약 《새 세기의 멋쟁이공장》으로 유명해졌다. 그날 아침부터 엄동진아바이만이 아닌 이 공장 사람들모두의 어깨가 으쓱해졌다. 단천시민들은 너나없이 때가 된 자식들을 단천제련소에 넣는것이 큰 소원으로 되었다.

전국이 알고 부러워하는 일터로 된 단천제련소!

이 공장 사람들에게 사는 맛, 일하는 맛을 새롭게 안겨주시고 공장의 역사를 빛내여주신 우리 장군님의 은정이 뜨겁게 흐른 그날의 아침시간을 어찌 짧다고 하랴.

문득 한 시인이 쓴 서정시 《아침보도는 짧았다》가 생각난다. 우리 장군님의 전선시찰소식을 전하는 아침보도는 짧았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충격과 감동의 여운은 길었다.

옳다. 우리 장군님께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또다시 공장을 떠나 강행군의 길에 오르시였으나 그이의 거룩한 모습과 따뜻한 자취는 이 공장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았다. 그이는 오늘도 단천제련소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며 기대도 함께 돌리시고 컴퓨터단추도 함께 누르신다.

그날의 아침시간은 짧았으나 그이께서 남기신 역사의 자욱은 기나긴 세월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리. 그날의 아침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새 출발의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쪼개시며 단천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신 그날 공장에 강령적인 지침으로 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 가르치심은 불과 몇마디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길지 않은 그 가르치심은 단발로 목표를 때린것처럼 시원스럽게 공장의 파업을 밝힌 명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날 호탕한 어조로 공장이 멋진 양복을 차려입었는데 아직은 그에 어울리게 속옷을 갖추지 못했다고, 미진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완비하여 속옷도 좋은것으로 갖추어입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얼마나 통속적이고 해학적이면서도 그 뜻이 단번에 머리에 쑥 들어오는 명쾌한 말씀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복철강행군》의 기간에 함경남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이런 주옥같은 명언들을 남기시였다.

나는 한평생 언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소설가이다. 퍼내고 또 퍼내도 끝이 없는 무진장한 언어의 바다에서 구슬같은 어휘들을 캐내어 제나름으로 엮는 사람이다. 구슬도 껍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제판에 자기가 엮은 《구슬껍미》를 놓고 못해하기도 한다.

나는 문학의 바탕인 조선말을 사랑한다. 아니, 사랑한다고 자처해왔다. 어떤 때는 원고지에 글을 쓰다가 구슬같은 어휘 하나가 버리기 아까워서 그것을 살리려고 쓸데없는 덧붙이인줄 알면서도 일부러 한문장을 더 만들어넣기도 한다. 그래서 종종 어휘를 탄발한다느니, 탄력이 없이 문장들을 늘어놓았다느니 하는 질책을 받고 애써 찾은 《구슬》들을 알찌근한 심정으로 속아버리면서 한숨을 쉬기도 한다. 하지만 문장의 묘미는 그 어떤 현란하고 별다른 어휘를 쓰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늘 쓰는 《수수한》 어휘를 제자리에 넣고 안성맞춤으로 적절하게 써먹는데 있지 않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복철강행군》의 길에서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투쟁으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나날에 인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고유하고 통속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말을 보다 세련시키고 풍부화하는데서도 산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한마디로 《수수한》 언어들에 빛을 주시여 아름다운 《구슬》로 만들어주시였다.

나는 그이께서 남기신 값진 명언들을 통해서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분, 더없이 소탈하시고 친근하신 절세의 위인의 풍모를 감득할수 있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진다. 나의 어휘수첩에는 《속웃》이라는 말조차 올라있지 않다. 아마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범속한 어휘여서 《구슬창고》에 보관해둘 가치가 없다고 여겼는지...

그러나 소박한 어휘가 적중하게 씌여졌을 때 얼마나 생신하고 깊은 뜻을 담게 되는지 우리 장군님께서 나에게 일깨워주신것만 같다. 미묘한 일치로 지난해 8월에 나는 《조선문학》지면에 단편소설을 하나 발표했다. 그 작품에는 《새 기술의 <웃>을 차려입은 멋쟁이로》라는 표현이 있다. 그 표현을 좀 더 심화시켜 《겉차림만 번지르르하고 <속웃>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멋쟁이로》라는 대사를 한마디 넣었으면 성격이 보다 뚜렷해지고 생활적인 의미도 깊어졌으련만. ...

우리 장군님께서 단천제련소에 주신 가르치심을 접하고나서야 깨닫게 된 자기이다. 《속웃》이라는 낱말을 쓸줄도 몰랐거니와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나였으니까. 이런 내가 과연 고유한 우리말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요긴하게 써먹었으랴. 부끄럽다.

지난해 발표한 작품을 보아도 제목은 요란한데 비해 내용은 별로 깊지 못하다는것을 자책하게 된다. 특 짝어 말해서 겉차림은 화려한데 형상의 《속웃》은 그에 어울리게 갖추어입지 못한 작품이다.

나는 단천땅에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을 더듬는 이 아침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는 작가로서의 자기를 다시금

질감한다. 자기를 인식한다는것은 도약의 출발점이다.

단천제련소 로동계급은 오늘도 우리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현지지도의 아침에 주신 가르치심을 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섰다. 미진된 생산공정들의 개건현대화가 다그쳐지고 새 가공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추진되고있다.

나는 더 높이, 더 빨리 치달아오르기 위해 분발하는 이 공장 사람들과 더불어 달리기로 결심한다.

차림새도 속옷도 완전무결하게 갖추어진 공장을!— 이것이 단천제련소 로동계급의 목표이다.

형식도 내용도 새맛이 나면서 형상이 기름진 작품을!— 이것이 내가 자기앞에 내세운 과제이다.

일맥상통한 과제를 안고 나는 이 공장 사람들의 일손에서 느껴지는 시대의 맥박에 자기의 심장을 맞춘다.

단천땅에 해돋이를 안아온 8월의 아침은 단천제련소 로동계급과 더불어 나에게도 새 출발의 아침으로 되였다.

어느덧 해는 높이 떠올랐다. 찬란한 금빛해살은 온 누리가 비좁도록 넘쳐흐른다

벽시

증기는 넘려말라

주명옥

이글거리는 보이라화실앞에 섰어도
얼마나 넓은 전투구역 내 안고있는가
피줄처럼 뻗어간 배관을 따라
무수하게 치솟은 반응탑과 합성탑들
그속에서 무르익는 화학제품들
모두 내 안아내는듯

총공격전의 하루하루
열정높이 내닫는 비날론로동계급
높뛰는 우리 심장 우리 숨결처럼 가열된 증기
50년대 싸우는 고지의
그 탄약공급수마냥 보내고 또 보내는
열관리공 내가 있는 한
증기, 증기는 넘려말라

사랑의 우산밑에는

김송남

찌는듯 한 무더위
쏟아지는 장마비
그 모두 뚫고 헤치신 우리 장군님
《삼복철강행군》의 길고긴 그 로정우에는
가슴뜨거운 이야기 얼마나 많았더냐

아버이장군님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몸소 찾으셨던 날
대줄기처럼 내리던 그 비발속에는
력사에 길이 전할 사연이 있어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적시누나

형타마다 쏟아져내리는
색갈고운 장화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실 때
인민생활이 활짝 꽃피어나는 현실을 안아보시며
환하신 미소를 작업장에 남기시고
현장을 나서실 때에도
비줄기는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데

안내해드리던
영예군인 한 일군을
자신의 우산밑으로 끌어당기시어
몸소 껴안고 견고걸으신
구내의 물탕길 사정없는 물탕길...
하여도 그냥그냥 환히 웃으시며
영예군인이 비를 맞아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는 그 말씀이 더욱 뜨거워
우산밑에서도 쏟아져내린것은

눈물의 뜨거운 소나기 아니던가
비는 여전히 억수로 퍼붓고
아버이장군님 곁에서 걷는
영예군인일군의 걸음발우엔
눈물에 섞이어 뜨거워진 비물이
무겁게 무겁게 발목을 휘감는데

태양과도 같으신 사랑의 그 체온을
온몸으로 받아안으며
목메이는 일군의 가슴속에선
하늘의 천둥우뢰소리보다
더 높이 울리는 말이 있었다
—아버이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의 전설이여
선군시대가 펼친
《삼복철강행군》의
위대한 화폭이여

아 우리 장군님 그날에 펼쳐드셨던
사랑의 우산밑에는
한 영예군인일군만이 아닌
오직 한분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복받은 인민이 걷고있었다
위대한 내 조국이 다 안겨있었다

내 언제나 이 계절을 안고살리라

최윤철

삼복철 여느해나 다름없이
즐겁게 기다려온 이 계절에
나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바다, 백사장, 해수욕!...
하루일의 기쁨안고 거닐던 그밤
오는 일요일 해수욕을 떠나자는
정깊은 편인의 그 목소리

내 마음을 바다가로 이끌어갈때
생각이나 했던가

삼복철
우리 일군들의 출퇴근시간도
새로 제정해주시고
더울세라 일과도 새로 짜주신 계절에

아버이장군님
인민의 유원지를 더 잘 꾸리자고
마천유원지를 찾아오실줄

내 백사장을 밟으며
늪실대는 흰 파도에 안기여
행복의 물보라를 뿌려갈적에
진정 생각이나 했던가

우리 장군님 무더위속에 땀흘리시며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주신 이곳으로
명절날 휴식일날 가족들과 함께 올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 그려보신줄

사랑의 바다에 몸잠그고
해수욕이 전부인줄 알았던 우리에게
해양감시대며 조약대, 봉사시설도...

불편으로 느끼지도 못했던
작은 오솔길 하나에 이르기까지
행복이 되라고 추억이 되라고
그처럼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

내 한점의 그늘이라도 되어
뜨거운 불볕을 막아드렸다면
내 한줄기 바람결이 되어
흐르는 그 땀방울 식혀드렸다면
이처럼 죄스러움에 가슴치지 않으련만...

아 눈도 비도 불구름까지도
다 막아주시던 그 사랑으로
무더위마저 가려주신
아버이장군님 강행군길 수놓인 계절이어서
이 작은 심장 뜨겁게 달구며
내 한생 언제나 이 계절에 살리라

아들의 노래

리 영

내 어린시절의 애명도 기억하는
정깊은 이웃들이 추녀를 잇대고 사는 땅
혈육같이 다정하고
허물없는 마음들이 곡식을 가꾸는 땅

고향아
전야의 푸른 들 어느 이랑에도
나의 손길이 쓰다듬지 않은 땅 없고
진심을 묻으며
마음속 말도 터놓던 땅아

이제는 너를 떠나 멀리 있어도
울챙이 바글대던 물도랑이 가끔 그리워
청개구리 뽕박질하던 너의 남새밭이 보고싶어
불쑥불쑥 못견디게 가고싶은 마음
달랠길 없더라

가슴속 지닌 량심을
푸르름으로 보여주는 거짓 모르는 땅아
너는 나에게 가르쳐주었다
이 땅에 사랑을 묻고 땀을 뿌리는 법을!

조국앞에 이삭이 되어 고개속이는 법을!

너는 안일을 경멸하였기에
내 김매던 강냉이밭엔 잡풀이 돌아날새 없었지
너는 성실만을 받아들였기에
내 후치질하던 이랑에선
무우며 쑥갓들이 잘도 자랐지

아 내 바친 근면한 땀으로
어느때나 가슴에 후련히 안아볼수 있는 땅아
너를 떠나 살아도
향토의 사랑 식을가보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나를 자각케하는 고마운 땅아

내 운명
네 품에 영원히 뿌리 두고있기에
고향아
너는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마르지 않는 조국애의 맑은 샘을 부어주고있구
나

나의 눈가에 어려오는것은 (외 1 편)

서진명

쉽없이 올리는
책상우의 전화기들
드바쁜 지배인방에서
나는 들었네
기업소의 생산타산안에 깃들어있는
가슴뜨거운 이야기

비날론공장일로 늘 마음쓰시는
장군님께 한해전에 올려보낸
그 생산타산안을 설명해드리면서도
지배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네
우리 장군님께서
한 기업소의 생산전반에 대해
그리도 환히 꿰뚫고 계시는줄

이 타산안이 내 책상우에도 있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 보고있다시는
그 말씀 마디마디 새겨들으며
지배인은 심장으로 절감하였다네

타산안에 적혀있는 하나하나의 제품에서
나날이 더 꽃피날 인민의 행복 그려보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후덥게 달아오른
나의 눈가엔 어려왔네
여기 지배인방만이 아닌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이 지켜지고
나라의 중대사들이 토의되는
당중앙위원회
그이의 집무실에도 놓여있는 그 생산타산안이

나도 몰래 젖어드는 눈가에
뜨겁게 어려왔네
그이의 책상우에 놓여있을
그 생산타산안
그것은 우리 장군님 시간속에서
가장 중대하고 귀중한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의 설계도처럼

비날론구내길을 걸으며

길은 분명 전날에 건넌 그 길이어도
한걸음도 무심히 내디딜수 없구나
배관들을 따라 증기며 가스가 흐르는 소리
전변의 노래가락처럼 가슴에 젖어들어

멀리 가까이 솟아있는 집과 반응탑들도
내 눈길 붙잡고 놓지를 않누나
건물도 창문들이 밝게 웃는 멋쟁이 새 건물
탑들도 첨단기술로 장비된 번쩍이는 새탑

인민생활제일주의를 높이 든 올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이 해를 더욱 흥성이게 하며
증산의 열기로 달아오른 일터들에서
쉽없이 쏟아지는 제품들

개건전투의 불바람속에 태어난
현대화된 새 직장들에서
새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며
이 가슴 왜 그리 설레었던가

아 새날의 첫 해살이 구내길에 퍼지던

이른아침부터 걸은 나의 취재길
감빛저녁노을이 피어나는 저물녘에도
미처 다 끝내지 못한 곳

해종일 취재길 걷고걸었어도
피로를 미처 느낄새가 없구나
오히려 힘이 솟고
걸음걸음 받는 충격이 너무도 커
꽃피는 인민의 기쁨 안아보며
새로운 신심이 생기누나

해빛밝은 한낮을 한밤으로 이으며
그저 내치 걷고만싶구나
우리 장군님 높은 뜻 받들어
끝없이 타오르는 개건전투의 불바람속에
새 모습을 드러내고있는 하많은 직장들
거기서 이제 또 쏟아져내릴
갓가지 새 제품들을 보며
인민의 행복넘친 나날들이
울렁이는 이 가슴에 뜨겁게 안겨와...



리기창

△때: 현재

△곳: 어느 도시에서

△나오는 사람들

석민: 대학교수

정길: 대학생

은하: 연구사(석민의 딸)

순절: 석민의 아내

△무대: 석민교수의 집, 넓은 응접실, 원탁우에 전화기와 보온병, 팔걸이의자와 옷걸이, 푸른 참대화분이 규모있게 놓여있다. 정면창문을 통해 도시의 일각이 보인다. 오른쪽은 바깥나들문, 왼쪽엔 서재와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막이 열리면 순절 참대화분에 물을 주고있다.

△초인종소리와 함께 가방을 든 석민 들어온다.

순절:(가방을 받아놓으며) 오늘은 어떻게 일찌기 오시우?

석민: 여보, 출장준비 좀 해주오. (보의투를 벗어 옷걸이에 건다.)

순절: 또 지방대학에 초빙강의를 가시우?

석민: 겸사해서 은하한테 가봐야겠소.

순절: 갑자기 그애한테 왜요?

석민: 글썄 은하가 학위논문완성을 위한 실험을 하다가 폭발사고를 냈다나보오.

순절: 뭐라고요? 많이 다쳤대요?

석민: 그건 아직 모르겠소만...

순절: 어이쿠. (의자에 주저앉으며) 그래서 요즘 편지 한장 없었구려. 금이야 옥이야 키운 외동딸을 어찌면... 나도 함께 가봐야겠수다.

△이때 초인종소리, 뒤이어 은하 들어온다.

은하: 아버지, 어머니!

순절: 아이구나, 범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은하야!

석민: 아니, 네가 어떻게?!

순절: 어딜 상했느냐? (은하의 몸을 어루만진

다.)

은하: 다행히 두 폭발하는 순간 졸업실습을 왔던 대학생청년이 막아나서서 무사했어요.

석민, 순절: (놀라며) 저런...

은하: 그 동무가 아니었다라면 전, 전...

순절: 정말 네 생명의 은인이냐 다름없는 청년이로구나.

석민: 어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냐?

은하: 함흥화학공업대학 졸업반이래요.

석민: 그럼 얼마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현지도하신 대학이로구나!

은하: 옳아요. 그런데 그 동문 눈을 상했어요.

순절: 저런 두눈을 다 상했느냐?

은하: 도인민병원 안과에 입원해서 한쪽눈은 치료받고 회복했는데 다른쪽눈은 아직도...

석민: 정말 안됐구나. 내 이번 출장길에 그 동물 꼭 찾아보겠다.

은하: 아버지, 고마와요. 그런데 이 논문을 한번 봐주겠어요? 사실은 이 논문때문에 왔어요. (가방에서 논문원고를 꺼내준다.)

석민: (논문을 받아보며) 《우리의 원료로 합성한 새로운 칠감제조》?!... 아니, 이건 내가 쓰던 학위논문제목과 약간 달라진것 같구나.

은하: 그 리유는 논문을 보신 다음에 말씀드릴테니 어서 좀 봐주세요.

석민: 지급?

은하: 그러므로요. 논문을 가지고 당장 내려가야 해요.

순절: 오래간만에 부탁하는건데 잘 봐주시구려.

은하: 아버지, 어서요. (그의 등을 떠민다.)

석민: 그래 읽어보자. (논문을 번져보며 서재로 들어간다.)

순절: 은하야, 그럼 네가 쓰던건 버리구 새로 썼느냐?

은하: 어머니, 사실은 제 논문이 아니예요.

순절: 그럼?

은하:그 대학생동무의 졸업논문이예요.

손절:뭐라구?!

은하:눈을 상한채 입원한 그 동문 졸업론문을 이달중으로 제출해야했기에 그냥 쓰다가 의사선생한테 빼앗긴걸 제가 그 동무 몰래 의사선생에게 사정해서 가져왔지요 뭐.

손절:그러니 네가 그걸 대신 가필해주었다는거냐?

은하:마침 제것과 비슷한 대목들이 있길래 보충했어요.

손절:(은하의 어깨를 만져주며) 장하다, 장해. 네가야 다시 새로 쓰면 되지만 그 청년이야 당장 졸업을 해야겠으니 인간도리로 봐두 네가 그의 앞날을 생각해줘야지.

은하:그래서 저도 능력껏 돕자는거지요 뭐.

손절: 아무렴, 헌데 아버지가 동의하시겠는지?...

은하:왜요? 아버지가 제 부탁이라면 언제한번 안 들어주신적이 있어요? 내가 학교에 다닐 땐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학부형회의에 꼭꼭 참가하셨구, 색다른 음식이나 옷감이 생겨도 저한테 주시지 않았나요.

손절:아버진 그런 인정미는 있지만 대학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겐 너무 박정한것 같더라.

은하:(의아해하며)그건 무슨 소리예요?

손절:몇년전에 아버지가 새 촉매제연구에 쓸 광석을 채취하러 마천령에 가신적이 있지?

은하:네, 생각나요. 박사론문을 제출한 다음에...

손절:오냐. 그때 아버진 깊은 산중에 들어가있더니 대학에서 아무 날까지 도착하라는 전보를 뒤늦게야 받았다는나.

은하:그래서요? (호기심에 끌려 그의 곁에 앉는다.)

손절:아버지가 허둥지둥 산간역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금골—평양행차표판맨 끝났구 손님들이 역홈으로 나가더라는구나. 그 차를 놓치면 논문심의에 참가 못할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 그런데 다행히두 한 청년이 안타까와하는 아버질 보자 망설이던 끝에 자기 차표를 주더라는나.

은하:정말 고마운 사람을 만나셨군요.

손절:아무렴, 그 사람때문에 아버진 제때에 도착해서 경제적실리가 큰 논문을 심의받았지. 헌데 그 다음날인지 아버지가 시험관으로 대학입학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글썽한 수험생이 제힘으로 시험문제를 풀기 힘들었던지 아버지를 보고 좀 도와주었으면 하더라는나. 그래 아버지가 주의를 주자 그 수험생은 고개를 푹 숙인채 한 글자도 못쓰고 그냥 앉아만 있더라.

은하:어쩌면...

손절:시험이 끝난 후에 그 학생을 만난 아버진 과학탐구의 첫 관문이나 다름없는 입학시험때부터 남의 지식을 빌어 입학했잖아 앞날에 과연 독자적으로 제구실을 할 과학자가 될수 있겠느냐고, 자기의 실력으로 나라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할 참

다운 과학자가 되려거든 공부를 착실히 해가지구 다음해에 다시 오라구 했다는나. 헌데 그가 고개를 떨군채 시험장에서 나갈 때야 차표를 양보했던 그 청년이라는걸 알아보았다는나.

은하:어마나, 그런줄도 모르구 아버지진...

그 동문 속으로 아버지질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아버지한테 차표를 양보하고 대학에 뒤늦게 도착하다보니 시험준비 설칠수도 있었을텐데 어쩌면...

손절:하여간 아버지의 가슴도 알찌곤했길래 그 후 그 청년한테 편지랑 참고서적이랑 보냈을테지. 허나 그후에 그 청년은 다시 오지 않았다는나.

은하:이제 보니 아버지진 너무 가혹했군요. 그러니까 아버지진(화분의 참대나무를 가리키며) 꽃도 향기도 없이 그저 꽃꽂한 참대나무를 제일 좋아하시나보지요?

석민:(론문을 들고 서재에서 나오다가) 아니, 뭐 내가 참대처럼 어떻다구?

은하:(당황해서) 어마나, 아니예요. 아버지, 논문이 어때요?

손절:여보, 당신이 손질을 좀 안해도 될것 같수?

석민:《삼복철강행군》을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 생산한 새형의 기계설비를 보시고 성능이 매우 좋다고 하시며 이제 질 좋은 도색만 잘하면 다른 나라것보다 월등할것이라고 가르치셨는데 바로 그 도색문제를 택했던 말이요.

은하:(기뻐하며) 그렇지요. 아버지!

석민:헌데 아직 학위논문으로서의 학술적론증이 부족한것 같다.

은하:그래서 교수박사인 아버지의 도움을 좀 받아는거지요 뭐.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간청한다.)

석민:(웃으며) 연구사인 네가 이 아버지의 손을 빌어 학위론문을 미끈하게 완성해서 학위를 받겠다는건 아닐테지?...

은하:네?!...

석민:네 머리로 좀 더 심사숙고해보거라. (론문을 원탁우에 놓는다.)

은하:아버지, 사실은...

석민:(그의 말을 끊으며) 혹시 이번 실패에 기가 꺾인게 아니냐?... 실패란 성공의 열쇠라고 하지 않느냐!

은하:아버지, 하지만...

석민:그러지 않아도 요즘 자기 실력이 아니라 남의 손을 빌어 좀 어쩌보려는 젊은이들이 더러 있다더니만... 너까지?...

은하:아버진, 아버지... 어쩌면 이 딸을... (설음을 삼킨다.)

손절:여보, 그 논문은 은하의것이 아니라우.

석민:아니라는건?... (몹시 놀란다.)

손절:은하를 구원해준 그 대학생의 졸업논문이라우.

석민:(더욱 놀라며) 뭐라구?!

순절:그러니 당신이 좀 도와주시구려. 아니, 네 정신 봐라. 밥이 타는구나. (부엌으로 들어간다.)

석민:은하야! (부드러운 어조로) 그러니 그 청년의 대학졸업론문을 위해 네가 쓰던 학위론문의 자료까지 여기에 보냈단 말이지.

은하:제것 같으면 아버지한테 부탁하겠어요? 그 동문 이달중으로 논문을 통과시켜야 졸업증을 받기때문에 글썽 그런 몸으로 의사선생님 몰래 논문을 쓰다가 빼앗겼어요.

석민:응?!...

은하:제가 의사선생한테 겨우 사정해서 논문을 찾아가지고 오면서 보니 그 동문 안대를 낀채 다시 새로 논문초고를 쓰느라 신고하고있질 않겠어요.

석민:(감동에 젖어)새로 다시 쓰려고 말이지...

은하:네, 그모습을 보고야 차마 어떻게...

석민:(창문가로 다가가 먼 하늘가를 바라보다가 저어기 걸린 목소리로) 은하야, 나는 그 대학생의 진지한 학구적태도에 대해 듣고보니 네가 수정보충한 이 논문을 서둘러 취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은하:그렇다구 우리로서 어떻게 그냥 있겠나요?

석민:졸업론문이란 대학기간에 터득한 지식의 총화이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 과학기술적과제를 독자적으로 능히 수행할수 있다는 자격여부를 검증받는게 아니냐.

은하:물론 그래요.

석민: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남이 대신 써준단 말이나?

은하:하지만 그 동무의 경우야 다르지 않아요.

저를 돕다가 눈까지 상한 처지인데.

석민:그렇다면 그건 남을 위해 희생성을 발휘했다는 선군시대의 미풍문제이지 결코 그의 학문적실력의 높이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은하:(설움에 차서) 그러니 아버지...알만 해요. 아버지의 심장속엔 인정도 피도 없이 뿔뿔한 리성만이 이 꽃꽂한 참대처럼 뿌리박고있는 모양이지요?

석민:(소탈하게 웃으며) 뭐 참대처럼, 허허...

최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구 강성대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야 할 새 세대는 결코 그 누구의 값싼 동정이나 무른 인정의 대가로 자라나는것이 아니야.

은하:이제 보니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질 도와주느라고 뒤늦게 대학입학시험장에 왔던 한 수험생의 도움요구를 그처럼 무정하게 거절했군요?

석민:(흠칫 몸을 떨며) 뭐, 수험생을?!...

은하:그런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방조를 받자던 제가 천진했어요.

석민:(마음을 다잡으며) 은하야, 진정해라. 그게 진심으로 도와주는게 아니다.

은하:그럼 졸업논문때문에 애쓰는 그 동무를

보고도 모르는척 외면하는것이 진정으로 도와주는건가요?

석민:그만해라. 내가 그 청년한테로 가겠다. 가서 논문의 부족점들을 말해주고 그 해결방도를 함께 찾아봐야겠다.

은하:아버지, 내가 이 논문을 가져온건 아버지가 다른 대학생들한테 하듯이 그런 조언이나 주고 논문지도나 해주는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서 완성시켜달라는거예요.

아버지, 그 동문 지금 논문을 쓸수 없는 몸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논문은 이달중으로 발표해야 하거든요.

석민:나도 너의 그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다. 허나 그렇게 남이 직접 논문을 써주는것이 그의 정신적부담을 덜어주고 앞날을 담보해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미칠수 있다는걸 생각해보았느냐?

은하:좋아요. 아버지가 정 해주실수 없다면 전 이대로라도 가져다주겠어요. (논문원고를 들고 흐느끼며 서재로 총총히 들어간다.)

석민:은하야... (허쳐거리다가 참대나무를 어루쓸어만지며 모대긴다.)

순절:(부엌에서 나와보다가) 여보, 그러시지 말구 다시 좀 생각해보시구려. 예? 여보...

석민:(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은하가 논문을 대신 완성해주시기보다 그 대학생을 위해 자기의 눈을 바치겠다면 오히려 만류하지 않았을거요.

순절:(꺾쩍 뉘듯) 아니, 뭐 눈을요?

석민:그렇소.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랬다구 내 지난날을 돌이켜봐두 원칙성과 요구성을 높여서 키운 제자들은 사회에 나가 체구실을 하더라만 더러 인정에 못이겨 얼렁뚱땅 졸업이나 시켜 내보낸 제자들은 레외없이 대학졸업증을 내흔들며 편안한 일자릴 찾아가거나 이렇다할 기술혁신 한건도 내놓지 못한채 절령절령 살아가더라 말ियो. 우리 공화국에 대한 놈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구있는 조건에서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의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할수 있겠소?...

순절:그건 옳수다. 하지만 우리 은하를 구원하다가 눈까지 상한 그 청년의 앞날이야 누가 생각해주겠수. 그러니 당신이 좀 도와주시구려.

석민:(잠시 생각하다가 넥타이매듭을 늦추며) 여보, 물 좀 주오.

순절:(보온병에서 물을 따르려다가 물이 없자) 잠깐 기다리시우. (보온병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석민:(무엇을 결심한듯 원탁우에서 전화번호책을 뒤져보고 전화번호단추를 누른다. 다음 송수화기를 들며) 안녕하십니까. 도인민병원 안과입니까? 제 XX대학교원 석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눈에 화상을 입고 입원한 대학생의 눈상태가 어떤지 해서 전화를 겁니다. 예?... 한쪽눈은 각막이식수술을 해야지 영원히 앞을

볼수 없을거라구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예... 그래서 전문안과병원으로 후송했던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송수화기를 맥없이 놓고 거닐다가 혼자소리로 되뇌인다.) 각막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영 앞을 볼수 없단 말이 지?!... (무겁게 한숨을 쉬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한다.)

순절:(보온병을 들고 나오다가) 어딜 가시려우?

석민:(지나가는 말처럼) 내 그 대학생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소. (황황히 나간다.)

순절:아니, 그럼 혹시 논문을 도와주시려나? 그러면 그렇지...

△은하 가방을 들고 서재에서 나온다.

순절:아니 야, 넌 또 어딜 가려느냐?

은하:아버지의 도움을 못 받을바엔 있어서 뭘 하겠어요.

순절:걱정말아. 이제 아버지가 도와주실게다.

은하:도와줄게 뭐예요.

순절:방금 내가 간청했더니 마음이 동했는지 그쪽에다 알아보겠다고 나가셨다.

은하:(기뻐하며) 그래요?

순절:글쎄 마음을 놓으라니까. (가방을 빼앗아 놓는다.)

△이때 초인종소리 울린다.

순절:누가 왔나?

은하:글쎄요. ... (문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며) 어머니, 그 대학생동무가 왔어요.

순절:뭐, 뭐라구?

△이윽고 대학생복차림에 색안경을 쓴 정길 들어온다.

은하:정길동무, 우리 어머니예요.

정길:(인사하며) 안녕하십니까?

순절:이 사람, 정말 고맙네, 고마와. 눈은 좀 어떤가? 아직 심한것 같구만. 쯤쯤...

정길:(흔연히 웃으며) 일없습니다, 어머니. ...

순절:그 신셀 뭘루 갇는담. 그럼 앓아 애길 나나라구. 내 좀...(구력을 찾아들고 나간다.)

은하:어서 앉으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정길:저를 안과전문병원으로 보내기에... 또 연구사동무가 제 논문원고를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검사해서 들린겁니다.

은하:의사선생한테 말하지 말라구 그만큼 당부했는데...

정길:제가 논문을 다시 쓰는걸 보더니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제 논문원고는 왜 가져왔습니까?

은하:한번 보고싶어서요. (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논문원고를 꺼내준다.) 자, 도로 받으세요.

정길:(논문원고를 받아보다가 놀라며) 아니, 이건 제것이 아닌데요?

은하:약간 수정보충한거니 한번 보세요.

정길:(놀라며) 제걸 수정보충했다구요?

은하:마음에 들겠는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정길:아니, 제가 읽어보지요.

은하:그럼 서재로 들어가자요. (먼저 앞서 들어간다.)

△정길 논문원고를 번져보는데 석민 들어오다가 그를 보자 무춤 선다.

석민:(그의 모습을 눈여겨보다가 혼자소리로) 응?!... 내가 저 청년을 어디서 봤더라? 낯이 익은데?!...

은하의 목소리:정길동무, 어서 들어오세요.

정길:예... (론문을 보며 천천히 들어간다.)

석민:아니, 바로 그 청년이 아닌가!... 그렇다면 은하를 구원해준것도 저 동무였던 말인가?!

순절:(파일이며 식료품을 넣은 구력을 들고 나오다가) 여보, 그 대학생을 만나봤수?

석민:(대답없이 그냥 거닌다.)

순절:아니, 왜 그러시우. 그애들은 어디 갔수?

석민:(서재쪽을 가리키며) 저기... 여보, 이제 보니 그 대학생이 언젠가 차표를 양보했던 그 청년이구만.

순절:그럼 당신이 입학시험장에서 만났다면?...

석민:웁소. 몇년만에 이렇게 다시 만날줄이야. ...

순절:(기뻐하며) 인생이란 은혜를 다 갚지 못할 만큼 짧은 날이 아니라더니 마침 잘됐구려.

그대신 이번에 그의 졸업론문을 잘 도와주면 될게 아니우.

석민:뭐 졸업론문을?!...

순절:그렇지 않구요. 오죽하면 논문때문에 예까지 찾아왔겠소.

석민:그렇단 말이지. ...

순절:아직 눈도 채 낫지 않은것 같수다.

석민:(말없이 창문가로 스적스적 걸어간다.)

은하:(서재에서 나오다가) 아버지 오셨군요.

석민:그 동무한테 논문을 보였느냐?

은하:지금 읽고있어요.

석민:네가 수정보충한걸 알테지?

은하:그러므로요.

순절:언젠가 아버지에게 차표를 양보했던 그 청년이라누나.

은하:어마나, 아버지, 그게 정말이예요?

석민:(고개를 끄덕인다.)

은하:(손뼉을 마주치며) 어찌먼!...

순절:그러구보니 오늘 우리 집에 보통귀빈이 온게 아니로구나. 내 뭘 좀 차려야겠다. (부엌으로 들어간다.)

석민:당신 요리솜씨 좀 보여주구려, 하하하...

은하: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난 그 동무의 논문에서 내가 풀지 못했던 열쇠를 찾았어요.

석민:열쇠라는건?

은하:그 동무가 착상한대로 하면 다시는 실험하다가 폭발되는 위험성이 없어질거예요.

석민:그러니 그건 그 대학생의 논문에서 제기된것이나?

은하:네, 그래서 저는 그 동무의 논문을 다만 졸업논문으로 통과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아버지

가 좀더 품을 들어서 학위논문으로까지 발표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해요.

석민:뭐 학위논문으로까지 말이냐?

은하:아버지가 적극 손을 대시면 될수 있지 않아요, 아버지!

석민:?! ... (대답을못하고 묵묵히 거닌다.)

은하:그러시지요? 사실 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훌륭히 완성된 논문을 받아안고 기뻐할 그 대학생동무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여기로 오면서도 힘든줄 모르고 달려왔어요. 아버지, 도와주시지요?

석민:(한동안 갑자르다가 고개를 저으며) 차마 그런겐 할수 없다. ... 없어... 량심상...

은하:뭐라구요. 혹시 그건 교육자의 결백한 량심때문에 그러시는가요? 하지만 인간성을 떠난 량심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해요.

석민:뭐라구요?

은하:마지막으로 이 딸이 부탁하는건데 그 동무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두번 다시 거절하지않길 바랄뿐이에요. (설음을 참으며 서재로 달려들어간다.)

순절:(나와 보다가) 여보, 남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점을 바치다못해 목숨까지 대신해주는 우리 시대에 졸업논문쯤 손질해주는게 뭐라구 그러시우. 너무하웨다, 너무해요. (눈물을 씻으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석민 피로운 마음을 누르며 참대나무를 어루만질 때 그의 심정을 담아 방창이 울린다.

세월이 흘러 머리엔 백발이 날려도
내 정성 변함없는줄 그대는 아는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길에
티없는 마음 바치여 변함없는줄

△방창이 흐르는 속에 석민 모대기는데 서재에서 정길, 은하 나온다.

정길: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정중히 인사한다.)

석민:아니, 이게 얼마만이요? (그의 손목을 뜨겁게 잡으며) 그때 날 몹시 원망했을테지?

정길:(뒤덜미를 만지며) 뭘요. ...

석민:그렇다면 어째서 다음해에 우리 대학에 다시 오지 않구 화학공업대학에 입학했소?

정길:그저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석민:설상가상이라구 이번엔 또 은하를 위해 눈까지 상했다니 안됐소.

정길:그래서 선생님은 제 논문을 수정보충하는데 동의하셨는가요?

석민:(애써 부드럽게 웃으며) 왜 맘에 안 드오?

정길:저...

은하:아이참, 기탄없이 의견을 제기하세요. 아직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건 우리 아버지가 적극 도와

와주실거예요.

정길: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예?...

석민:(그의 물음을 피하듯 얼굴을 돌린다.)

정길:(자기의 나름으로 짐작하고) 외람된 말이지만 선생님까지 그러신다면 정말 섭섭합니다.

석민:섭섭하다구요?...

정길: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진정이 아니였습니까? 그날 저더러 남의 지식을 빌어선 앞날에 나라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할 참다운 과학자가 될수 없다고 하시였지요. 그때 저는 비록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선생님의 뜻깊은 조언과 그후에 보내준 편지랑 참고서적들은 학문탐구의 좌우명처럼 제 이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었습니다. 하기에 저는 더욱 성실히 배워 자기의 실력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최첨단과학기술의 높은령마루로 뛰어오르려는 결의를 안고 학문탐구의 걸음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석민:새롭게 시작했던 말이지.

정길:그렇습니다. 오늘의 선군시대의 자력갱생은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 아닙니까? 더우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삼복철강행군》을 단행하시여 수많은 공장들과 기업소들에서 이룩된 기술개건의 창조물들을 보시고 그토록 귀중하게 여겨주신것이 바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행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아니였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준비되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면 오늘에 와서 선생님이 제가 빈 졸업증이나 받게 해주려고 그럴줄은 몰랐습니다.

석민:(격정에 넘쳐) 이 사람아!

정길:그건 제가 은하연구사를 도와준데 대한보상입니까 아니면 저의 앞날을 동정해서입니까?

은하: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정길:제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사실 저는 선생님의 조언도 그렇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우리 대학을 현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받아안았을 때 걱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석민, 은하: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정길: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화학공업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에서 실력있는 화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뿐아니라 경제적인실리가 있는 새로운 연구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론문을 쓰려고 졸업실습을 나갔었는데 은하연구사동무가 이미 그런 연구안을 실험하고있기에 조금이나마 도와주려고 했던것입니다.

석민, 은하:(뜨거운 충격속에) 아니, 그래서였구만. ...

정길:그리구 제가 병원에서 쓰던 논문초고는 저의 졸업론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하연구사동무의 연구안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가 해서 쓰던겁니다.

석민, 은하:(더욱 큰 충격을 받으며) 그럼 이 논문이 바로...

은하:정길동문, 제가 찾지 못한 폭발위험제거안을 제기했더군요.

정길:그래야 연구사동무의 논문을 실패없이 생산에 도입할수 있는 담보가 설게 아닙니까.

은하:뭐라고요?!

정길:그러지 않아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삼복철강행군》을 단행하시며 우리가 생산한 새형의 기계설비들에 질 좋은 도색만 하면 손색이 없을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논문을 꼭(논문원고를 은하에게 안겨주며) 은하연구사동무가 생산에 도입해야 합니다.

은하:아니예요. 동무의 졸업논문으로 제출해야 해요.

정길: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미 예비안으로 가지고있던 비날론중간제품에 대한 논문을 완성해서 제출할테니 넘려마십시오.

석민:(놀라며) 아니 비날론중간제품에 대한 걸?!...

정길:그렇습니다. 그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비날론공장의 여러 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우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맡겨주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석민:그럼 동무의 졸업증은...

정길:선생님, 졸업증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걸 한시빨리 해결해드리는것이 우리 새 세대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민:(뜨거운 걱정엔 넘쳐) 이 사람! 그래서, 그래서 비날론중간제품연구안을 택했던 말이지. ...정말, 정말...(목이 메어 정길을 뜨겁게 포옹한다.)

정길:선생님, 저를 제발로 건도록 진정으로 대해주어 고맙습니다.

석민:아닐세. 그건 도리어 내가 자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네.

정길:선생님, 그럼 부디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고 나가려고 한다.)

순절:(파일다반을 들고 나와보다가) 아니, 뭘 좀 들지두 았구 벌써 가려나?

정길:시간이 없어 그렇습니다. (나간다.)

은하:정길동무! (목메어 부르며 따라나간다.)

순절:원 세상에 이런 법두 있나?!... (따라간다.)

석민:(뜨거움에 잠겨) 지난날의 그 청년이 사철 푸름을 잃지 않고 곳곳이 자라는 이 참대처럼 몰라보게 성장하다니! ...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오늘의 과학기술중시시대에 스승보다 새 세대의 제자들이 앞선다더니 얼마나 높은 과학탐구의 자세를 지닌 청년인가.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심장의 박동과 숨결도 함께 하는 저런 새 세대 과학자들의 깨끗한 마음에 떠받들려 우리의 주체 과학의 창창한 앞날이 담보되는것이 아닌가! 그러니 것처럼 미더운 새 세대를 위해 내 무엇을 바친들 아까우랴!

△석민 비장한 결심을 다지며 옷걸이에서 봄의 투를 벗겨 입을 때 순절, 은하 들어온다.

순절:여보, 출장 떠나시려우?

석민:그보다 먼저 그 대학생이 입원할 안과전문병원에서부터 가봐야겠소.

순절:예?

은하:혹시 그 동무의 새 논문을 도와주시려우요?

석민:나는 그가 반드시 자기 실력으로 그걸 훌륭히 해내리라고 믿는다. 아무렴, 해내구말구!

순절:아니 그런 눈을 가지구 어떻게요?

석민:바로 그래서 찾아가자는거요!

순절, 은하:(놀라며) 뭐라고요?

석민:지금 그에게 안겨줄것은 앞으로 과학탐구의 깊은 세계를 투시할수 있는 밝은 눈일것ियो.

순절, 은하:그럼 혹시?!... (그의 손을 잡는다.)

석민:알아보니 그 청년의 눈은 각막이식수술을 받아야 회복될수 있다고 하오.

순절:그래서 당신이?!...

석민:여보, 것처럼 미더운 세대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내 이제 각막쯤 바친들 무엇이 아깝겠소.

그 동문 앞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 식의 화학공업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는 개척자가 될거요. (나가려고 한다.)

은하:(그의 앞을 막아서며) 아버지, 안돼요.

순절:여보. (석민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석민:걱정말라니...

은하:아버지, 그렇다면 제가 가겠어요.

석민:년 그 논문을 한시빨리 도입해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 나도 병원에 갔다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삼복철강행군》을 단행하시며 현지도하신 여러 공장들과 기업소들에 찾아가서 능력껏 도와주려나. (나간다.)

은하:(뜨거움을 삼키며) 아버지—

순절:여보—

은하:어머니, 저두 따라갈래요.

순절:아니, 너두?

은하:어머니, 저는 아버지와 그 동무를 통해서 진정한 과학탐구의 앞날이 어떻게 담보되는지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었어요. (달려나간다.)

순절:은하야! (창문가로 다가가 석민과 손잡고 멀어져가는 은하의 모습을 뜨겁게 바라보며 눈굽을 흘린다.)

△음악이 고조되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다시찾은 열쇠

김경일

우리 XX목제품공장 설계실에 처음 배치되어 온 사람들에게는 도안설계가들의 작업모습이 이채롭고 신기해보일지도 모른다. 매 사람이 앞에 벌려놓은 여러가지 가구도안들과 갖가지 연필들... 백지에 불과했던 흰 종이장우에 점차 여러가지 가구도안들의 형태가 잡혀가는 모양이며...

그러나 이들 가구도안설계가들의 생활이란 사실상 규칙적이고 단조롭기 그지없다.

아침에 제시간에 출근해서는 책상에 마주앉아 새롭게 착상한 가구도안의 초안을 그려보고... 그 초안에 기초하여 실제도안의 형태를 잡고... 그다음은 채색을 하는 마감작업이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작업공정들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어떤 날에는 연필선 한개 굵지도 못하는 날도 드문하다.

그 단조로움과 따분함을 한두달쯤 견디고나면 어느덧 여기에도 들끓는 생산현장의 힘찬 박동과 예술작품창작과도 같은 섬세하고 개성적인 분위기가 동시에 존재함을 느끼게 된다.

바로 그 새 사람들중의 한사람인 윤혁이란 제대군인청년을 설계실 기술검사인 옥주가 몇달째 말아 전습을 주고있다. 군대에 나가기 전에 전문학교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경력이 그로 하여금 가구도안설계가로 되게 할 욕망을 가지게 했던 모양이었다.

윤혁의 열성은 대단했다. 지금도 퇴근시간이 지났지만 간청하달싶이하여 옥주를 곁에 붙들어들었다. 여러가지 가구들의 투시도들을 펼쳐놓고 옥주는 윤혁이에게 알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형태를 잡는데서 선차는 구도를 잘 잡는거예요. 이젠 그러봐요.》

앞에 놓인 가구조각을 세심히 관찰하고난 윤혁은 머리속에 남은 표상을 종이우에 옮기기 시작했다. 기세 좋게 나가던 연필속도가 점차 떠졌다.

밀부분 그림에서 안타깝게 연필방아를 찌던 윤

혁이 슬며시 고개를 쳐들려 하자 옥주가 꼬챙이로 딱 하고 작업대를 쳤다.

《뭘 봐요, 뭘. 관찰력이 해결 안되면 도안설계를 못해요. 기발한 착상력과 섬세하고 예민한 관찰력, 이거야말로 도안설계가가 되는 기본열쇠예요.》

윤혁이 미심쩍은 어조로 반박했다.

《어제는 뭘 조형감각이 열쇠라더니...》

일순간 말문이 막혔던 옥주가 껌싸게 둘러쳤다.

《그 열쇠가 이 열쇠지 뭐예요. 아니, 이젠 까박을 다 붙여요? 정말...》

새 종이에 다시 그리기를 몇번...

옥주는 안타깝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사실 그이젠 오늘 저녁 시간이 급했다. 래일은 휴식일이면서 하나밖에 없는 언니의 생일이다.

두살터울인 그의 언니 차은주는 금속재료연구사인데 1년째 기차로 한시간나마 가야 하는 연구지에서 연구사업을 하고있다.

옥주는 래일 새벽차로 언니에게 갈 계획이었다.

그때문에 이것저것 준비를 하려면 저녁시간이 꼭 필요했던것인데 정열가인 윤혁에게 그만 발목을 잡힌것이다.

(래일이면 새침데기 우리 언니를 보게 되겠지. 아이 기뻐!)

옥주의 얼굴엔 벌써부터 기쁨의 미소가 남실거렸다. ...

그들 자매의 정은 어릴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 할만치 깊었다. 옥주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언니와 꼭 그러안고 잤다. 성격이나 외모는 완전히 달랐다. 언니는 봉산수수대마냥 늘씬한 키에 얼굴은 달덩이처럼 희어멀쭉한데 어찌나 내성적이었던지 해종일 가야 두세마디 말이나 할가? 반면에 옥주는 자그마한 키에 얼굴은 가무스름 오동통한데 어떤 때는 수다스럽다고 할 정도로 말도 많이 하곤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번도 싫증을 느껴

본적이 없었다. 그 언니의 생일이 바로 래일이다.

또한 옥주에게는 다른 엉큼한 속심도 있었다.

몇달전 집에 왔던 언니의 거동에서 이상한 낌새를 챘었다.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생각에 잠기는거랑 뒤로 다가가 왈각 그러안으면 와들 놀라 옥주의 손을 뿌리치는거랑 어쩐지 전과 같지 않았다. 애인이 생긴게 아닐까? 멋쟁이수재가 하나 왔다더니 혹시?...

어디 불시에 들이닥쳐 한적한 연구지생활의 너울을 슬쩍 쳐들어보자, 그럼 내 눈에 걸렸지 재간 있대? 닭무리속에서 오리 골라내듯 짚어내지 않으리.

해거름을 당해서야 집으로 돌아오면서 옥주는 좁전에 자기가 어처구니없이 둘러대던 말을 생각하고 픽 웃어버렸다.

《그 열쇠가 이 열쇠지 뭐예요?》

열쇠, 열쇠... 불현듯 산처럼 높이 쌓인 길거리의 눈무지가 눈앞에 떠오른다.

15년전의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다. 유년시절을 추억할 때면 언제나 제일먼저 삼삼히 밟혀오는 그 잊을수 없는 하루...

어머니가 다니는 직물공장에 밥을 가져다주고 그들 자매가 즐겁게 쿵쿵 뿔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홉살난 옥주가 열쇠고리에 달린 끈에 손가락을 걸고 뱅뱅 돌리기 시작했다.

은주가 말했다.

《옥주야, 그러지 마.》

《언니도 해봐. 재미있어. 비행기바람개비 같지 않니.》

그 순간에 열쇠가 손가락에서 획 벗어나 총알처럼 날아났다.

그들은 허겁지겁 열쇠가 박혔음직한 눈무지로 뛰어갔다. 그들에게 하나뿐인 집열쇠였다.

수산연구소 연구사인 아버지는 겨우내 바다의 탐색선에서 살다싶이하고 어머니는 밤늦게야 돌아오곤 했다. 따뜻한 방안을 그리며 추위속을 걸어온 어머니가 뽕뽕 언 몸으로 문밖에 쪼그리고 앉은 자기들을 본다면...

어느덧 아파트앞에 다달은 옥주는 생각에서 깨어나 호 한숨을 내긋고나서 새처럼 포롱포롱 계단을 날아올랐다.

7층까지 눈깜박할 사이에!

열쇠도 꺼내지 않고 다급히 문부터 두드렸다.

《7층 1호집 어머니, 빨리 문 여세요. 큰일났어요!》 깜짝 놀란 어머니가 헤덤비며 문을 열었다.

《요 장난꾸러기... 제정신이나? 왜 저녁마다 늦어? 큰일은 또 뭐구?》

《막내딸이 왔는데 큰일 아니문요. 하루종일 적적해서 혼났지요?》

어머니가 피곳 방문쪽에 눈길을 주었다. 《적적할새가 없었다. 누가 와있나 보렴.》

그제야 뻘뻘히 방문이 열렸다.

《어마!》

꿈에도 보이던 언니가 청초한 자태로 문가에

기대여 조용히 웃고있었다.

바람처럼 날아간 옥주가 그대로 언니의 목에 매달렸다.

《언니,언니야!...》

때아니게 왈각 눈물이 솟는다.

언니의 새초롬한 속눈썹에도 물기가 반짝인다.

어머니가 혀를 찼다.

《계집애두, 언니만 보면 저 모양이지. ... 아주 왔다니까 어디 장밤을 새우려무나.》

옥주는 놀라서 어머니와 언니를 번갈아보았다.

《아주 왔어요? ... 새 바비트연구는 어떻게 하구?》

은주가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본소에 들어왔어. 이제 새 파제를...》

그제야 옥주는 야릇한 감촉을 느꼈다. 언니의 눈빛이 더 깊어보이는거랑 목소리마저 어쩐지 의기가 소침해진거랑... 그들은 방에 들어와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언니, 무슨 일이 있었구나. 비판받았어?》

언니는 곱게 눈을 흘겼다.

《앨... 네 얘기나 좀 해.》

은주는 시름이 내비친 눈길을 돌려버렸다.

옥주는 일단 단념하고 부엌으로 나왔다.

《어떻게 된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을 안해요?》

어머니가 행주치마에 젖은 손을 문지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재 성밀 몰라서 묻니? 무슨 사연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야. 얼굴 된꼴 보렴.》

섬찍한 예감에 옥주는 마음이 줄어들었다. ...

파르스름한 달빛이 창문으로 아낌없이 비쳐든다.

옥주는 팔베개를 하고 물끄러미 언니를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어려 은주의 낮색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옥주야.》 문득 은주가 나직이 불렀다.

《응, 언니야. 왜?》

《너 우리가 어릴 때 길에서 열쇠를 잃었던 생각 나니?》

《그걸 잊어버릴까? 그런데 그 일은 왜?》

《뭇랄까... 지금 꼭 그때 기분이야...》

또다시 옥주의 눈앞에 흰 눈더미가 보이고 총알같이 손끝에서 날아난 열쇠가 눈속에 박힌다. ...

그들은 달려가 눈무지를 마구 헤쳤으나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옥주는 앙 울음을 터쳤다. 은주도 울먹이며 옥주의 언손을 감싸쥐고 호호 불어주었다.

이때 사내애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희들 왜 그러니?》

중학교 4~5학년쯤 됐음직한 오빠였다.

《열쇠를 잃어버려서...》

옥주가 흐느껴울며 대답했다.

《울면 열쇠가 나오니?...》

그는 옥주의 볼을 닦아주었다.

《찾아보자, 온통 헤집어놔구나. 꼬꼬닭들이 왔다 갔나?》

시간이 흘러갔다. 열쇠는 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는 땀이 나는지 목도리를 벗어 옥주의 목에 감아주었다. 그들자매의 눈길은 얼마못해 빨갛게 부른 그 오빠의 손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그 한초한초에 느끼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라! 끝내 열쇠가 오빠의 손에 걸려들었다. 오빠는 언 손가락으로 열쇠에 달라붙은 얼음버के들을 가까스로 긁어버리고 옥주의 손에 꼭 쥐여주었다.

《어서가. 막 뛰어가면 발이 녹아.》

그는 멀어져갔다. 문득 은주가 덴갑을 했다.

《옥주야! 저 오빠 목도리!》

옥주는 내달렸다.

《오빠!》

옥주는 멈춰서서 가쁘게 할딱거렸다.

《오빠! 이 목도리.》

《오, 그거? ... 나한테ن 작아. 네가 써. 난 동생도 없는데 뭐.》

불현듯 옥주의 두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야, 이름이 뭐냐?》

중학생오빠는 친오빠처럼 웃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떠나갔다. ...

(어째서 언니가 그때 일을 생각하는걸까?)

옥주는 나직이 물었다.

《언니... 배반당했어?》

은주는 도리질을 하며 눈을 감아버렸다.

문득 감겨진 눈시울초리에 눈물이 맺힌다. 급기야 옥주의 가슴이 무너져내렸다.

옥주는 벌떡 일어나 이불을 활 제껴버렸다.

《일어나, 언니! 대체 누구야? 누가 언닐 올려?》

서러움에 북받친 은주는 소리를 죽여 흐느껴울었다. 옥주는 화끈 달아올라 다그어댔다.

《작년에 왔다는 그 사람이지, 이름이 뭐야?...에이, 바보!》

끝내 옥주는 배반의 전말은 아니더라도 몇가지 사실은 알아낼수 있었다.

한 대학동창이란다. 사랑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면서 싹튼듯 했다. 3년간 박사원까지 졸업하고 지난해에 연구소에 배치되어 벌써 쟁쟁히 이름을 떨치고있다는것이다. 언니는 3년간을 변함없이 기다렸을것이다. 그런데 온갖 기대와 믿음이 창졸간에 무너져내릴줄이야. ... 언니가 몇해째 심혈을 쏟고있는 연구주제에 대한 모욕적인 불신과 무시로 배반극의 첫 막이 오른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5성분계바비트연구야말로 함께 하자고 이미 대학시절에 약속한것이라지 않는가. 그때 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옥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반신반의, 의혹, 가슴저미는 상실감, 혐오...

옥주는 치가 떨렸다. 세상없이 착하디 착한 우리 언니 가슴에 칼질을 해? 가만두지 않을테야! 짧은 초여름밤을 거의 뜬눈으로 새운 옥주는 아

침일찍 밖으로 나왔다.

역을 향해 쉼쉼 걸었다. 붕— 하루 한번 그쪽으로 가는 통근열차의 꼬리가 금시 역구내를 벗어나고있었다. 옥주는 호젓한 구내에 홀로 쪼그리고 앉았다. 노염과 분을 못이겨 눈물을 흘렸다.

불쌍한 우리 언니! 일생 아물지 않는 상처에선 피가 흘러내릴텐데. 대체 이 일을 어떡하면 좋담?...

옥주의 마음엔 아랑곳없이 어느새 아침해가 한 발이나 떠올라 병긋거리며 그의 온몸에 밝은 해살을 뿌려주고있었다. ...

날과 달이 흘렀다. 운혁의 기술도 이젠 퍼그나 늘었다. 내 수준을 통가하게 되면 뭐 할 말이 있나? 할 말이 뭔데?!...

실장은 어제 총회에서 운혁을 입술이 닳도록 칭찬했다. 발전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던지...

남자가 의젓하지 못하고 기뻐서 싱글벙글하던 모양이란!...

사람은 자기자신을 바로 알기가 참말 쉽지 않은 모양이다.

제대되어 연필을 잡은지 1년도 되기 전에 전습엔 벌써 싫증이 났는지 독자적인 완성도안을 넘보는 모양이다.

도안에 뭐 약동하는 시대를 담고싶다던가?...

오지랖이 넓어도 분수가 있지. 매사에 담차고 썩직한건 좋지만 사실 기술이란 욕망 하나로 쌓아지는것이 아니다. 급수있는 설계가인 옥주도 아직은 독자적인 완성도안엔 서슴어지는데...

그러던 어느날 끝내 말썽거리가 생겼다.

계획지표인 1형가구설계를 가지고 몰래 형태를 잡아나가던 운혁이 옥주의 눈에 면바로 걸려든것이였다. 옥주는 아연실색하여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문 정말... 결심품구 엇나가는군요. 10년을 구른 기능공들도 엄두를 못내요. 쿵발에 서슬치겠어요?》

운혁은 안타까운듯 탄식을 내뿜었다.

《옥주동무, 꼭 해낼테니 두구봐. 난 10년씩이나 기다릴순 없어. 하루빨리 따라잡고싶어. 그리구 벽찬 현실을 외면한 도안설계가 대체 어디에 필요해? 난 옥주동무도...》

옥주는 야멸차게 말끝을 베어버렸다.

《흥, 말처럼 모든게 쉬웠으면... 제발 그런 생각은 걸어치워요!》

전없이 과격적인 처녀의 언행에 운혁은 놀랐다. 언니를 사랑했던 그 남자에 대한 격렬한 증오가 처녀의 가슴에서 아지를 펼쳐 자기들사이에 애꿎은 그늘이 지는줄을 운혁이 어찌 알랴.

요즘에 와서 옥주는 목이 쉬게 도안설계전습을 주는 사이 어느새 정이 든 운혁의 진지하고 정열적인 눈빛마저 이전과는 달리 자못 엉큼하고 능청스러워보이는것이였다.

시간이 가도 옥주는 좀체로 언니의 일을 잊을수가 없었다. 그달음으로 달려가 모진 말로 앙갚

음을 하지 못한 후회가 그냥 가슴을 허뻗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휴식일엔 언니가 있던 연구지에 찾아갈 결심이였다.

저녁이었다. 낮에 지나쳤던 감도 없지 않아 옥주는 운혁을 기다려 함께 퇴근길에 올랐다.

말없이 해변길을 걸었다. 해감내쉬인 바람이 얼굴을 적셨다. 저녁노을이 억만구슬로 반짝이는 물결은 방파제 밑에 누워 평화롭게 속살거렸다.

운혁이 먼저 서떡한 침묵을 깨쳤다.

《옥주동문 앵돌아지니까 앵두같애. 익지 않은 퍼런 앵두...》

《흥!》

《아, 흥미있다는 흥자로군.》

옥주는 그만 피씩 웃음을 보이곤 말았다.

《옥주... 물론 내가 아직은 변변치 않아. 기술이 늘지 않아 옥주동무 속을 태우구... 하지만...》

옥주는 잘근잘근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요. 기술도 썩 늘었어요. 사실은...》

갑자기 운혁이 환희에 넘쳐 말했다.

《옥주도 알고있겠지만 얼마전에 역사에 류례없는 <삼복철강행군>을 하시며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질 좋은 가구와 건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줄수 있게 제품의 설계로부터 가공완성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쓰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두고봐. 내 쪽 장군님의 의도대로 인민들의 생활에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줄 그런 멋진 가구도안들을 그려내고야마는걸.》

옥주는 놀라게 운혁을 바라보았다. 그런 훌륭한 꿈을 품고있는줄은 몰랐던것이다.

운혁의 기질과 정열이면 언젠가는 꼭 성공하고야말것이다.

서운한 어조로 옥주는 물었다.

《그때 가선 저한테 불일이 없겠군요?》

운혁의 낮빛이 희 달라졌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두 그게 잊혀질가? 옥주동무가 나를 위해 바친 낮과 밤을...》 옥주는 기쁨의 미소를 감추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입에선 왕창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말이 반찬같으면...》

돌연 언니의 가공한 정상이 떠올랐다. 대체 어떤 인간일까? 틀림없이 좋은 말은 다 골라가며 언니의 마음을 녹여냈을것이다.

이 사람도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속을 알게 뭐람?

《옥주동무, 난 진정을 말하는데...》

옥주는 쓴웃음을 머금었다.

《그런 말 잘 건사했다가 더 요긴한데 쓰세요. 그럼 전 이만...》

망연자실한 운혁을 남긴채 옥주는 멀어져갔다.

...

집에 들어선 옥주가 부엌을 보니 손가락을 찌른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언니, 왜?... 뻘나?》

옥주는 덴갑을 하며 부르짖었다.

애처로운 미소를 담고 은주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별치 않아.》

옥주는 재빨리 봉대를 가져다가 치매주며 곁이나서 웅쳤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해? 먼저 왔으면 책이라도 볼게지 누가 언니 음식شم씨 보겠대? 부엌일은 내가 다 한다고 했잖아! 어쨌든 언닌 밖에서나 집에서나 말썽이야.》

어마나! 옥주는 얼른 허끝을 깨물었다. 그러나 총알같이 내쫓은 말은 벌써 언니의 귀에 가서 보기 좋게 꽃힌 뒤였다.

은주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옥주야... 어쩔...》

또다시 은주의 눈가에 가랑가랑 물기가 고인 다.

애써 다독여 잠재우던 가슴속의 번뇌가 한순간의 파동에 출렁 기슭을 넘쳐난것이다.

은주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묵묵히 부엌을 나가버렸다.

(에이, 요 땡공이! 해볼데 가선 못해보고...)

가슴속 밑바닥에선 매운 내가 타래쳐오르기 시작했다.

가자! 가서 만나보면 최소한 앞으로 어떤 인간을 만드시 피해가야 하는지라도 깨닫게 될것이야닌가. 언니를 위해서 옥주는 더는 미룰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

휴식날 새벽 숨가빠 역에 도착하니 마침 개찰을 알리고있었다.

렬차는 한적한 구내에 기적의 여음을 남기고 서서히 출발했다. 옥주는 빈자리 하나를 골라앉았다. 앞좌석엔 짧은 부부가 네댓살쯤 된 아이와 함께 앉아있었다. 창턱에 팔을 고이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창유리에 누군가의 모습이 비쳐든다.

《그 자리가 마음에 듭니까?》

놀라서 돌아보니 깨끗하고 준수해보이는 청년이 스포링바람으로 싱그레 웃고있었다.

옥주는 그제야 벽에 걸린 옷을 보았다. 당반엔 목직해보이는 배낭이 얹혀져있었다.

옥주는 냉큼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디에 웅이래더니... 문득 옥주는 청년을 다시 쳐다보았다.

저 옷은 얼굴! 어디서 봤더라?

《그냥 같이 앉아 가지요 뭐.》

청년은 스스럼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아이어머니가 웃었다.

《일부러 대주지 않았어요. 잘했지요?》

청년이 선선하게 응수했다.

《저도 동행자가 생겼으니 잘됐습니다. 부러웠는데...》

옥주는 자꾸만 신경이 곤두섰다. 착각일까?...
짧은 너인은 아이에게 갖가지 재물을 부추기고 있었다. 총명한 아이였다.

또랑또랑 못 번지는 말이 없었다.

《애한테 외국어조기교육을 주면 어떨까요?》

너인의 말이였다. 청년은 책에서 눈을 떼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능교육의 첫 공정은 우리 말 공부야 아닐까요? 사람의 사유활동이 제 나라 말의 단어결합이나 문장형태로 이루어지니까요. 얼마나 많은 단어량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능숙한 문장구성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지적수준이 결정됩니다. 이 애한테 이제...》

《나 일혁이야, 착한 일혁이.》

어머니가 아이를 제지시켰다.

《그래서요?》

《그러니 일혁이도 당장 외국어보다는 우리 말 공부에 더 힘을 넣는게 좋을겁니다.》

《나 지금두 말 잘하는데 뭐.》

옥주는 한손으로 얼른 웃음이 나오는 입을 가리켰다.

《일혁이, 못써요.》

첫 아이의 어머니들이 대개 그러하듯 너인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아이를 닦아세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나요? 어른들 말에 끼여들면 나쁜 애라고 했지요? 아빠, 엄마 망신 다 시키구. <잘못했습니다.> 해요.》

타이름이 지나쳤는지 아이는 금시 울가망이 되었다.

《일혁이가 네살이라지요?》

청년의 물음이었다.

《나 네살...》

울어보려고 입귀를 실룩거리던 아이가 먼저 대답했다. 모두 웃지 않을수 없었다.

《글쎄 좀체로 떨어지지 않누만요. 요 나쁜 버릇이...》

청년은 아이를 끄당겨 무릎위에 올려앉혔다.

《그건 애가 어른들 말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분석한다는 뜻이지요. 그런걸 자꾸 억제해보십시오. 아이의 남달리 민감한 사고과정에 혼란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옥주는 내심 놀랐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였다.

애아버지도 기분이 뜨는 모양 맥주병들을 꺼내 놓았다. 청년은 자리를 일었다.

《전 이번에 내려야 합니다.》

옥주는 그제야 펄쩍 정신이 들었다.

그도 내려야 했다. 함께 내려 역구내로 나섰다.

역앞 갈림길에서 청년이 말했다.

《어데까지 갑니까?》

《전 광덕연구기지에 갑니다. 동지는요?》

청년이 놀란 미소를 짓는다.

《나도 거기까지 가는데요.》

어마나! 그럼 언니랑 같은 연구사?...

함께 걸기 시작했다. 옥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혹시 차은주라고 아십니까?》

청년은 저으기 놀라운 기색이었다.

《알지요. 잘못 찾아왔군요. 지금 연구지에 없는 데...》

물어볼까? ... 대체 그 배반자의 이름이 뭐가?

《저... 차은주연구사와 친하게 지내던 연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은 아예 멈춰서서 크게 뜬 눈으로 옥주를 바라보았다.

《있었다면요?》

《그 사람 이름 좀 대주시겠어요?》

상대방의 얼굴에 호기심이 한껏 실렸다.

《동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대주지요.》

까다롭기란...

《전 차은주언니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아...》

청년은 온갖 사연이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판판 남같이 다르군요. 이상한데요?》

옥주는 대뜸 눈을 치뜨며 뿔을 세웠다.

《동지, 상당히게 박식하시던데 유전법칙이 일관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건 모르세요?》

청년은 씩씩히 웃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렇지요. 그러니 언니쪽이 우성유전이군요.》

옥주는 더 뿔을 세우려다가 그만두었다. 어쨌든 언니를 칭찬하는 소리니까...

《다행히 제가 언니에게 좋은걸 많이 양보했어요. 이제 이름을 대주세요.》

청년은 잠시 바재이는듯 했다.

《광명이라고 합니다. 서광명, 이름을 대줬다고 뽐맞을건 아닌가?》

《이제 가면 만날수 있을가요?》

《동무가 무서워 도망치지만 않았으면...》

리정표를 보니 연구지까지는 십여리길이었다.

길옆의 덩불에선 참새무리가 날아오르고 미친하게 자라온 백양나무에선 매미가 아낌없이 목청을 질러댔다.

옥주는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좀 말해주세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청년은 목직한 배낭을 추슬러올리며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한 인간을 단마디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지요.》《흥, 그 사람을 만나서 따져야겠어요. 우리 언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뭇때문에 그런 배반을 당해야 했는지... 배반의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고들 하더군요.》 문득 청년은 걸음을 멈추었다.

《잘못 알고있구만. ... 먼저 돌아선건 동무 언니요.》

옥주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구요?!... 그게 정말이에요?》

청년은 묵묵히 머리를 끄덕이었다.
 삽시에 옥주는 다리뭉이 풀렸다.
 개울가의 너럭바위우에 그들은 배낭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연구사동지, 우리 언니랑 그 사람이랑 다투기라도 했나요?》
 《가끔 티각태각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때문인가요?》
 청년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크고 단 참외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남자들도 힘겨울 때가 많은 연구사업인데 은주동무야 섬약한 기질에 오죽했겠습니까?》
 설사 미흡한 점이 있다쳐도 남자라면 아량이 있어야지요. 도와주구 힘이 되어주구. …》
 《어마나, 그럼 연구사동지도 우리 언니편이군요. 이제 가서도 절 좀 도와주세요.》
 청년은 시무룩이 웃음을 지었다.
 옥주는 새삼스레 분이 치밀었다.
 《사람들이 보는데서까지 언니를 괴롭혔다니 정말 되지만 사람이군요. 기가 차서 못 견디겠어요.》
 청년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지내 앞지를건 없습시다. 다투는걸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옥주는 프아한 안색을 지었다.
 《동지가 보셨다는건…》
 《나는 레외라고 할수 있지요. 사실 난 광명동무의 돌도 없는 친구니까요.》
 그의 혼연스러운 말투에 옥주는 발끈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러니 거짓협담을 했군요? 남은 속이 타서 죽겠는데…》
 《미안합니다, 옥주동무!》
 그는 옥주의 팔소매를 끄당겨 억지로 자리에서 앉혔다.
 한동안 침묵이 서려돌았다.
 흰 거품을 일쿠며 흘러내리는 물결을 옥주는 이윽히 내려다보았다. 파란 가독나무잎이 장난감 쪽배마냥 동동 떠내려오다가 여울에 걸려 안타깝게 매삼치고있었다. 옥주의 머리속에도 곤혹스러운 상념들이 고삐치며 떠돌았다.
 《말씀해주세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청년은 먼 추억을 부르는듯 한 눈빛으로 옥주의 어깨너머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물론 그들이 5성분계 〈교〉 바비트연구를 함께 하기로 대학때 약속한건 사실이요.
 당시로선 굉장한 외화가 드는 〈바—83〉이라는 석메달을 대용할수 있는 그 연구가 최절정에 올랐었지요. 선박, 철도차량, 발전소… 어디서나 마모틀이 석메달보다 5배나 작은 〈교〉 합금메달을 목마르게 요구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시다.
 지금은 7성분계, 8성분계 이상의 새로운 합금 메달들이 연구되고있구 지어는 비금속경질수지로서가 기계의 회전축들에 도입될 가능성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은주동무는…》
 까닭없이 옥주의 가슴은 선뜩했다.
 《그런데 언니는요?…》 《그들은 3년만에 만났지요. 광명동무는 지금 하는 연구가 무의미하다는결 은주동무에게 납득시키려고 했소. 언니는 노염을 품고 반발해나섰지요. 마치도 사랑이 식어버린 결과인듯이 오해를 하는것 같더군요.》
 옥주는 그야말로 신이 나게 긴 탄성을 내뿜었다.
 《아, 난 또 무슨… 그썬한 일로 다툰단 말예요? 그 동지도 한심하군요. 사내대장부가 그렇게 웅충해서야…》
 옥주는 그만 말끝을 사리고말았다.
 선명하고도 깊어보이는 청년의 두눈에서 연기처럼 고뇌가 흘러나오는듯 했기때문이였다.
 《그걸 처녀의 어리광으로 귀엽게 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광명동무는 다른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언니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수 있게 과학적으로 준비되어있지 못하다는걸 말이지요. 그 친구는 이걸 가슴아파하더구만. 대학시절엔 정열이 불타던 은주동무가… 몇해째 그가 단 한편의 원서도 읽지 않은것을 알고는 경악했소. 과학자에겐 첨단지식만이 유일한 무기라고 할수 있지.
 단 하루라도 무기소제를 하지 않고 조준련습을 하지 않는 병사는 이미 참다운 의미에서 병사라고 할수 없지요. 우린 군사복무의 나날에 그렇게 배웠소.》
 입안에선 가시세고 매물찬 반박의 말들이 줄기차게 뿜돌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옥주는 한마디도 내뱉을수가 없었다.
 가슴쓰린 수치감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옥주는 그만에야 두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정말 언니가 그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일가?
 무작정 제일인줄로만 알았던 우리 언니!
 이 일을 어찌면 좋아… 청년의 나직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고 희망도 각각이지요. 하지만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오늘의 벽찬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삶의 보람을 찾는 열쇠는 하나라고 봅니다. 조국에 쓸모있는 지식과 완벽한 실력! 이것을 잃은 인간이 어데서 행복이나 삶의 가치를 찾을수 있겠습니까, 사랑에서요? 가정에서요? 재부에서요? … 은주동문 바로 이 열쇠를 잃었다고 하는지요. …
 오늘의 시대엔 지식과 실력만이 충실성과 애국심을 쥔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말이 자꾸만 옥주의 뇌리에 뿜돌았다.
 열쇠, 삶의 보람을 찾는 열쇠! 단 하나뿐인 열쇠…
 추억은 또다시 흰 돛을 펼치고 아득히 흘러간 그날에로 미끄러져간다.
 이름도 대주지 않고 떠나간 중학생오빠.
 그들 자매는 망연히 서서 그의 뒤모습을 바라

왔다. 그리고 옥주는 손에 쥔 열쇠를 절망적으로 내려다보았다. 끈도 없는 그 열쇠는 옥주네 집의 열쇠가 아니었다!

옥주는 차마 이 말을 그 고마운 오빠에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오빠를 더이상 고생시키기엔 어린 마음들이 너무도 여리고 청순했던것이다.

그들은 다시금 찬눈을 헤집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몇시간...

날이 어두워올무렵에 그 길을 되돌아오던 중학생 오빠가 깜짝 놀라 멈춰섰다. 울먹이는 옥주의 실토정에서 사연을 알게 된 오빠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옥주를 꼭 껴안아주었다.

《옥주라고 했지?... 집열쇠를 잃으면 집의 전부를 잃는것처럼 생각했구나. ... 맞아, 우리 꼭 찾아내자.》

오빠는 또다시 오래도록 눈속을 더듬었다. 마침내 찾아내고야말았다.

열쇠를 쳐들고 웃음짓던 그 잊을수 없는 모습. 그 따뜻한 눈빛!...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질까. ...

옥주는 가슴 울렁이는 예감을 품고 연구사를 이윽히바라보았다.

《연구사동지... 이름을 어떻게 부르세요?》

청년은 말없이 미소를 짓기만 했다. 또다시 그 웃음이 낯익어보였다.

《혹시... 제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젠 15년도 넘었다고 생각되는데... 두 자매가 눈무지에 빠뜨린 열쇠를 찾아준적이 있지 않아요?...》

청년은 끝내 도리머리를 저었다. 옥주는 아쉽게 한숨을 내쉬고말았다.

유정한 시내물의 흐름소리, 새들의 정찬 지저귐 소리, 주위엔 참나무숲의 싱그럽고도 씩씩한 향기가 흘러넘쳤다. 그러나 옥주의 마음속엔 어스름이 차올랐다.

참된 사랑과 명예,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그 귀중한 열쇠를 잃어버린 언니!

옥주는 멍멍이 언니만을 타매할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자 불시에 속이 얼어들었다. 그럼 나는?...

나에겐 그 열쇠가 있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을까? 능숙한 도안설계가이며 기술검사인 자신에 대한 광채나는 우월감이 줄지에 빛을 잃은듯 했다.

가구도안도 어찌 보면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 가구도안이라는 예술의 새 경지를 개척해보려는 야심조차 그에게는 없었다.

오히려 아직은 수련이 부족한 제대군인출신의 운혁이보다도 옥주에겐 피타는 몸부림이 없었다.

이따금 서운하고 실망에 젖은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던 운혁의 모습이 떠오르자 옥주는 비로소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듯 했다.

삶의 좌표도 지향도 없이 보잘것없는 기술에 스스로 도취되어 전진을 멈춘 옥주자신에 대한 무언의 타매였는지도 모른다.

옥주는 발치에 무겁게 놓여있는 연구사의 원로 배낭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부끄러웠다. 시대의 벽찬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한옆으로 밀려난듯 한 소외감이 마음을 괴롭혔다.

《옥주동무!》

그의 나직한 부름소리에 옥주는 착잡한 상념에서 벗어났다.

《내가 너무한것 같구만. 집에 가거든 언니한테 꼭 전해주. 기다린다고... 모두가 은주동물 기다린다고...》

불시에 핑 눈물이 고여올랐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옥주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연구사동지... 우리 언니가 잃은 열쇠를 함께 찾아주세요. 그 광명이라는 연구사동지에게도 잘 얘기해주십시오. 전 돌아가야겠어요. 저도 이젠...》

청년은 가볍게 자리를 일었다.

《은주동무뿐이 아니지. 나 역시 마음을 다잡고 분발해야겠소. 하고싶은 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지식의 빈곤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의 만류를 뿌리치고 옥주는 무작정 배낭을 걸머지였다.

《함께 갑시다. 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혼자 보내면 언니도 절 탓할거예요.》

연구사가 환히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그들은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헤어졌다.

옥주는 타는듯 한 저녁노을의 후광속을 걸어가 는 그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왔다.

저처럼 땀흘려 걷는 이 땅의 무수한 저녁과 밤들이 모여 눈부신 아침을 이루어내는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 아침이 오면 우리들모두는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질것인가. ...

또다시 보람찬 나날들이 흘렀다.

옥주는 면밀한 준비를 갖춘 후에 낡은 도안들의 갱신을 정식 제기했다. 논의가 분분했으나 끝내 옥주의 의견이 접수되였다.

옥주가 며칠밤을 밝히며 그린 새 제품 도안들을 보며 운혁은 놀라움과 기쁨을 금치 못했다.

《옥주동무!... 난 그런줄도 모르구... 정말 고맙소.》

옥주는 쑥스럽게 얼굴을 붉혔다.

《운혁동지, 열선 하나였어요. 제가 잃어버린 열쇠... 꼭 찾지 않으면 안되는 열쇠...》

그날 저녁 거의 동시에 퇴근하여온 은주와 옥주가 방안에 나란히 앉아 하루에 있던 일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문득 문기척소리가 들려왔다.

옥주가 남먼저 달려나갔다.

《누구세요?》

뒤미처 놀라움에 찬 옥주의 부름소리가 은주를 놀래웠다.

《어마나! 연구사동지!》

바로 그 연구사청년이였다.

실로 옥주에겐 뜻밖이었으나 웬일인지 기쁘고 반갑기도 했다.

옥주와 함께 전실에 들어선 청년은 영문도 모르면서 옥주의 기본에 따라 미소를 짓는 어머니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고나서 마치도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인듯 옥주를 지나쳐 방문가에 서있는 은주쪽으로 다가갔다.

언니를 바라본 옥주는 다시 한번 놀랐다.

언니가 두손에 얼굴을 묻고 있는것이 아닌가.

청년은 서둘러 가방을 열더니 탐구와 고심의 흔적이 력력한 자료철과 계산지들을 은주앞에 펼쳐놓았다.

그것을 하나하나 더듬어나가는 은주의 눈에 정란과 자책의 빛이 수시로 엇갈렸다.

주위를 잊은듯 은주는 컴퓨터앞에 다가가 전원을 넣고 다급히 자료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연구사청년이 곁에서 어떤 자료들을 훑겨주기도 했다.

끝내 바라던 결과가 나온 모양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없이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 제가 할 일을...》

그만해야 옥주는 참지 못하고 소리쳐 불렀다.

《연구사동지!》

그가 깜짝 놀라 옥주를 돌아보았다.

《대체 연구사동지 이름이 뭐예요?》

연구사가 옥주에게 다가왔다. 하많은 사연이 담긴 그의 눈빛은 또다시 옥주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했다. 저 눈빛!...

《내가 옥주동무에게 죄를 졌가봅니다. 이젠 정식 통성합시다. 내 이름은...》

옥주의 가슴속에 기쁨의 파도가 이랑치며 물결쳐왔다.

옥주는 숨찬 목소리로 연구사의 말을 막았다.

《말하지 마세요! ... 전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사동지를 알고있었던것만 같어요. ...》

그리고는 키를 숨겨쳐 연구사의 귀가에 대고 뜨겁게 속삭였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우리가 잃었던 열쇠를 찾아준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불타라 나의 심장이

최정용

국화며 금잔화

만수국이며 봉선화...

구내길에 꽃들은 웃어 반기건만

목이 메여 목이 메여

차마 걸음 못 떼는 이 마음

몰랐더란다 그날에는 몰랐더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곳엔 꼭 가봐야겠다고

우리 장군님 또다시 오르신 그길이

단천체련소 이 구내길에 이어진줄을

깨끗한 일터에서

청신한 공기를 심호흡해보시며

냄새가 전혀 없다고

그리고 기뻐하셨기에

현대화되고 무인조종화되

흙잡을데 없는 멋있는 공장이라고

장군님 그리고 만족해하셨기에

만나뵈은 기쁨에 젖어

기념사진을 남겨달라고

무엄한 응석까지 부릴 때

진정 그날에는 몰랐더란다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걸음걸음을

구내길 곳곳에 찍어가시는줄

쏟아지는 폭우, 숨막히는 무더위속에서

산세 험한 동해천리길을

강행군으로 이어오신 장군님

세월이 흐른다 잊으랴 잊을가부나

아무리 힘들고 멀어도 가야겠다고

《삼복철강행군》길에 남기신

잊지 못할 그 사연, 그날의 그 말씀

자책으로 가슴 저리다

그 누구나 대신할수 없는

우리 장군님 그 걸음이여도

그렇게 그날에는 다 모른것이...

숭고한 헌신의 자욱자욱 따라 걸으며

걱정에 사무쳐 나는 보았다

이 땅에 전환의 새봄

강성대국 희망찬 새날이

어떻게 꽃피고 밝아오는지

아, 불타라 심장이 나의 심장이

내마음에 영원한 메아리되어

울려 끝없는 장군님의 그 말씀

빠져리게 새겨안고 불타라

운명의 태양 우리 장군님

그 걸음 한자옥이라도 덜어드릴수 있다면

한생에 다시 없을 행복일

전사의 심장이 불타올라라

생일상에 대한 생각

김진경

생일상은 자식들이 차려주는것이 상례이다.

자식들이 모여 부모의 한생과 건강을 축복하며 효도를 다할 마음으로 온갖 지성을 고인것이라 할가.

허나 나는 이것과 구별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생일상을 보게 되었다.

바로 전천착암기공장에 갔을 때였다.

구내식당에서 한 기술자의 생일상을 차려주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저으기 흥분되었다.

공장에서 차려주는 생일상, 이것은 분명 그가 걸어온 한생의 자옥을 값높이 사주는 《표창》일 것이다.

실지 식당에 차려놓은 정성어린 생일상을 보았을 때 감정은 더욱 새로웠다. 이미 보아오던 생일상과 별반 다른것이 없었지만 그것의 의미는 유다르게 느껴졌던것이다.

여기는 아늑한 정서로 채색된 방안이 아니라 세찬 열기로 끓어번지는 공장구내의 식당이다.

창문을 물들이는 용접불빛, 고르로운 기계소리, 쿵쿵 지심을 울리는 단조마치소리... 한가닥 바람결조차 쇠밥냄새 풍기는 노동자들의 더운 숨결처럼 여겨지는 구내식당에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가슴에 혼장을 가득 달고 생일상을 마주한 기술자의 얼굴엔 감격스런 빛이 력연하다. 옆에 앉아 자주 눈을 습벅거리는 그의 안해, 자식들, 사위, 며느리 그리고 백발로 은퇴하였으나 여전히 공장사람들과 한식술로 사는 어제날의 이름있는 공로자들, 공장의 보배로 떠받들리는 여러명의 고급기능공, 기술자들, 축하의 노래를 안고 온 공장예술소조원들...

축배사도 이 공장의 책임일군이 하였다.

그 말 또한 심금을 울리는것이였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공장에 모셨던 기쁨을 안고,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1.4분기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낸 자랑을 안고 생일을 맞는 선우영명동무를 축하하게 됩니다. ...》

40여년간을 야금기술자로 일해오고있는 선우영명의 한생은 공장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그것으로 하여 일군의 목소리는 점차 물기에 젖어들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선우영명은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제일 가슴아픈것은 자기 살점같은 공장이 점차 기운이 진해가는것이였다.

그는 한시도 공장을 뜨지 못했다. 벗어있는 기대를 볼 때면 그것을 부둥켜안고 막 울고싶었다. 그러다나니 군대로 나가는 외아들과 따끈한 밥

한그릇 마주하지 못한채 그대로 떠나보내였다.

게다가 앓고있던 심장병이 더해져 현장에서 정신을 잃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집이나 병원으로가 아니라 자기 사무실로 향했다.

병원으로 떠미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하였다.

《일없소. 내 걱정은 마오.... 공장이 근심이요.

우리 공장은 나라의 큰 몫을 담당하는 공장인데 절대로 죽어서는 안되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관심하고 믿어주시였는데 주인구실을 못하면 우리 어떻게 장군님앞에 머리를 들겠는가말이요.》 공장에서 제일 난문제는 강재와 석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것이였다.

당시 기술과장이던 선우영명은 원장재와 고열탄을 대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평양과 다른 도에 있는 연구기관에 드나들며 자료수집을 하였고 필요한 재료를 얻기 위해 먼 출장을 떠나기도 하였다.

너무 힘들어 길가에 맥을 놓고 주저앉는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것은 정든 사람들의 얼굴이였다.

자기를 기다리며 밤새 공장을 뜨지 못하고있을 지배인과 당비서 그리고 부서사람들...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도 그러진다. 언제나 선군장정의 길에 계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들이 있는 초소에도 찾아가실것이다.

몽클 가슴이 젖어든다. 경애하는 장군님! 지금은 어디에 계시니까. ...말할수 없는 걱정의 파도가 밀려와 목이 꺾 메였다.

이 순간 그는 자기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장군님께서 계시었다는것을, 언제나 곁에 계시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계신다는것을 행복스럽게 깨달았다.

참된 사랑을 안은 인간에게는 두려운것이 없다.

《고난의 행군》시기 연구도입된 파장철에 의한 소재생산과 저열탄을 쓰는 새형의 형단조가열로를 비롯하여 경제적가치가 큰 많은 기술혁신안들은 이렇게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자기 공장, 자기 일터에 대한 뜨거운 애착이 가져다준 귀중한 열매였다.

품들여 가꾸고 땀으로 결군 열매는 언제나 달고 향기로운 법이다.

선우영명에게 공장의 일군들이 축배의 잔을 부어준다. 넘쳐나는것은 그대로 공장사람들의 마음이었다.

하기에 저기엔 기술자의 흰 머리가 아니라 그로 하여 보다 젊어진 공장의 모습이 비끼는듯 하

다.

생각은 치달아오른다. 지난해 8월말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새로 만들어진 착암기를 보여주시고 친아버지심정으로 구내식당도 돌아보시며 소문없이 큰일을 하였다고, 공장에서 제대군인들에게 결혼식상도 차려주고 기술자들의 생일상도 차려주는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거듭 치하하시며 그토록 만족해하시였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 그들이 바쳐온 그 모든 수고에 대한 값높은 평가이며 변함없이 한길을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다심하고도 웅숭깊은 믿음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내가 본 그날의 생일상은 그저 늘 보아오던그런것이 아니였다.

여기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공장이라는 《큰집》의 주인으로 살았다는, 하여 조국이 알고 우리 장군님께서 기억하시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고귀한 의미가 있었다.

자식들앞에 가장 떳떳한 아버지로 사는 길이 어떤것인가 하는 선군시대의 새로운 룰리를 깨우쳐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때문에 여기엔 지나온 생의 추억만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해놓은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도 많은 법이다.

한생 자기 초소를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영광이 차례진다.

나는 선우영명과 그의 자식들이 걸어갈 저 희망찬 래일까지 보는듯싶었다.

바로 우리모두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하기에.

생일상, 진정 이것은 나이 많아 존대의 표시로만 받는것이 아니였다.

조국에 바친 피땀과 창조의 무게 여기서 오는 인생의 가치로 받는것이 아닐가.

60년 아니 600년을 살았대도 어머니조국에 바친것 없다면 그것이 무슨 생이랴.

오늘 누구나 바라는것은 충실한 아버지가 되기 전에 조국의 훌륭한 아들이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있다.

따뜻한 아래목에서 자식들이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기보다 이렇게 구내식당에서 한공장사람들이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는것을 더없이 긍지스럽게, 가장 행복하게 간주하는것도 이때문이다.

공장에서 차려준 생일상, 나는 여기서 선군시대 인간들의 보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관과 우리 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일심단결의 참모습을 보았으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는 그 비결을 다시한번 똑똑히 알게 되였다.

공장의 박동인양 쿵쿵 단조마치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오늘을 축하하는 북소리마냥...

백두산으로 떠나거라

박영숙

내 오늘 딸자식을
백두산으로 떠나보낸다
기차도 버스도 아니 타고
행군으로 가야 할
천수백리길을

딸아 떠나거라
꽃길만을 걸어온 네 자옥
이제 장군님 따르는 천만리길 가자면
어찌 백두의 길을 에돌아갈수 있으랴

견학길도아니다
유람길도 아니다
백두의 행군길에서
눈보라를 맞아보거라
우등불을 피워보거라

그래서 네 정녕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
우리 장군님 지켜가시는 내 조국이
얼마나 그 얼마나 귀중한지
그 길에서 느낄수만 있다면

떠나거라
어서 떠나거라 백두산으로
그 길에 우리 삶의 명맥이
그 길에 우리 혁명의 전통이
맥맥히 이어져있다

백두의 길을 걸어보지 못하고서야
어찌 혁명의 먼길을 갈수 있으랴
한생을 빛내갈수 있으랴

고향에서 백두산까진 천수백리
그 성스런 행군길에
딸아, 너도 힘있게 자옥을 새기거라
장군님 따르는 영원한 길에
백두의 그 났을 이어가거라

백두의 딸로
장군님의 딸로
대를 이어 가야 할 그 길
영원한 우리 삶의 그 길로
딸아 어서 떠나거라

나의 구내길

리광선

내 수많은 로동화를 갈아신으며
인생의 참다운 걸음새를 익혀가던
소중한 그 추억이
그 어디라없이 깃들어있는
홍남의 이 구내길

이 길에 정녕
우리 장군님
그 전설같은 강행군의
거룩한 자욱들을
새기셨단 말인가

이 길에 흐르는
이 공기에 정녕
우리 장군님
그 열화같은 숨결이
숨배였던 말인가

홍남의 로동계급이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해놓은
자그마한 일이 그리도 장하시여
《삼복철강행군》!
세상에 류레없는
그런 길을 걸어 찾아주신 장군님

진정 청춘의 그 시절에

이 길을 걸으며 내 흘린 땀방울도
그이께 드린 기쁨에 보탬되지 않았을가
이 길을 걸으며 내 부르던 노래도
선군시대 군중문화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그 장쾌한 선물의 한가락이 아니겠을가

이 구내길을 다시금 걸어보며
이 마음에 갈마드는 간절한 생각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그 천만리 강행군길에서
이 길은 언제나
기쁨의 길이 되었으면...
만족의 길이 되었으면...

정녕 찬바람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못 잊을 삼복철의 그 소낙비에
축축히 젖어 이 마음 젖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가장 가깝게 보게 하는 길이어

내 이 땅 그 어데서나
이 길에 마음을 세우고
인생의 걸음새를 다잡아가며
아버이장군님의 강행군길 따르리라
오, 홍남의 구내길
변함없는 나의 구내길이어!

조국과 나의 청춘

김철혁

소중한 생이였다
6월의 푸른 잎새처럼
싱싱한 젊음이였다

하지만
가을비 철갑모를 두드리던
전초선의 그밤
나는 서슴없이
비발치는 총탄을 맞받아나갔노라

나는 바랐노라
원썬들의 도발을 짓부시는 그 길에
이 한목숨 서슴없이 던져
참호뒤에 펼쳐진 나의 조국
그 아침이슬 한방울도 흩어지지 말기를

바랐노라 조국이여
그대의 푸른 하늘아래
들은 풍요를 자랑하고
아이들의 새별눈 희망에 반짝이기를
시대의 기념비들이 더 높이 솟아오르기를

내 만일 그밤
원썬들의 총구앞에서
한걸음이라도 주춤거렸다면
조국의 안녕엔 정녕 금이 갔으리
불밝은 행복의 창문들
그 어느 하나가 흐리어지고
물맑은 강기슭은 더럽혀졌으리

오, 그렇게 구한 목숨

백년을 살아 무엇하랴
내 젊음의 푸른 잎새
열백번 찢길지언정
병사로 육탄의 한순간을 살아
조국의 안녕을 지키고싶었나니

바친 그 젊음이 아닌가
조국이라는 무성한 거목의 아지에

설레이는 하나의 작은 푸른 잎새
그것이 나의 생
나의 청춘

아, 조국이여 나는 그대의 아들
어제날의 그 청춘이
내게 다시 온다 해도
내 기꺼이 그대에게 바치리라

녀인들의 일터 (외 2 편)

리미옥

까르르
조약돌 굴러가듯
허리를 꺾으며
한껏 터치는 웃음이
여기 있어요

탈의실을 나설 때도
순회길 기대앞에서도
자주 꺼내보는
작은 손거울에 비끼던
달같은 얼굴들이 여기 있어요

엄혹한 시련은
천필우에도 흘렸건만
그시련속에서 그 고난속에서
실을 뽑고 천을 짜며
그 얼굴 그 웃음 순간도 흐린적 없는
녀인들의 일터

남자들에게 뒤질세라
기술혁신론쟁에 열을 올리고
실토리와 부속도 재생해쓰며
기계의 동음을 날마다 높여온
우리들 가슴은 뜨거워

헤쳐가는 어려움속에
오히려 더 밝아지던 그 웃음으로
원췌의 제재와 압살소동을 박차나가며
날마다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심장으로
교대와 교대를 지켜가는 이 일터는

조국이 맡겨준 전투구역
여기선 토리토리 실만이 감기는것인가요
여기선 필필이 천만이 짜지는것인가요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미는
그 마음이 감기고
그 힘이 감기고
자랑찬 승리의 날과 달 해와 해들이 감깁니다

직기의 운전대를
우리는 선군의 총창처럼 틀어잡았습니다
전동기소리 북바디소리
뛰고 달리는 발걸음소리를
우리는 선군의 폭풍으로 높이 올려잡니다

류출구를 터치며 쏟아져내리는
쇠물의 뜨거운 열도에 더하여
탄벽을 허물어내는
높은 발파소리에 합치여
천필을 쏟아내는 우리의 직기들도
《결사옹위》, 《결사관철》
그 하나의 숨결에 뜨겁습니다

선군혁명의 억센 축을 받들어 떠밀어
용용히 앞으로만 내달리는 이 한쪽수레바퀴우에
끝없이 끝없이 천필이 실리고
세차게 타번지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실려
내 나라가 강해지는 기쁨이 꽃피고
내 조국이 융성하는 행복이 넘쳐나는 곳
아 여기가 우리 녀인들의 일터입니다

내 이젠 엄마되어

단발머리 가뜰히 줄라매고
직기앞에 서던 일
어제같은데
내 이젠 엄마가 되었습니다

탁아소 작은 요람에
내 아기 썩근썩근 잠재워놓고
기대앞에 설 때면

어쩐지 어깨가
갑절로 무거워집니다

잘각—
잘각—
정다운 직기소리에서
내 아기의 고르로운 숨결도
들어보는 마음

방울방울 기쁨을 주는
나의 기대도
어쩐지 엄마젖없이 못사는 내 아기같아
그 맥박인듯 그 박동인듯
꿈결에도 안고사는 동음소리 동음소리...
내 아기 얼굴에
꼭게 피는 웃음조차

짜고 짜내는 천필에
꽃으로 무지개로 새기고싶은 이 마음

아 천필도 그 천필
기대도 그날의 그 기대이전만
나 하나의 뭉만이 아닌
내 아기의 뭉까지 다 안고 달려야 할
그 의무로 하여 모든것이 더 소중한것입니다

그래서 예나제나 변함없는 이 순회길
오늘은 더 빨리 달리는 발걸음입니다
오늘은 더 뜨거워지는 심장입니다
엄마로 불러주는 후대의 당부를 안고
강성대국미래어로
더 높이 나래쳐오르는 이 마음입니다

요람

방직공으로 살며 일하며
내 이젠 어머니가 되였어도
오늘도 나의 생
따뜻이 보살펴주는
은혜로운 요람이 나에겐 있어라

자장자장 자장가속에
보동보동 살이 오르고
깨어나면 방실
끝없이 피어나는 고운 웃음속에

아침저녁 몰라보게 키가 자라는
내 아기의 그런 요람이 아닌
기대소리 정다운 곳
더운 땀방울 구슬지는 곳

벽체우에선 총진군의 구호 나뉘고
기동예술선동대의 힘찬 노래소리가
우리 기대의 동음에도 이 심장의 맥박에도
갈수록 뜨거운 열기를 안겨주는 일터

달마다 넘쳐해낸 계획을 두고
떠들썩 기뻐해주는 그 축하속에
마음껏 터친 행복의 웃음이 있고
아픈 비판에 흘린 눈물도 있는 곳

여기서 그리도 자주
내 혁신자의 꽃다발을 받아안았지
어머니란이름으로 선군시대 공로자의 이름으로
온 나라가 바라보는 큰 대회장

높은 연단을 향해 떠나갔었지

여기서
너인의 키를 높이 세워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제원썹놈들을
발밑에 굽어보며
서리발총창을 비껴드는
조선녀성의담도 배짱도 다 안았지

정녕
웃고 떠들며 땀을 쏟으며
창조의 기쁨도 멸적의 용맹도 키운
천짜는 나의 기대 나의 일터는
나라를 받드는 내 마음의 키를
끝없이 자래우는 곳

전투와 전투로 들끓고
경쟁과 경쟁으로 불꽃튀는
여기서 삶을 배운 나는 방직공
선군혁명가들의 대오에 이 너인도 세워준
어머니조국이 정말 고마워...

강성대국을 떠받들
또 하나의 큰 기동감으로 자라며
나이 들수록 정이 더 깊어지는 나의 일터는
한생을 안겨
한생토록 마음의 키를 자래우는
나의 요람이여라
혁명의 영원한 요람이여라

계몽기가요 《봉선화》에 대하여

흔히 지난날 집앞뜰에 심군 하던 봉선화는 우리 사람들과 매우 친숙하게 이어져있을뿐 아니라 그것은 짙은 민족적인 정서를 자아내고있다.

특히 그전날 우리의 처녀애들은 봉선화철이면 저마다 붉은 봉선화꽃잎을 따서 깃짚은다음 거기에 백반가루를 섞어 손톱들에 붙이고 일사귀로 감싸 실로 동여매 손톱을 빨갛게 물들이는 민속 놀이를 무척 즐겨하였다.

이처럼 우리 인민의 민속생활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있는 봉선화는 가요로 창작되어 일제강점 시기의 시대적분위기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정서를 예술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속에서 참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노래로 오늘날에도 친숙하게 불리워지고있다.

계몽기가요 《봉선화》는 주체9(1920)년에 홍란파(본명 홍영후, 1897—1941)의 처녀작으로서 처음에는 가사없이 바이올린곡으로 슬프다는 뜻에서 《애수》라고 달았다가 시인 김형준이 가사를 붙여 《봉선화》라는 이름을 달고 불리우게 되었다.

《봉선화》는 홍란파가 고학으로 일본의 우에노 음악학교과정을 일정하게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후 고향인 경기도 수원에 있는 향촌마을에서 가난한탓에 학교에도 못 가고 방직공장에 팔려가는 봉선이라는 처녀를 위해 바이올린으로 《아리랑》곡을 타다가 언뜻 하나의 곡상이 떠오르면서 작곡되었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몽기가요에는 조국해방에 대한 념원과 확신을 담은 노래들도 적지 않습니다. 〈봉선화〉, 〈눈물젖은 두만강〉은 나라잃은 민족의 설움과 함께 조국해방의 념원을 절절하게 표현한 대표적인 노래들입니다. 〈봉선화〉에는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들의 불우한 처지와 새세상을 갈망하는 감정이 잘 반영되어있으며 〈눈물젖은 두만강〉에는 해방전 우리 인민들의 비통한 생활감정과 함께 조국해방에 대한 간절한 념원이 담겨져있습니다.》

계몽기가요 《봉선화》에는 일제강점시기 우리 인민들의 불우한 처지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새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이러한 사상이 내포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일제

놈들은 가요 《봉선화》를 부르지 못하게 《금곡령》까지 내렸던것이다.

《봉선화》는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 그때를 한없이 그리워하면서 일제의 조선강점에 의해 민족의 모든것이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였던 당대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과 분노와 함께 새세상을 갈망하는 사상감정을 봉선화에 비유하여 형상함으로써 참으로 민족적정서와 향기가 진하게 풍기고있다.

《봉선화》는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해있던 불우한 비극적인 처지와 3.1인민봉기때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 맺힌 설움과 원한과 분노의 감정정서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절절한 념원이 상징적인 수법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사상정서적감정을 안고있는 《봉선화》는 애절하게 우리들의 심장을 파고든다.

《울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라고 시작되는 가사는 처음부터 비애와 울분의 감정을 타고 흐른다.

그러면서 《길고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라고 노래하는 서정적주인공은 봉선화가 만발하게 꽃피는 시절 잊을수 없는 고향마을에서 단란하고도 행복한 삶을 누리던 그때를 한없이 그리워하는 랑만의 감정을 펼쳐놓는다.

봉선화는 식물학적견지에서 농고보아도 한해살이식물로서 그 모양도 그렇지만 꽃 또한 자그마한 떨기들이 하늘하늘하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떨어질듯 한 연약해보이는 꽃포기이다. 이처럼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연약해보이는 그리고 한해밖에 살지 못하는 봉선화는 당시 우리 민족의 불우한 운명과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는 형상적비유의 시적대상으로 되고있다.

같은 사물과 현상, 대상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태도, 미적감수력에 의하여 형상의 각도는 달라진다. 따라서 《봉선화》에는 바로 한그루의 꽃포기를 통하여 단순히 그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향기가 아니라 일제에 의하여 수난의 쓰라린 생활을 강요당하는 우리 민족의 설움과 울분, 원쑤놈들에 대한 끝없는 저주와 분노의 감정 나아가서 조국해방에 대한 시인의 미학적견해와 사상적립장이 반영되어있다.

가사의 2절에서 시작되는 《어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술술 불어》는 우리 민족의 머리에 드리우는 암흑의 그림자를 편상시킨다.

실지로 일제놈들의 식민지배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암흑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는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쓰고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의 비극이 마치도 꽃과 잎이 다 시들어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아있는 줄기마냥 보인다.

그러한 형상은 《락화로다 늙어졌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앙상한 그 모양이야말로 처량해보이지 않을 수 없고 수난당한 우리 인민의 비참한 모습을 방불케 하고있다.

그러나 서정적주인공은 비록우리 민족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여있지만 민족의 혼은 살아있다고 힘있게 웅변한다. 그리하여 가사의 시적감정은 더욱 승화된다.

《봉선화》의 마지막절을 더 론하기에 앞서 잠깐 다른 계몽기가요를 살펴보기로 하자.

계몽기가요 《타향살이》는 살길을 찾아 이국의 타향에서 《고향떠나 십여년에 청춘만 늙어》 조국을 한없이 그리며 《꿈결에도 그리운 곳》인 고향으로 언제면 가겠는가 하고 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빼앗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만이 안겨올뿐이다.

하지만 《봉선화》의 3절에서는 《타향살이》에서 볼 수 없는 서정적주인공의 힘찬 맥박소리를 듣게 된다.

《복종설한 찬바람에 네 형체가 없어져도/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라고 하면서 비록 지금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여있지만 민족의 녀은 살아있다고 서정적주인공은 절절히 웅변하고있다.

그렇다. 일제의 악독한 폭정하에서도 민족의 혼은 살아 숨쉬고있는것이다. 하여 그것은 드디어 폭발하고만다.

서정적주인공은 마지막절구에서 이렇게 웅변한다.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라는 서정적주인공의 힘찬 웅변소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왜놈이 없는 새세상에서 참된 삶과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려는 우리인민의 지향과 녀원이랑만적인 감정정서로 충만되어있다.

《화창스런 봄바람》의 상징적비유를 통하여 지난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우리 민족의 기개와 불굴의 의지, 거대한 힘을 자부하면서 그러한 《봄바람》이 불어오리라것을 암시하고있다.

그리고 《환생기를 바라노라》라고 절절하게 웅변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주장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녀원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봉선화》는 가사의 사상주제적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음악적형상에서도 이채를 띠고있다.

8분의 9박자로 된 가요는 소박하고도 은은한 음조로, 장단의 규칙적인 반복과 애절하게 표현되는 속도감과 음량의 조절 등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깊은 사색의 세계에 이끌려간다. 하여 이노래를 부르노라면 민족적인 음악감정정서에 이끌려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이와 같이 가요 《봉선화》는 봉선화라는 하나의 꽃포기를 통하여 시대적으로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사상주제적과제를 해명함으로써 인식교양적의의와 함께 오늘까지도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바로 여기에 계몽기가요 《봉선화》의 사상에술적 특성이 있는것이다.

하지만 《봉선화》는 일제식민지통치의 특수한 사회환경속에서 나온것으로 하여 일정하게 제한성도 안고있다. 그것은 시인의 세계관적미숙성과도 관련되지만 일제의 폭압이 살판치는 당시의 조건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나서는 보타의의있는 사회적문제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지 못한것이다. 따라서자기의 창작적의도를 자유롭게 터놓지 못하고 은유와 비유를 통한 상징적인 수법으로 표현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봉선화》에는 당시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참된 녀이 깃들어있으며 조국해방과 함께 새세상을 갈망하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녀원이 반영된것으로 하여 그의 사상에술적가치와 함께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근에 또다시 《봉선화》가 계몽기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의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계몽기가요 《봉선화》는 민족수난기의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자기의 예술적생명력을 잃지 않고 8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서 하늘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오늘 민족수난의 역사를 반영한 계몽기가요 《봉선화》는 우리들에게 바로 총대가 강해야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있고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도 있다는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김현규

비둘기

박정철

어느 집
어느 창가를 날아내렸나
아침도 첫 아침
전승기념탑마당에 내려앉은 비둘기들아

서로 쫓고
서로 찾으며 노니는 모양
드넓은 이 광장이
마치도 저희 집 프락갈구나

어느 꼬마주인이
벌써 등지를 열어준게지
하루의 고운 꿈을
하얀 네 날개에 실어

아니면
머리 흰 할아버지
이 거리를 바라보는
정깊은 미소를 안고왔느냐

행복한 이 땅에
또 하루 새 아침이 밝아왔다고
저희들끼리 구구구—
기쁨을 속삭이더니

금시라도
푸른 하늘을 날으려는듯 고운 부리로
아름다운 것을 쓰다듬누나

아느냐 비둘기들아
즐거이 뛰노는 너희들 발밑엔
락동강의 모래불이 뜨겁게 달아있고
1211고지의 포연이 습배여있단다

이 전승기념탑마당을
영원한 행복의 프락으로 삼고
너희들의 보금자리—
아름다운 이 거리가
아침해를 반겨 키를 솟구나니

이제 너희들이
하늘가 높이높이 날아올라도
영웅전사들이 말없이 서있는
이곳을 떠났다고 생각지 말아

전승의 기념탑이
억년 떠이고 선 하늘이란다
피로 지킨 이 땅이
그 하늘에 찬란히 비껴있단다

《무적황군》의 《호박농사》

리동수

구름처럼 떼지어
압록강을 건너 간삼봉으로 밀려든
대일본제국의 《토벌》대무리
어허, 잘도 지었구나 《호박농사》를

철갑모를 쓰고
총대를 끼나들고
《야마도정신》의 기개높이 달려들어
하루사이에 마련한 《호박풍년》땅이 좁아
《호박농사》지을 땅이 없어
간삼봉에까지 게바라올랐으니
이 아니될 《호박농사》이라

—보천보의 날벼락에
일본땅이 뒤흔들린다
땅바닥에 떨어진 제국의 위신
기어이 추켜세우라
목구멍이 찢히게 고아대는

성난 천황의 악청에 내몰려
덤벼들던 놈마다 호박대가리
빨찌산 불벼락에
중대도 대대도 호박대가리
왜놈무리 통채로 호박대가리 되었으니

간삼봉비탈엔 온통
철갑모 쓴 호박이 데굴데굴
우마차에 실려간
산더미같은 《가보짜》마대
산산이 깨어져나간 《무적황군》의 신화여

그날의 《호박농사》이야기
오늘도 삼천리 내 나라를 넘보는
《황군》의 후예들을 깨우치거니
고지마다 간삼봉으로 높이 솟은
이 땅에 다시 덤벼드는 그날엔 재가루되어
가져갈 《호박》도 더는 없음을!

흰 손수건

박화준

조선전장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미군장교 톱슨을
뉴욕항구에 마중나온 애인 젠니가
두팔로 와락 그러안았네

《당신이 돌아왔군요!
미국은 무릎이 꺾어졌지만
당신은 두다리성한채로 돌아왔으니
톱슨씨야말로 〈무훈〉떨친
진짜 〈영웅남아〉예요》

애인의 간드러진 소리에
쭈그러든 공 부풀어오르는듯 해진 톱슨
《개선헌장군》마냥 으쓱해서 하는 말

《젠니 그건 당신의 덕이었소
당신이 아니면 난 이미
저승으로 갔을거요》

《내 덕이라니요?
내가 언제 당신곁에
있기라도 했나요?》

깜짝 놀라는 젠니에게

《무훈담》을 펼쳐가는 톱슨
앞가슴에 십자가를 그으며 하는 말
또한 걸작이였네

《돌격전에서 한줄배기 인민군전사의
총구앞에 나서게 되었지
위기일탈의 순간
방아쇠를 손가락에 건
그 애어린 병사앞에서
당신이 내게 준 그걸
맞받아 내들지 않았더라면
총탄은 내 심장을 꿰뚫었을거요》

《그거라니요?
이 젠니가 그래
당신에게 수류탄을
줘여주기라도 했나요?》

의혹에 찬 눈길로
쳐다보는 애인에게 톱슨 그제야
《그건 바로 당신이 내게 준
그 흰 손수건이었소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요